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지역학박사학위논문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 형성과 해외신사

The relation between the nation-state-building and
Kaigaizinza in Japan during the Meiji era



지도교수 류교열

2014년 2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제지역문화학과

한현석

본 논문을 한현석의 국제지역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위원장	하세봉	인
위 원	류교열	인
위 원	박진우	인
위 원	이수열	인
위 원	장용걸	인

2013년 12 월 26 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목 차

일문초록 <vii>

서장 <1>

제1장 19세기 후반 개항과 재부일본인사회의 구조변화 <11>

- 1. 서론 <11>
- 2. 쓰시마의 위상변화 <12>
- 3. 쓰시마인과 일본인의 갈등 <17>
- 4. 쓰시마인의 동향회 <20>
 - 4.1 구성과 배경 <20>
 - 4.2 활동 <24>
- 5. 결론 <27>

제2장 19세기 후반 재부일본인사회의 통합과 용두산신사 <28>

- 1. 서론 <28>
- 2. 개항 이전 재부일본인사회와 민간신앙 <28>
- 3. 쓰시마인의 사당에서 일본인의 신사로 <34>
 - 3.1 일본인자치기구 <34>
 - 3.2 쓰시마동향회 <46>
 - 3.3 용두산신사의 설립과 구 번주(舊藩主) <48>
- 4. 결론 <52>

제3장 20세기 초 재부일본인사회의 법인화와 신사행정	<54>
1. 서론	<54>
2. 부산거류민단의 신사운영	<55>
2.1 부산거류민단의 성립	<55>
2.2 신사·신직에 관한 규칙	<62>
3. 용두산신사의 사격(社格)청원	<67>
3.1 배경	<67>
3.2 통감부의 대응	<71>
4. 결론	<74>
보론 1905년-1910년 대련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과 사회통합	<76>
1. 서론	<76>
2. 대련일본인사회와 신사설립	<77>
2.1 데미즈 야타로(出水彌太郎)의 대련신사설립계획	<77>
2.2 이즈모야시로쿄(出雲大社教)와 대련신사	<80>
3. 대련신사와 아편	<85>
4. 결론	<89>
종장	<91>
참고문헌	<94>

표

<표1> 부산일본거류지 일본인 호수 및 인구(1876년-1910년)	<15>
<표2> 삼포왜관의 상황(1495년)	<29>
<표3> 부산일본인자치기구 및 자치대표의 변화(1876년-1910년)	<35>
<표4> 부산일본인관리기관 및 관리관의 변화(1876년-1904년)	<37>
<표5> ‘金刀比羅神社改建 및 辨天社修繕’ 대리위원 선거참가자 및 득표현황 ·	<41>
<표6> 1885년 5월 6일 靖國神社 합사자 명단(6人)	<44>
<표7> 부산거류민단 관리의 연봉표	<57>
<표8> 거류민단 설치 이전 거류민장의 연봉표	<57>
<표9> 거류민단원여비(1906년 12월 22일)	<64>
<표10> 신직여비(1907년 4월 17일)	<64>
<표11> 臺灣에서의 平松義雄의 행적	<69>
<표12> 出雲大社教 大連分祠 건설자금 기부자 및 기부금액	<87>

그림

<그림1> 작자미상 「倭館圖」(19세기 말)	<31>
<그림2> 卞璞 「倭館圖」(1783년)	<31>
<그림3> 작자미상 「釜山和館竣工圖」(1678년)	<32>
<그림4> 작자미상 「釜山窯圖」 (19세기말)	<32>
<그림5> 작자미상 「浦山港見取圖」(1881년)	<36>
<그림6> 千家尊福	<77>
<그림7> 松山理三	<77>
<그림8> 出雲大社教 大連分祠의 假神殿	<81>
<그림9> 대련시민의 木曳式	<83>

近代日本の国民国家形成と海外神社

1870年代から1910年まで、在釜山日本人社会を中心に

韓国海洋大国際地域文化学科

韓 賢石

抄録

本研究は、近代日本における国民国家形成の特徴を海外日本人社会の神社設立過程に着目し分析した研究である。

明治政府の急務は日本を近代的な国民国家に作り上げることであった。1870年代の身分制の廃止や徴兵制の実施、義務教育の施行などは、日本人が「他地域・他人」として捉えてきたのを「一つの日本」として認識させるようにした。そして、1890年に至り日本人は自ら「日本国民」として認識するようになった。

国民国家体制が形成されるこの時期、日本人は海外に進出して当該地域に日本人社会を形成した。このように日本の国民国家形成は、内部のみではなく外部でも進行されたのである。在釜山日本人社会は、1876年の釜山開港以後に日本居留地を中心に形成された。他地域の海外日本人社会と異なる点は、1877年に設置された日本人居留地が前近代の対馬人の生活空間であった倭館を基盤に形成されたことである。倭館には対馬人が航海の安全や金銭的な利益などを祈願する何ヶ所の民間小祠が存在し、この祠は日本人居留地が設置された以後にも残存した。したがって、在釜山日本人社会では、日本の国民国家形成過程で確認できる前近代期の民間小祠が近代的な神社に変貌することがわかる。在釜山日本人社会において神社が地域民の国民的統合の象徴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過程は地域社会の構造と密接に関わっていた。1899年に設立された龍頭山神社は在釜山日本人社会を代表する象徴として機能したが、法的には海外に任意に設置されたのに過ぎなかった。これが、朝鮮統監府時期の居留民団法の施行による在釜山日本人社会の法人化で龍頭山神社は法的に日本の神社になった。本研究では、以上の内容を次のように構成し分析した。

第1章では、開港以後から1880年代まで在釜山日本人社会の構造に関する検討を行っ

た。1876年の朝鮮開港の以後から1880年まで、在釜山日本人の人口は100名にも達しなかったが、それが漸次増加し1880年には約2,000名に至った。1888年までの在釜山日本人を出身地別に分類した結果、過半数は対馬の出身者であった。対馬人は同郷会を結成し、旧藩を求心点として連帯した。対馬人と他地域の出身者の間には、葛藤が存在し、その中では暴力事件が起きることもあった。在釜山日本人の過半数を占めた対馬人が藩を中心として前近代的な生活習慣を維持していた様子から、開港以後の在釜山日本人社会が国民統合までは達してなか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第2章では、出身地別に大きく分けると対馬人と他地域出身者の構図であった在釜山日本人社会が、日清戦争以後、龍頭山神社の設立を通じて国民的統合に至る過程を検討した。在釜山日本人の全般的な行政は自治機構が担当した。自治機構は1880年から居留地内に放置されていた対馬人の祠を整備し日本人の神社を作ろうとした。その結果、対馬人の祠は、社務所のような施設を整えた近代的な神社に生まれ変わった。自治機構の活動とは別に、対馬同郷会は1884年に対馬の初代藩主であった宗義智を祭る弘国神社遥拝所を新設し定期的に祭典を執行した。この自治機構と対馬同郷会という二つの主体に分割されていた在釜山日本人社会の信仰は、日清戦争以後(1896年)に弘国神社遥拝所の祭神である弘国大神が金刀比羅神社に合祀されることによって統合に至った。1898年には老朽した金刀比羅神社の改築工事が、対馬の最後の藩主である伯爵宗重正の協力のもとに資金が調ったことによって行われた。分裂されていた在釜山日本人社会の統合に華族の協調があったことが確認できる。明治政府は国民国家初期において地域社会まで届かなかった行政力を補完するために、旧藩主を華族に登用し彼が持つ地域社会への影響力を利用しようとした。宗重正の活動は、旧藩主であり華族である彼が海外日本人社会の統合にも影響を及ぼしたことがわかる事例である。1899年に金刀比羅神社の改築を担当した建設委員会では社号を龍頭山神社と変更し、当該神社が在釜山日本人社会の産土神社であり国民的統合の象徴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

第3章では、居留民団法の施行以後の神社行政の分析を通じて、在釜山日本人社会が法的に近代国民国家日本の一部に編入される過程を検討した。龍頭山神社は在釜山日本人の国民的統合の象徴として機能したが、法的な側面では、海外に任意で設置された神社に過ぎなかった。1906年、統監府令により居留民団法が施行されることで在釜山日本人社会は日本国内の市町村のような法的地位が保障されるようになった。居留民団法に基づき、在釜山日本人社会は行政区を画定し各区を担当する総代を選出した。その後、1908年に龍頭山神社の事務を処理するための氏子総代が居留民団総代の選出規定に根拠し各区で2

名ずつ選出された。氏子区域と行政区域を一致させる作業は日本国内でも明治末期から内務省の主導により行われていた。「神社中心主義」といわれたこの作業は、神社を市町村ないし氏子組織の公共活動を始め産業や教育、思想などの中心に置くことを目的とした。龍頭山神社の社格請願も同じ脈絡から理解できる。なぜなら、それは法的に龍頭山神社を在釜山日本人社会の代表神社に登録することを意味するからである。社格制度は日本国内のみで適用される法規であったため海外で任意に設置された龍頭山神社には適用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が、居留民団法の施行によって可能になった。龍頭山神社の社格請願案は当時の統監であった伊藤博文を経て内務大臣まで伝達された。結果的に統監府時代に社格を付与することはなかったが、龍頭山神社の社格請願の過程は、在釜山日本人社会が神社行政の側面でも法的に日本の一部として編入されたことが確認できた。

以上、在釜山日本人社会の神社設立過程を通じた当該地域社会の国民国家化に関する分析が持つ意味は、日本の国民国家形成は内部と外部で同時に進行したことを具体的な事実関係を通じて論証したことである。また、海外日本人社会の国民国家化が旧藩(主)を中心とした前近代的な生活様式の影響を受けながら展開されたという事実を明らかにしたことも本研究の意義といえよう。

最後に捕論では在釜山日本人社会から確認した海外日本人社会の統合と神社の設立に関して、時期と地域を異にし日露戦争以後の大連における日本人社会と神社の設立を検討した。

Key words : 対馬, 龍頭山神社, 海外神社, 国民国家, 華族, 社格制度, 大連

서장

본 연구는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형성의 특징을 해외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 과정을 통해 밝힌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870년대부터 1910년까지 재일본인사회의 구조변화와 신사의 관계를 통해 해외일본인사회에서 진행된 국민국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정부의 급무는 서구와 체결한 불평등조약의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정부는 불평등조약의 개정을 위해서는 근대적인 국민국가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판적봉환(1869년)과 폐번치현(1871년)을 단행하고, 헌법을 발표(1889년)하였다. 그러나 근대국가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구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의 정치적 기본단위를 이루는 국민의 형성이야말로 근대 국민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기 때문이다.¹⁾ 따라서 일본의 “근대국가 건설과정은 근대적 국민의 형성과정이기도 했다.”²⁾

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에 따르면 국민은 공간적인 개념이다. 국경의 안쪽에서는 균질화, 평준화를 이야기하고, 바깥쪽 즉, “타국에 대해서는 자국민의 우월적인 독자성(국민성)과 문화적 차이를 강조”한다. 균질적이고 평준화된 공간에 존재하는 국민은 국민국가를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국기(國旗)·국가(國歌)·국화(國花) 그리고 지도는 패턴화된 일국의 이미지를 제공했다.(‘공간의 국민화’) 또한 전통적인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던 민중은 시간의 재편성을 통해 국민적 통합을 이루게 된다. 1872년 태양력의 시행으로 일본은 서구열강은 같은 시간 시스템을 공유하게 되었다. 내부적으로도 시간이 통일되어, 비로소 근대적 국가기관이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태양력의 시행은 구력을 따랐던 습속이나 미신, 민간신앙 등을 부정하고 새로운 사회질서와 도덕을 만들어 냈다. 예를 들어 1873년 제정된 천장절과 기원절은 일본민중이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 데 깊게 관계했다.(‘시간의 국민화’) 군대, 경찰, 병원, 학교, 교회(사찰)와 같은 국가장치는 공간과 시간의 국민화를 추진하며 민중의 신체와 생활리듬을 변화시켜 국민적 통합에 이르게 하였다.³⁾

메이지정부가 1870년을 전후하여 진기칸(神祇官)을 부흥시키고 신사를 국가의 중

1) 윤상인·박규태 편, 『‘일본’의 발명과 근대』, 이산, 2006, p.9.

2) 함동주, 『천황제 근대국가의 탄생』, 창비, 2009, p.159.

3) 西川長夫·松宮秀治 編, 『幕末・明治期の国民国家形成と文化変容』, 新曜社, 1995, pp.10-11, pp.30-36.

사(宗祀)로 정해 제정일치의 방침을 세운 것도 신사를 통해 일본민중의 국민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⁴⁾ 1873년 시행된 징병제는 일본의 성인남성들이 3년간 군대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타지역·타인으로만 여겨왔던 것들을 일본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의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메이지정부의 정책에 의한 일본국민의 창출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신불분리령, 신사통폐합과 같은 정책은 신앙생활의 거점을 잃은 일본민중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또한 메이지정부의 신사정책도 불교계의 반발과 1889년 일본제국헌법의 제정 이후 제기된 정교분리문제 등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징병제 또한 온전히 정착했던 것은 아니었다. 징병검사를 통과한 성인남성 대부분은 농촌의 젊은이였기 때문에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고, 낮은 군대의 규율 또한 적응하기 어려웠던 관계로 1873년-1874년 징병제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약 10만 명이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다.⁵⁾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일본인들은 1890년이 되어서야 스스로 '일본국민'임을 인식하게 되었다.⁶⁾

일본의 국민국가화가 진행 중이던 때 조일수호조규(1876년)가 체결되었다. 이후 부산(1876년), 원산(1880년), 인천(1883년)이 각각 개항됨에 따라 일본인은 개항장에 설치된 거류지를 거점으로 일본인사회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재부일본인의 인구는 개항 직후 100명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며 1880년에 이르러 약 2천 명에 달하게 된다. 재부일본인의 증가와 함께 거류지 내에는 병원(1876년), 사찰·학교(1877년), 경찰서(1880년) 등과 같은 시설들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에서도 일본 국내와 마찬가지로 니시카와가 말한 장치들을 통해 일본인의 국민통합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재부일본인사회에 대한 연구는 기무라 켄지(木村健二)와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의 연구⁷⁾를 비롯한 재조일본인연구의 확대와 함께 연구소재의 측면에서 점차 다양해져 도시화⁸⁾, 자치기구·사회단체⁹⁾, 종교¹⁰⁾, 산업¹¹⁾, 교육¹²⁾, 위생¹³⁾과 같은 넓은

4) 윤상인·박규태 편, 앞의 책, pp.58-59.

5) 이 사건으로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다. 앤드루 고든, 김우영 역, 『현대 일본의 역사』, 이산, 2005, p.139. 함동주 앞의 책, p.125, p.160.

6) 함동주 앞의 책, p.160.

7) 木村健二, 『在朝日本人の社會史』, 未來社, 1989, 木村健二, 「在外居留民の社會活動」, 『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 제5권, 岩波書店, 1993,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新書, 2002.

8) 김승, 「한말 부산거류 일본인의 상수도시설확장공사와 그 의미」, 『한국민족문화

범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국민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현재까지 찾기가 쉽지 않다. 병원과 학교 같은 근대적인 시설은 공공의 시공간을 창출하는 교육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1876년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에도 근대적 시설이 설치되었다. 당해지역의 일본인들은 이상과 같은 시설의 이용을 통해 표준화·균질화된 언어나 동작을 되풀이하며 이성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국민으로서 통합되어 갔을 것이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부일본인사회의 연구에서 지역민의 국민적 통합이라는 관점의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개항 당시 일본인의 생활습관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1871년 폐번치현이 시행되었지만 일본인들은 여전히 번(藩)과 같은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정

-
- 『Vol.34, 2009, 양미숙, 「개항기-1910년대 부산의 유곽 도입과 정착과정」, 『지역과 역사』Vol.24, 2009, 아이 사키코, 「부산항 일본인 거류지의 설치와 형성」, 『도시연구』Vol.3, 2010, 김승, 「일제강점기 해항도시 부산의 온천개발과 지역사회의 동향」, 『지방사와 지방문화』Vol.14, 2011.
- 9) 차철욱, 「개항기-1916년 부산일본인상업회의소의 구성원 변화와 활동」, 『지역과 역사』Vol.14, 2004, 김승, 「개항 이후 부산의 일본거류지 사회와 일본인 자치기구의 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Vol.15, 2012.
- 10) 최인택, 「개항기 奥村圓心の 조선포교 활동과 이동인」, 『동북아문화연구』Vol.10, 2006, 김승, 「개항 이후 1910년대 용두산신사와 용미산신사의 조성과정과 변화과정」, 『지역과 역사』Vol.20, 2007, 이원범, 「근대 한일관계와 개항지 부산: 신흥종교의 포교활동을 중심으로」, 『아태연구』Vol.18, 2011, 김윤환, 「개항기 해항도시 부산의 동본원사별원(東本願寺別院)과 일본인지역사회:공생(共生)과 갈등(葛藤)을 중심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Vol.6, 2012, 졸고, 「在釜日本人社會에서의 '神社化'와 그 의미: 대마도민의 사당(祠)에서 일본인의 神社로의 변화, 참여 주체 및 제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Vol.54, 2012.
- 11) 하원호, 「개항후 부산의 대외무역과 유통구조의 변동 - 곡물무역을 중심으로」, 『史林』Vol.25, 2006.
- 12) 이송희, 「일제하 부산지역 일본인사회의 교육: 일본인 학교 설립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Vol.23, 2005, 제점숙, 「구한말 부산지역 조선어, 일본어 교육의 전개: 이문화 '장(場)'으로서의 교육공간」, 『일본근대학연구』Vol.39, 2013.
- 13) 金貞蘭, 『開港期釜山における社会構造変化の研究 -日本の衛生行政を中心に-』, 神戸大学博士論文, 2009, 김정란, 「근대 해항도시 부산에서의 콜레라 유행과 그 대응: 일본인거류지 운영과 상수도 설비과정을 중심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Vol.4, 2011, 서용태, 「1877년 釜山 濟生醫院의 설립과 그 의의」, 『지역과 역사』28호, 2011, 차철욱, 「일제강점기 조선소(朝鮮牛)의 일본수출과 관리시스템」, 『역사와 경계』Vol.88, 2013.
- 14) 나루사와 아키라, 박경수 역, 『일본적 사회질서의 기원』, 소화, 2004, pp.7-8.

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구 번주(舊藩主) 또한 자신이 통치했던 지역사회에서 정의(情誼)관계를 통하여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한 구 번주와 지역사회 간의 관계는 1910년대까지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⁵⁾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876년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에서도 구 번을 중심으로 한 전근대적 생활습관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둘째는 재부일본인이 조선(인)과 대비되어 서술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국민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생활상을 조선인사회와 대비시키는 연구¹⁶⁾에서 흔히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재부일본인사회는 단일한 일본국민으로 구성된 사회로 서술되기 쉽다.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을 출신지별로 분류해 살펴본 연구도 없지 않으나, 그들을 일본국민으로 인식해버린 이상 지역별 차이는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는 개항 이후 당해지역에서 진행된 국민적 통합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부일본인사회는 여타 재조일본인사회와 달리 일찍부터 신사가 설립되어 지역민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다. 초량왜관의 부지와 건물을 이용해 설치된 부산일본거류지에는 쓰시마인이 세워둔 민간사당도 함께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승의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에는 당시 부산의 여론을 주도하는 유력자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쓰시마의 마지막 번주였던 소 시게마사(宗重正)를 비롯한 쓰시마출신 인사의 참여가 확인된다는 점이다.¹⁷⁾ 이러한 사실은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가 신사를 통한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과정에 구 번(주)를 중심으로 한 쓰시마인의 활동이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는 전근대적인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던 쓰시마인과 다른 지역 출신의 일본인이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의 설립과정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를 출신지 혹은 세력별로 구분하고, 당해지역의 신사설

15) 柳教烈, 『明治憲法體制と華族』, 神戸大學博士論文, 1994, p.38.

16) 차철욱·양흥숙, 「개항기 부산항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 형성」, 『한국학연구』 Vol.26, 2007, 하지영, 「개항기 조선상인과 일본상인 간의 자금거래와 곡물유통」, 『지역과 역사』 Vol.20, 부경역사연구소, 2007, 오미일, 「開港(場)과 移住商人」,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47, 2008, 양흥숙, 「개항 후 초량 사람들과 근대 공간의 형성」, 『한국민족문화』 Vol.44, 2012.

17) 김승 앞의 논문, 2007.

립을 살펴보는 시각은 해외신사의 연구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해외신사 연구는 해외일본인사회의 구조와 설립 주체에 대한 분석에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 해외신사라는 용어는 1933년 오가사와라 쇼쥬(小笠原三省)의 『海外の神社』가 출판된 이후 널리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해외신사는 크게 세워진 경위와 장소에 따라 두 종류로 분류되고 있다.¹⁹⁾ 하나는 근대이후 대외전쟁의 승리에 따라 일본의 점령지 즉, 식민지(臺灣·樺太·朝鮮)나 조차지(關東州) 혹은 위임통치령(南洋群島), 만주국 등에 정부 혹은 거류민에 의해 세워진 신사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하와이나, 남북아메리카 대륙 등에 일본이민자에 의해 세워진 신사를 말한다. 여기서 전자를 ‘협회의 해외신사’라고 하며 후자를 포함한 것을 ‘광의의 해외신사’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해외신사라는 용어는 협회의 해외신사에 해당한다.²⁰⁾ 또한 해외신사는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거류민설치신사’와 ‘정부설치신사’로 구분되기도 한다.²¹⁾ ‘거류민설치신사’는 해외로 진출한 일본인이 자신들의 생활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스스로 설립한 신사이며 메이지 시기를 기점으로 해외에 설립된 해외신사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설치신사’는 일본국정부나 총독부, 군 등이 해외에 점령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한 상징으로 설립한 신사를 말한다. 후자에는 대만신궁, 조선신궁, 관동신궁 등이 속한다. 해외신사 연구는 1945년 이후 신사를 통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이라는 측면에서 후자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다음을 통해 해외신사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카지마 미치오(中島三千男)는 「‘海外神社’研究序說」²²⁾를 통해 해외신사연구사 정리를 시도한 바 있다. 나카지마의 해외신사연구사는 최근까지 해외신사연구자들로부터 큰 반론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나카지마의 정리를 참고하여 해외신사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카지마는 해외신사의 연구를 총 4기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제1기는 1950년대-1960년대 전반까지로 오가사와라 쇼쥬의 『海外神社史 上

18) 小笠原三省, 『海外の神社』, 神道評論社, 1933, pp.12-13.

19) 中島三千男, 『海外神社跡地の景観変容:さまざまな現在』, 御茶の水書房, 2013, pp.14-15.

20) 협회의 해외신사는 식민지신사 혹은 침략신사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中島三千男 앞의 책, p.15.

21) 仁井田陞博士追悼論文集, 千葉正士, 「東亞支配イデオロギーとしての神社政策」, 『日本とアジア』, 勁草書房, 1970, p.302.

22) 中島三千男, 「‘海外神社’研究序說」, 『歴史評論』Vol.602, 2000.

卷』²³⁾과 신사본청(神社本廳)에서 간행한 『神社本廳十年史』²⁴⁾ 같은 해외신사에 관한 자료집이 신사관계자들에 의해 만들어져 해외신사의 전모가 밝혀졌다.

제2기는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중반까지로 신사관계자 이외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해외신사를 식민지 지배나 황민화정책과의 관계 속에서 논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나가노 료토쿠(中濃教篤)의 『近代日本の宗教と政治』와 『天皇制國家と植民地傳導』²⁵⁾가 있고 앞서 해외신사를 ‘거류민설치 신사’와 ‘정부설치신사’로 구분했던 치바 마사지(千葉正士)의 연구도 이 시기의 연구로 포함되고 있다.

제3기는 1970년대 후반-1980년대까지로 조선, 대만, 만주 등 각 지역의 해외신사에 대한 개별연구가 시작된 시기다. 신사를 포함한 불교, 크리스티교 등 일본종교가 조선의 식민지 지배에 관여한 사실을 밝힌 한석희(韓皙曦)의 『日本の朝鮮支配と宗教政策』²⁶⁾과 같은 연구도 이 시기의 연구로 분류되고 있다.

제4기는 1990년대-2000년대까지로 해외신사의 연구가 질과 양에서 비약적으로 진전한 시기이다. 이 시기 연구의 특징은 식민지 지배와 관련되어 진행되던 연구가 더욱 심화되어, 그 지역의 특정 시대나 특정한 과제로 압축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나카지마는 1990년대에 발표된 닛타 미츠코(新田光子)의 『大連神社史』²⁷⁾, 사가이 타츠루(嵯峨井建)의 『滿洲の神社興亡史』²⁸⁾ 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4기에는 2000년 이후에 발표된 연구인 스가 코지(菅浩二)의 『日本統治下の海外神社-朝鮮神宮·台湾神社と祭神-』²⁹⁾, 아오이 아키히토(青井哲人)의 『植民地神社と帝国日本』³⁰⁾, 김승의 「개항 이후 1910년대 용두산신사와 용미산신사의 조성 과정과 변화과정」, 김대호의 「1910년대-1930년대 초 경성신사와 지역사회의 관계」³¹⁾, 박진한·김창수의 「인천대신궁의 공간 변용과 재인천 일본인」³²⁾과 같은 연구

23) 小笠原三省, 『海外神社史上巻』, 海外神社史編纂會, 1953.

24) 神社本廳, 『神社本廳十年史』, 1956.

25) 中濃教篤, 『近代日本の宗教と政治』, アポロン社, 1968, 同, 『天皇制國家と植民地傳導』, 國書刊行會, 1976.

26) 韓皙曦, 『日本の朝鮮支配と宗教政策』, 未來社, 1988.

27) 新田光子, 『大連神社史: ある海外神社の社会史』, おうふう, 1997.

28) 嵯峨井建, 『滿洲の神社興亡史』, 芙蓉書房出版, 1998.

29) 菅浩二, 『日本統治下の海外神社-朝鮮神宮·台湾神社と祭神-』, 弘文堂, 2004.

30) 青井哲人, 『植民地神社と帝国日本』, 吉川弘文館, 2005.

31) 김대호, 「1910년대-1930년대 초 경성신사와 지역사회의 관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북아역사재단, 2008, pp.72-184.

32) 박진한·김창수, 「인천대신궁의 공간 변용과 재인천 일본인」, 『제국 일본과 식

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50년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해외신사연구는 신사를 통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비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 결과 주된 분석의 대상 또한 조선, 대만, 관동주 등과 같은 일본의 식민지를 총진수(總鎮守)했던 조선신궁, 대만신궁, 관동신궁 등이 선정되었다. 한국의 학계에서도 2000년 이전까지는 주로 신사참배 강요와 종교 탄압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³³⁾ 1990년 이후로는 앞서 언급된 '거류민설치신사'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했다. 지역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식민지 시기에 대해 지배와 피지배의 구도에서 벗어나 그 사이에 존재하는 보다 다양한 양상들에 주목하려는 시각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제4기에 발표된 연구들 대부분이 그러한 시각의 영향을 받아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해외신사의 연구는 오랜 시기에 걸쳐 소재와 시각의 부문에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분석이 심화되고 있지 못한 부분도 남아있다. 바로 해외신사가 당해 일본인사회에 설립되는 과정이다. 특히 해외일본인사회의 형성과정에서 발생한 구성원 간의 갈등과 타협 등의 사건이 신사의 설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진 바가 없다. 신사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존립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해외신사의 연구가 해외일본인사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 해외신사연구가 소홀했던 부분을 채워보고자 한다.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를 출신지별로 구분하여 본질적으로 이해한다. 오미일의 연구에 따르면 1888년 당시 재부일본인의 인구는 2,645명이었는데, 그중 50%가 쓰시마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³⁴⁾ 이것은 같은 시기 재부일본인사회를 거주자의 출신지를 기준으로 쓰시마인과 비쓰시마인의 구도로 나눠서 관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을 당해지역사회를 구성했던 두 주체의 활동에 주목하며 살펴보도록 하겠다.

민지 조선의 근대도시 형성』, 심산, 2013, pp.227-260.

33) 손정목, 『한국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 연구』, 일지사, 1982, 김승태, 「日本神道の 침투와 1910-1920년대의 '神社問題」, 『韓國史論』Vol.16, 1987, 최석영,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 서경문화사, 1997, 김대호 앞의 논문을 참고하여 정리였다.

34) 오미일, 「開港(場)과 移住商人」, 『한국 근현대사 연구』Vol.47, 2008.

둘째, 신사라는 용어를 역사적으로 파악한다. 해외신사연구에서 신사라는 용어는 “신도의 신들을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 또는 시설의 총칭”³⁵⁾이라는 포괄적인 뜻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사의 이해에 대해 사쿠라이 하루오(櫻井治男)는 다양한 존재형태를 가진 신사를 이해함에 있어 타당한 면이 있지만, 근대라는 시대를 통과한 신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신사의 개념화가 행정적인 입장에서 실시되고, 또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일정한 신사관이 양성되었다는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³⁶⁾ 즉 신사들을 이해함에 있어 메이지정부의 신사행정에 의한 영향을 구분하며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쿠라이에 따르면 메이지정부는 1868년부터 1879년까지 각 지방에 산재한 신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神社明細帳』에 남겼다. 오늘날 신사명(神社名)이란 신사의 명칭이고, 신명(神名)이란 신사에서 모시는 신의 이름이며, 신체(神體)란 신령이 머문다고 생각되는 물체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메이지정부 초기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까지 신사·신·신체 삼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때로는 삼자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 삼자가 각각 분리되어 오늘과 같이 인식하게 된 것은 메이지정부의 신사행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신사 가운데에는 나라현의 오미와신사(大神神社)나 이소노카미신궁(石上神宮)과 같이 사전(社殿)을 보유하지 않고 금족지(禁足地)를 정해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배후의 산이나 금족지를 배례하는 신사도 있었다. 그러나 신사행정의 결과 신사의 시설로서 사전·배전(拜殿)·도리이(鳥居)를 갖추도록 함에 따라 신사에 일률적으로 사전이 세워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근대 이전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는 산(山)의 신을 모시는 장소를 일컬어 ‘山神社’라고 표기하고 야마노카미 노야시로(ヤマノカミ・ノヤシロ)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신사행정의 결과 야마진자(ヤマジンジャ)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신에게 봉사하는 측에서도 그곳이 신을 모시는 단순한 사당(社)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신사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한다.³⁷⁾ 이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의 연구가 메이지정부가 실시한 신사행정의 영향을 고려하며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이지정부의 신사행정을 염두에 두고, 개항 이전 쓰시마인이 초량왜관에 세운 사당이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를

35) 國學院大日本文化研究所編, 『神道事典』, 弘文堂, 1994, p.3.

36) 櫻井治男, 『地域神社の宗教学』, 弘文堂, 2010, p.9.

37) 櫻井治男 앞의 책, pp.12-17.

대표하는 근대적 신사로 탈바꿈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개항 이후부터 1880년대까지 재부일본인사회의 구조에 대해 검토하였다. 1876년 개항 이후부터 1888년까지 재부일본인 중 과반수는 쓰시마출신자였다. 쓰시마인과 타지역 출신자 간에는 갈등이 존재하였고, 심할 경우 폭력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쓰시마인은 동향회를 결성하여 구 번과 번주를 중심점으로 연대하였다. 쓰시마인의 전근대적 생활습관은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가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데 장애가 되고 있었다.

제2장에서는 출신지별로 크게 쓰시마인과 타지역 출신자로 분할되어 있던 재부일본인사회가 청일전쟁 이후 용두산신사의 설립을 통해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재부일본인사회의 전반적인 행정은 자치기구에서 담당했다. 자치기구는 1880년부터 거류지 내 방치되어 있던 쓰시마인의 사당을 정비하여 일본인의 신사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 결과 쓰시마인의 사당은 사무소(社務所)와 같은 시설을 갖춘 근대적 신사로 거듭났다. 자치기구의 활동과 별개로 쓰시마동향회는 1884년 쓰시마의 초대 번주를 모시는 기념공간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제전을 집행하였다. 자치기구와 쓰시마동향회 두 주체에 의해 분할되어 있던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앙은 청일전쟁 이후(1896년) 고토히라신사(金刀比羅神社)로 결집된다. 1898년 노후한 고토히라신사의 개건공사가 쓰시마의 마지막 번주였던 백작(伯爵) 소 시게마사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분열되어 있던 재부일본인사회의 통합에 화족(華族)의 협조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소의 활동은 구 번주이자 화족의 영향력이 해외일본인사회의 통합에도 미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1899년 고토히라신사의 사호(社號)가 용두산신사로 변경되었고, 용두산신사는 재부일본인사회의 우부스나신사(産土神社)이자 국민적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제3장에서는 거류민단법의 시행 이후 신사행정을 통해 재부일본인사회가 법적으로 근대국민국가 일본의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용두산신사는 재부일본인의 국민적 통합의 상징으로 기능하였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해외에 임의로 설치된 신사에 불과하였다. 1906년 통감부령으로 거류민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부일본인사회는 일본 국내의 시정촌(市町村)과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거류민단법에 따라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행정구(行政區)를 획정하고 각구를 담당하는 총대(總代)를 선출하였다. 이후 1908년 용두산신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우지코(氏子)총대가 거류민단총대의 선출규정에 근거하여 각구에서 2명씩 선출되었

다. 우지코구역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작업은 일본국내에서도 메이지말기 내무성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신사중심주의'라고도 불린 이 작업은 신사를 시정촌 내지 우지코조직의 공공활동, 산업, 교육, 사상의 중심에 두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용두산신사의 사격(社格)청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법적으로 용두산신사를 재부일본인사회의 대표신사로 등록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사격제도는 일본 국내에만 적용되는 법규였기 때문에 해외에 임의로 설치된 용두산신사에는 적용될 수 없었지만, 거류민단법의 시행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안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거쳐 내무대신에게까지 전달되었다. 결과적으로 통감부 시기에는 사격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 과정은 재부일본인사회가 신사행정의 측면에서도 법적으로 일본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 설립과정을 통한 당해지역사회의 국민국가화에 대한 분석이 가지는 의미는 일본의 국민국가형성이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진행된 사실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증명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해외일본인사회의 국민국가화가 구 번과 번주를 중심으로 한 전근대적 생활양식의 잔존 속에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점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보론에서는 재부일본인사회에서 확인한 신사의 설립과 해외일본인사회의 통합에 관해 시기와 지역을 달리하여 살펴보고자, 러일전쟁 이후 대련일본인사회와 신사의 설립에 주목해보았다.

제1장 19세기 후반 개항과 재부일본인사회의 구조변화

1. 서론

본장에서는 쓰시마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개항 이후부터 1880년대까지 재부일본인사회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메이지정부는 근대국민국가체제를 지향하며 외교의 일원화와 자유무역을 추진하였다. 메이지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결과적으로 조선-일본 간 외교와 무역에 대해 독점권을 가졌던 쓰시마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1872년 일본외무성의 초량왜관 접수와 1876년 부산의 개항, 1877년 부산일본거류지의 설치는 조선-일본 간의 관계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임과 동시에 양국 사이에서 쓰시마의 존재가 사라지는 과정이기도 했다.

개항 이후 부산의 쓰시마인에 대해서는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의 연구를 통해 후쿠다 조베에(福田増兵衛)·오이케 츠스케(大池忠助)와 같은 소수 쓰시마출신의 성공한 상인에 대해 일부 밝혀진 바 있다.³⁸⁾ 아이 사키코(相沙希子)와 차철옥·양흥숙의 연구³⁹⁾에 따르면 개항 이후 부산에서는 쓰시마와 조선의 상인이 왜관시절부터 쌓아온 전통적인 상거래방식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쓰시마인과 일본 타지역 출신자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각 연구가 개항 이후 부산을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쓰시마인의 모습 역시 부산의 경제상황 속에서만 부각되고 있다.

1888년까지 재부일본인의 과반수는 쓰시마인이 차지했다고 한다.⁴⁰⁾ 개항 이후 부산에 진출한 쓰시마인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영세했다고는 하지만 재부일본인의 과반수를 쓰시마인이 점했다는 사실은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사회상을 파악함에 있어 쓰시마인의 활동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된다.

가미가이토 켄이치(上垣外憲一)는 쓰시마출신 언론인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에 관한 연구 가운데,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에서 발생한 쓰시마사족과 부산상법회의소 직원 간에 발생한 폭력사건을 소개하며,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전국에서

38)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新書, 2002, pp.9-14.

39) 相沙希子, 「부산항 일본인 거류지 연구 : (1876-1883)」,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7, 차철옥·양흥숙, 「개항기 부산항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 형성」, 『한국학연구』Vol.26, 2007.

40) 「釜山居留の日本人」, 『大阪日報』, 1888년 6월 5일, 오미일, 「개항(장)과 이주 상인」, 『한국근현대사연구』Vol.47, 2008에서 재인용.

속발한 불평사족반란의 “쓰시마·부산판”이라고 평하였다.⁴¹⁾ 일본의 근대국민국가 형성기에 발생한 불평사족의 반란이 재부일본인사회에서도 발생했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상은 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가 같은 시기 일본 국내와 마찬가지로 국민국가화가 진행 중에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하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참고하며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구조변화와 국민국가화의 양상에 대해 쓰시마인의 활동에 주목하며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부산의 개항을 전후한 쓰시마의 위상변화를 살펴본다. 이어서 개항 이후 부산에서 나타난 쓰시마인과 다른 지역 지역출신 일본인과의 갈등 및 쓰시마인의 대응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쓰시마의 위상변화

조선과 일본 양국 간의 외교와 무역은 조선 측에서 마련한 왜관에서 이루어졌다. 왜관은 임진왜란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전쟁으로 일본과의 국교가 단절되면서 폐쇄되어 있었고, 임진왜란 이후인 1607년 부산의 두모포에 다시 열렸다.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과의 외교와 무역에 관한 권한을 쓰시마번에 일임하였고, 조선은 1609년 기유약조를 통해 일본인과 물품의 출입을 제한하였다.⁴²⁾ 이후 부지가 비좁다는 쓰시마 측의 이견요구를 조선조정이 받아들임에 따라 1678년 4월 초량왜관이 새롭게 개관하였다. 이때 관수(館守) 이하 총 인원 454명이 수문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초량왜관 안으로 들어갔다. 관수 이하 모두는 공적인 업무를 위해 쓰시마에서 발행하는 표찰을 소지한 남성들이었다. 이들은 가족을 동반하거나 특히 아내나 딸 등 여성을 왜관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없었다.⁴³⁾

쓰시마는 조선의 인삼을 일본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며 크게 이득을 봤다. 조선의 인삼은 매우 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내에서 인기가 높아 쓰시마가 예도(江戸) 등에서 직영하는 상점 앞에서는 인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살소동까지

41) 나카라이 도스이는 여류소설가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에게 문학을 가르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는 유년기 초량왜관에서 조선어를 익혔으며, 이후 신문기자가 되어 부산과 서울에 주재하며 조선관련 기사를 적고 『춘향전』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朝日新聞』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上垣外憲一, 『ある明治人の朝鮮觀』, 筑摩書房, 1996, p.85.

42) 다시로 가즈이, 정성일 역, 『왜관 : 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 2005, pp.31-32.

43) 다시로 가즈이 앞의 책, p.89, pp.175-180.

별였다고 한다.⁴⁴⁾ 그러나 18세기 이후 일본에서 인삼재배가 성공함에 따라 쓰시마는 고난의 시대를 맞게 된다. 또한 이 무렵부터 일본 국내에서 생사(生絲)의 생산량이 늘어나 “인삼과 마찬가지로 수입대체화”가 진행되었고 쓰시마는 “조·일 양국 간 무역에서 일찍이 누렸던 번영”을 다시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⁴⁵⁾ 19세기 중반 일본의 개국과 개항장의 설치는 쓰시마의 위상을 재차 저하시켰다. 개항장을 통해 일본 국내로 값싼 외국제품이 곧 바로 유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⁴⁶⁾ 그러나 쓰시마인의 생활에 결정적인 피해와 변화를 초래한 사건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발생하였다.

마츠오 테츠지(松尾鐵次)의 연구에 따르면 1868년 7월 3일 쓰시마에 대홍수가 발생하였다. 피해를 입은 마을이 21개에 달하였으며, 제방이 파괴되며 황폐해진 경지도 무수했다고 한다.⁴⁷⁾ 이에 번에서는 피해를 입은 마을을 대상으로 모두 약 176석의 보리를 연공에서 차감해주기로 하였다. 1869년에는 수해를 입어 피해를 입은 9개 마을에 대해서 20년 간 면세가 결정되었다. 또한 홍수 이후에는 한발이 발생하여 이즈하라(嚴原)의 아리아케야마(有明山)에서는 기우제가 실시되기도 하였다.

1869년 6월 쓰시마지사(知事)로 임명된 쓰시마의 마지막 번주 소 시게마사(宗重正)는 미곡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사족(士族)을 히치쿠(肥筑)⁴⁸⁾의 관지(管地)로 이주시키는 소위 이민정책”을 취해 희망자를 받았다.⁴⁹⁾

자연재해에 이어 쓰시마를 곤궁에 처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1872년 일본 외무성이 초량왜관을 강제로 접수한 것이다. 이것은 쓰시마가 조일 간 외교와 무역에 관한 특권을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메이지정부는 1872년 8월 18일 외무성의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일행의 조선 파견을 결정하였다. 9월 10일 쓰시마의 이즈하라에 도착한 하나부사 일행은 “진서대(鎭西臺) 병력 2소대를 대동”하였는데, 이것은 쓰시마의 대조선 외교권 접수와 함께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쓰시마인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서였다.⁵⁰⁾ 9월 15일 저녁 초량왜관에 도착한 하나부사는 왜관에서 무역을 담당하는 대관(代官)을 쓰시마로 돌려보내고 이전까지 거

44) 다시로 가즈이 앞의 책, p.262.

45) 다시로 가즈이 앞의 책, pp.303-304.

46) 현명철, 『19세기 후반의 對馬州와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3, p.27.

47) 松尾鐵次, 『對馬近代史』, 對島明新聞社, 1930, p.22.

48) 히젠(肥前), 히고(肥後), 치쿠젠(筑前), 치쿠고(筑後)를 합쳐 부르는 용어이다.

49) 松尾鐵次 앞의 책, p.16, p.22, p.106, p.119.

50) 김흥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pp.308-310.

래가 금지되었던 물품의 거래를 자유롭게 할 것과 왜관의 건물이나 해안가 창고를 상인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관세도 폐지할 것을 명했다. 사실상 “왜관을 일종의 개항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였다.⁵¹⁾ 1872년 하나부사의 명령으로 상인을 제외한 쓰시마의 관리 및 불필요한 자가 왜관에서 쓰시마로 귀국하여 왜관에는 83명만이 남게 되었다.⁵²⁾ 왜관 내에 400-500명의 인구가 상주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약 5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1873년 3월 4일 외무성으로부터 조선에서 일할 것을 명받은 히로츠 히로노부(廣津弘信)는 관수를 면직시키고 왜관을 ‘대일본공관’으로 변경하였다.⁵³⁾ 이로써 쓰시마가 양국의 사이에서 “완충장치”⁵⁴⁾의 역할을 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의 체결로 부산이 개항된다. 같은 해 8월 조약부록에 따라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자유통행권과 일본인 묘지의 설치권, 조선인 노무자의 고용권” 등이 규정되었다.⁵⁵⁾ 1877년 1월 초량왜관의 폐쇄와 함께 부산일본거류지가 설치되었다. 같은 해 9월 일본은 태정관 포고 125호를 통해 일본인의 부산 도항을 허가하였으며, 1878년 여권 발급지 확대 및 수수료 인하와 같은 일본정부의 조치로 인해 재부일본인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⁵⁶⁾ <표1>에 따르면 1876년 82명으로 100명도 채 되지 않던 일본인의 인구가 1880년이 되자 2,066명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리적으로 부산과 인접한 쓰시마를 비롯하여 야마구치(山口), 오이타(大分), 후쿠오카(福岡), 구마모토(熊本), 히로시마(廣島) 등의 지역에서도 부산으로 도항했기 때문이었다. 재부일본인의 증가는 동시에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 본점을 둔 유력자본이 진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부산의 개항 이후 도쿄에 본점을 둔 오쿠라구미(大倉組)·제일국립은행(第一國立銀行)·미쓰비시기선회사(三菱汽船會社) 등이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아 거류지로 진출

51) 김흥수 앞의 책, pp.312-313.

52) 石川寛, 「倭館接收後の日朝交渉と対馬」, 『九州史學』Vol.139, 九州史学研究会, 2004.

53) 현명철 앞의 책, p.253.

54) 다시로 가즈의 앞의 책, p.154.

55) 최영호, 박진우, 류교열, 홍연진, 『부관연락선과 부산』, 논형, 2007, p.58.

56) “1878년 조선행 여권 발급지를 히로시마(廣島), 야마구치(山口), 시마네(島根), 후쿠오카(福岡), 가고시마(鹿兒島), 나가사키 이즈하라지청(長崎 嚴原支廳)으로 확대하고, 같은 해 여권 수수료를 통상 2엔인 것을 조선행에 한하여 50센으로 인하(1881년까지)”해 준 일본정부의 조치도 부산일본거류지의 인구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木村健二, 『在朝日本人の社会史』, 未来社, 1989, p.21.

하였다. 오쿠라구미는 1876년 11월 부산에 지점을 열고 사업을 개시하여 1880년 부산일본거류지의 영사관건설을 비롯하여 이후 항만매립·철도부설 등의 토목건축사업에 참여하였다. 제일국립은행은 1877년 일본정부로부터 100,000엔을 대출받아 1878년 5월 부산지점을 개설하였다.

<표1> 부산일본거류지 일본인 호수 및 인구(1876년-1910년)

연도	호수	인구
1876	-	82
1877	-	345
1879	-	700
1880	402	2,066
1881	426	1,925
1882	306	1,519
1883	432	1,780
1884	430	1,750
1885	463	1,896
1886	448-488	1,957
1887	450	2,006
1888	462	2,131
1889	628	3,033
1890	728	4,344
1891	914	5,254
1892	938	5,110
1893	993	4,750
1894	906	4,028
1895	952-953	4,953-5,035
1896	986	5,423-5,655
1897	1,026	6,065
1898	1,055-1,056	6,240-6,336
1899	1,100	6,325-6,326
1900	1,082-1,083	6,067-6,097
1901	1,250	7,029
1903	1,492-1,582	11,711
1905	2,363	12,948-13,364
1906	2,981-2,987	15,989
1907	3,423	18,481
1908	4,213	21,292
1909	4,284-4,508	21,697-21,928
1910	4,508-4,969	21,928-23,278

(출전: 김대래·김호범·장지용·정이근,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인구통계의 정비와 분석」, 『한국민족문화』Vol.26, 2005,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新書, 2002.)⁵⁷⁾

57) 김대래·김호범·장지용·정이근의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인구통계의 정비와 분석」에서는 1876년부터 1913년까지 재부일본인의 인구를 『한국2대항실세』(1905년), 『부산항세일반』(1905년), 『부산부세요람』(1912년, 1922년), 『부산요람』(1912년),

미쓰비시기선회사는 나가사키-부산 간 명령항로(命令航路)의 개설에 5,000엔의 정부보조금을 받았고 1881년 2월 원산항로 증편 때에는 10개년 무이자로 신기선(新汽船) 구입자금 80,000엔을 대출받기도 하였다.⁵⁸⁾

오사카에 본점을 둔 유력자본으로는 이오이상점(五百井商店)과 스미토모(住友)를 꼽을 수 있다. 이오이상점은 1878년 “서양형 범선을 이용하여 오사카-조선 간 수송을 개시”⁵⁹⁾하였고, 1879년에는 하자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를 부산지점장으로 파견하여 조선의 곡물을 수입하는 일을 맡겼다.⁶⁰⁾ 1880년 9월에는 “스미토모가(住友家)가 오사카-부산의 항로를 열고 부산과 원산에 지점을 설치하여 금건(金巾)을 수출하고 사금(砂金)과 우피(牛皮)를 수입”하였다.⁶¹⁾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일본의 유력자본가 중심의 근대적 상거래 외에도 쓰시마인과 조선인 사이에 유지되어온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이 공존하고 있었다. 도쿄에 본점을 둔 오쿠라구미가 부산개항 직후 오쿠라구미 부산지점을 개설하여 “종래 조선의 상습관(商習慣)이 아닌 정찰판매”를 실시했다⁶²⁾는 소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산일본거류지에서는 왜관 시기부터 이어져온 쓰시마인과 조선인 사이에 형성된 외상거래방식이 통용되고 있었다. 쓰시마와 조선 양측의 외상거래는 상인이 물건을 먼저 지급하거나 혹은 물건 값을 먼저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면 왜관무역에서 조선의 산삼을 먼저 구매하기 위해 일본 상인들이 외상으로 사들인 ‘피집(被執)’⁶³⁾이라는 거래방식을 들 수 있다.⁶⁴⁾

『부산항경세일반』(1916년), 『부산항경제통계요람』(1921년) 등의 자료를 근거로 정리하여 표로 만들었다. 자료에 따라 시기별로 부산일본거류지의 호수와 인구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위의 표는 각 자료에서 보이는 수치의 차이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다.

58) 도쿄의 유력자본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高崎宗司 앞의 책, p.10, 木村健二 앞의 책, pp.19-20, 坂本悠一·木村健二, 『近代植民地都市釜山』, 櫻井書店, 2007, p.15.

59) 朝日新聞社編, 『村山龍平傳』, 朝日新聞社, 1953, p.51.

60) 차철욱, 「개항기-1916년 부산 일본인상업회의소의 구성원 변화와 활동」, 『지역과 역사』Vol.14, 2004.

61) 朝日新聞社編 앞의 책, p.51.

62) 小林正彬, 『政商の誕生:もうひとつの明治維新』, 東洋經濟新報社, 1987, p.153.

63) “조선상인이 무역품을 먼저 지급하고 값은 일본상인이 분할하여 값은 일종의 외상거래이자 할부신용거래”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양흥숙, 「17-18세기 譯官의 對日貿易」, 『지역과 역사』Vol.5, 1999를 참고 바란다.

64) 차철욱·양흥숙 앞의 논문.

재부일본인사회에서 왜관 시기의 거래방식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상품이 ‘생산자→조선의 객주→쓰시마인→일본무역상’과 같은 유통과정을 거쳐 일본으로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산에서 일본의 “무역상은 대개 중매상에게 곡물 구입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다.”⁶⁵⁾ 이때 조선 측 중매업자는 객주였으며 일본 측 중매업자는 주로 쓰시마인이었다.

개항 이후 부산에는 일본에서 새롭게 건너온 근대적 유력자본가와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을 고수하고 있던 쓰시마출신 상인이 공존하고 있었다. 양측은 서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으며 그러한 관계는 양측 각자의 단체결성이라는 형태 등으로 나타났다.

3. 쓰시마인과 일본인의 갈등

개항 이후 부산에는 이오이상점, 스미토모와 같은 오사카에 연고를 둔 자본가가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서 신문사업으로 성공한 오사카 출신의 무라야마 료헤이(村山龍平)⁶⁶⁾도 1880년 4월 5일 사업차 부산을 방문했다.⁶⁷⁾ 원산·블라디보스토크·연해주로까지 사업의 확장을 계획하던 때 그 거점이 될 부산을 사전조사차 방문한 것이었다.⁶⁸⁾ 무라야마는 사족출신인 아버지를 따라 오사카에서 서양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상업을 익혔고,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1878년 오사카상법회의소의 초대위원으로 취임하였으며 1881년 1월에는 오사카아사히신문사(大阪朝日新聞社)의 사장에 오른 인물이었다.⁶⁹⁾

무라야마는 부산에 도착하여 영사관과 교도상회(協同商會)와 스미토모지점(住友支店)을 방문한 후 부산의 상황(商況)이 매우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⁷⁰⁾

65) “일본 상인이 개항장에서 곡물을 매집하여 수출하기 이전까지의 과정에는 여러 상인조직이 관계되어 있었다. 1883년까지 일본 상인은 조약상 거류지의 10리(4km) 밖으로 이동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개항 초기 거류지의 일본 상인과 생산지 사이의 유통과정에는 항상 중개상인이 매개하고 있었다. 개항장의 일본상인 중 양국상품을 수출입하는 자를 무역상이라 하고 양국 상인 사이에서 매매를 주도하는 자를 중매상이라고 했다.” 하원호, 「개항 후 부산의 대외무역과 유통구조의 변동」, 『史林』Vol.25, 2006.

66) 奥村梅臯, 『大阪人物評論』, 小谷書店, 1903, p.29.

67) 朝日新聞社編 앞의 책, p.54.

68) 朝日新聞社編 앞의 책, p.51.

69) 上垣外憲一 앞의 책, p.49, 濱田信夫, 「日本の新聞産業を牽引した企業家活動-村山龍平と本山彦一-」, 『日本の企業家活動シリーズ』Vol.52, 2012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4월 6일 무라야마는 부산의 상황에 대해 오사카의 동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알렸다.

이곳의 경황(景況)은 상상과 다르고 마치 쓰시마의 식민지와 같은 상황이어서 실로 한탄스럽다……(71)

무라야마가 동업자에게 전한 부산의 소식은 상황이 생각한 것과 달리 활발하지 못하며 “쓰시마인이 여전히 무역을 좌지우지”⁷²⁾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개항 이후 부산의 경제활동에서 쓰시마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다는 대목이다.

1878년 도쿄와 오사카에 상법회의소가 설치되고 그 이듬해인 1879년 8월 부산일본거류지에 상법회의소가 설치되었다.⁷³⁾ 부산상법회의소는 “兩國(조선과 일본:인용자)의 무역에 관한 일체의 이해득실을 상의하고 또 무역상 관청의 물음에 답하며 의견을 관청에 건의하는 것과 물품진열소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건립한 것이었다. 부산상법회의소의 회원은 “무역, 은행, 해운, 도매상”과 같은 4가지 영업에 종사하는 자만이 될 수 있었다.⁷⁴⁾ 당시 재부일본인사회의 상업계는 중매업자와 무역업자가 함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상법회의소에서는 중매업자를 회원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본의 대도시 유력상인들은 부산상법회의소를 설립하여 쓰시마인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쓰시마중매업자 측에서는 그것에 대응하여 협약사(協約社)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대립하였다.⁷⁵⁾ 이와 같이 부산에 진출한 일본의 유력가와 쓰시마인 측의 대립은 단체의 결성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대립은 결국 폭력사건으로 이어졌다.

1881년 6월 26일자 『大阪日報』에서는 6월 16일 부산일본거류지에서 쓰시마의 구사족들이 아마노 아키라(天野皎)라는 사람을 폭행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⁷⁶⁾ 부산상법회의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아마노가 오사카상법회의소에서 출판하는 『商況新報』에 “조선무역의 경황”라는 제목의 글을 투고한 것이 문제였다.⁷⁷⁾ 아마노는 부

70) 朝日新聞社編 앞의 책, p.58.

71) 朝日新聞社編 앞의 책, p.58.

72) 上垣外憲一 앞의 책, p.86.

73) 森田福太郎, 『釜山要覽』, 釜山商業會議所, 1912, p.256.

74) 森田福太郎 앞의 책, p.257.

75) 森田福太郎 앞의 책, p.258, 木村健二 앞의 책, p.106.

76) 『大阪日報』, 1881년 6월 26일.

77) 天野皎, 『入清日記その他』, 壺外書屋, 1929, p.10, 上垣外憲一 앞의 책, p.85.

산으로 건너오기 전인 1880년 오사카상법회의소의 서기로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⁷⁸⁾ 1881년 6월 부산상법회의소에서 근무하던 아마노가 오사카상법회의소의 신문에 기사를 투고한 것은 그가 오사카상법회의소에서 근무했던 이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사카와 부산에 설치된 상법회의소는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신시대(新時代)의 상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연합회”⁷⁹⁾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산상법회의소에서 전통적인 거래법을 고수했던 쓰시마 중매업자를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아마노는 기사를 통해 “쓰시마의 번주(宗對馬守)가 조선과의 무역을 “전유(專有)”해왔다는 등의 내용으로 “쓰시마국인(對馬國人)의 피해를 통격(痛擊)”하였다.⁸⁰⁾ 아마노의 쓰시마인에 대한 비판을 통해 부산상법회의소가 쓰시마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알 수 있다. 신문에서 아마노의 기사를 읽은 쓰시마의 구 사족 30여 명은 아마노를 찾아가 자신들의 “구 번주(舊君)”를 비방하는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아마노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폭력을 행사하였다.⁸¹⁾

이상과 같은 폭력사건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근대 일본의 신분제와 같은 사회·문화적 관습의 잔존이다. 쓰시마의 사족이 아마노에게 구 번주를 비방하는 내용의 수정을 요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항 이후 부산을 찾은 쓰시마인에게는 구 번과 번주를 정체성의 중심에 두는 사회·문화적 관습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타지역 출신과 갈등을 유발한 요소가 되었다. 다른 하나는 쓰시마 사족의 경제적 곤궁이다. 이상의 사건은 당시의 다른 신문에서 “對州窮士族”이라는 제목으로도 소개되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몰락한 쓰시마 사족들은 생계를 위해 부산에서 무역업에 종사했지만, 경험부족으로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어 “쓰시마인 중에서도 가장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⁸²⁾ 쓰시마 사족과 아마노 간에 벌어진 폭력사건은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변화와 쓰시마인의 대응이 극적으로 드러난 사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카사키는 1881년 8월 부산의 개항지 밖인 구포에서 발생한 쓰시마

『大阪日報』, 1881년 6월 26일.

78) 天野皎 앞의 책, p.10.

79) 上垣外憲一 앞의 책, p.86.

80) 『大阪日報』, 1881년 6월 26일.

81) 『大阪日報』, 1881년 6월 26일.

82) 上垣外憲一 앞의 책, pp.86-87.

인 미곡중매업자와 조선인 간에 발생한 폭력사건을 소개하며 1881년부터 1882년에 걸쳐 쓰시마인이 관계한 폭력사건이 부산에서 다발했다고 말한다. 쓰시마인이 폭력적인 양상을 보인 것은 일찍이 무역을 독점하였던 쓰시마 상인이 새롭게 진출한 오사카 상인 등에 의해 몰락하여 “개항지 바깥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폭력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⁸³⁾

개항 이후 부산에서 쓰시마인이 극복해야 할 대상은 오사카 등 대도시 출신의 유허가 만이 아니었다. 개항 이후 1879년 부산에는 콜레라가 유행하여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 가운데에서도 사망자나 환자가 발생했다.⁸⁴⁾ 때문에 부산일본거류지의 일본영사와 거류민은 1880년 6월 15일부터 위생회의를 열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⁸⁵⁾ 또한 부산의 개항 이후 조선에서 발생한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등도 쓰시마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쓰시마인은 동향을 중심으로 한 폭넓은 연대를 계획하게 된다.

4. 쓰시마인의 동향회

4.1 구성과 배경

1882년 3월 15일자 신문기사에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의 동향회 결성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당향(부산:인용자)에 거류하는 인민은 2천여 명에 이르며 그 과반수는 쓰시마인이다. 그중에는 관원도 있고 서생도 있으며 무역상과 중매상도 있다. 다른 거류인과는 달리 동향의 형제가 많고 자연스럽게 단결이 잘 된다. 이번에 淺山某의 발기로 대주대친목회(對州大親睦會)를 만들어 빈부귀천의 차이 없이 일치협동의 정신으로 장래의 목적에 대해 크게 계획하고자 한다. 본월 제1, 제2 일요일에 수제학교(修濟學校)에서 모여 논의하기로 한다.⁸⁶⁾

이상의 기사에 따르면 쓰시마인이 당시 재부일본인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주대친목회”라 명명

83) 高崎宗司 앞의 책, p.12.

84) 金貞蘭, 『開港期釜山における社会構造変化の研究 -日本の衛生行政を中心に-』, 神戸大学博士論文, 2009, p.1.

85) 金貞蘭 앞의 논문, p.15.

86) 『朝鮮新報』, 1882년 3월 15일.

된 쓰시마인의 동향회결성이 “淺山”의 주도로 진행되었던 것도 알 수 있다. 다음의 기사를 통해 쓰시마동향회의 주요인물과 단체의 결성목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같은 해 4월 5일자 기사에서는 쓰시마동향회의 회원과 회규(會規)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本회의 役員은 회장 淺山顯三, 부회장 半井泉太郎, 朝岡小十郎, 古川猪太郎, 越粕太郎, 幾度健一郎 외에 회계 3명, 간사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 모두는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⁸⁷⁾

이상에 거론된 쓰시마동향회의 회원 가운데 회장과 부회장으로 기재된 아사야마 켄조(淺山顯三)와 나카라이 이즈미타로(半井泉太郎)라는 인물에 대해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사야마는 앞서 살펴본 3월 15일자 기사에서 “대주대친목회”의 창립을 제안한 “淺山某”와 동일인물로 보인다. 아사야마는 부산의 개항을 전후한 시기 일본외무성에 관계되어 조선어 통역관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淺山顯三와 함께 淺山顯藏라는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있다.⁸⁸⁾

1873년 아사야마는 일본외무성이 쓰시마의 이즈하라에 설립한 한어학소(韓語學所)의 우수학생 10명 중 1인으로 선발되어, 부산 초량공관의 한어학소로 진학하였다.⁸⁹⁾

87) 『朝鮮新報』, 1882년 4월 5일.

88)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에서 ‘淺山顯藏’과 ‘淺山顯三’을 검색하면 각각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근대한일외교자료 등에서 조선어 통역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검색일: 2013.08.22.)

89) 아사야마가 이즈하라의 한어학소에서 학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쓰시마동향회의 회원명단에서도 확인하였던 고시카스 타로(越粕太郎)의 역할이 있었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외무성은 쓰시마가 맡아왔던 조선과의 외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지만, 유능한 통역관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때 고시카스는 동향인 요시후쿠 키하치로(吉福喜八郎)와 함께 1872년 6월 쓰시마를 찾은 일본외무성의 관리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에게 접근하여 조선어로 단순한 대화가 가능한 인원 30여 명이 있다고 전하며 쓰시마가 “신정부가 필요로 하는 한어통사(韓語通詞) 교육장”을 건립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피력하였다. 이후 도쿄로 돌아간 모리야마가 한어학소의 건립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1872년 10월 25일 쓰시마의 이즈하라에 한어학소가 건립된 것이다.

황백현, 「對馬島의 韓語學習에 관한 研究」, 동의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0.

쓰시마와 부산의 한어학소에서 조선어를 학습한 아사야마는 이후 1876년 2월 10일 강화도사건에 관한 조선-일본 간의 사건처리가 있을 당시 일본외무성의 통역관으로서 활약했고, 같은 해 5월 조선의 수신사 김기수 일행 75명이 일본을 방문한 4개월 간 수행통역관으로서도 활약했다.⁹⁰⁾ 또한 박영효의 『使和記略』에는 1882년 9월 5일 조선의 수신사 일행이 일본외무성을 방문할 당시 “三等屬傳語官 淺山顯三은 외무경(井上馨:인용자) 옆에 서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⁹¹⁾

부회장으로 선출된 나카라이는 일본의 여류문학가 히구치 이치요에게 가르침을 준 것으로 유명한 나카라이 도스이(半井桃水)와 동일인물이다. 나카라이는 1860년 쓰시마의 이즈하라에서 태어났으며 이즈미타로는 그의 아명(兒名)이다. 나카라이는 12살이 되던 1872년 의사인 아버지를 따라 부산의 초량왜관으로 건너가 조선어를 익혔다. 이후 나카라이는 도쿄와 부산을 오가는 아버지의 지인에게 맡겨져 1875년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해 도쿄로 향하게 된다. 나카라이는 도쿄에서 “영학숙(英學塾)으로는 이름이 있던 공립학사(共立學舎)”에 입학하여 새로운 학문을 접하였다.⁹²⁾ 1881년 5월 나카라이는 부산에서 『朝日新聞』의 조선통신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1882년 7월에 발생한 임오군란 등과 같은 조선의 소식을 기사로 전하며 『朝日新聞』의 부수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⁹³⁾

쓰시마동향회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된 아사야마와 나카라이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에서 거주한 경험을 토대로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 및 언론에 관계된 활동을 한 식견을 갖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부산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쓰시마인을 규합하여 동향회를 결성하고자 했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1882년 4월 5일자 『朝鮮新報』에 기재된 친목회 회규를 살펴보자.

pp.84-92.

90) 황백현 앞의 논문, pp.91-92.

91) 한국고전종합DB, 검색일: 2013년 8월 22일.

http://db.itkc.or.kr/index.jsp?bizName=MK&url=/itkcdb/text/bookList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g025&gunchalId=&NodeId=&setid=2655689.

92) 上垣外憲一 앞의 책, pp.3-14.

93) 高崎宗司 앞의 책, p.14.

동향친목회회규(同鄉親睦會會規)

제1장 [명칭] 제1조 본회는 동향친목회(同鄉親睦會)라고 칭한다.

제2장 [목적] 제2조 본회는 우리 동향(我同鄉)의 남자끼리 모여 교제를 두텁게 하고 신의를 쌓아 서로 구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전조(前條)의 취지에 따라 회원의 각금(醵金)을 저축하여 회원의 재해구제(災害救濟)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3장 [회원] 제4조 본회원의 모임은 부산항(本港)에서 기류(寄留)하는 동향인으로서 성립하지만 쓰시마 또는 다른 지방출신이 가입을 희망한다면 막지 않는다.

제5조 회원은 품행을 조심하고 경거함을 경계하여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에 대해서도 치욕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⁹⁴⁾

이상의 쓰시마동향회의 회규에 따르면 “동향친목회”가 단체의 정식명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회의 창립목적이 “신의를 쌓아 서로를 구제”함에 있으며 회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회원 간에 각금하여 도움을 주기로 정한 사실도 알 수 있다. 쓰시마인이 동향회를 결성하여 대처하고자 했던 재해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쓰시마동향회가 결성된 전후 시기 부산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부산에 닥친 불경기이다. 쓰시마동향회가 결성되기 얼마 전인 1882년 2월 25일자 신문기사에서는 당시 부산의 불경기가 심하여 조선인의 경우 가재도구, 부녀자의 장신구 등을 팔아 가까스로 생활하고 있으며, 일본인사회에서도 절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⁹⁵⁾ 부산의 불경기는 단순히 부산과 인근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조선과 일본 양국의 자연재해와 경제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원호의 연구를 통해 1876년 부산의 개항 이후 조선과 일본 간 무역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⁹⁶⁾ 조선의 쌀은 대일 수출의 주된 상품이었다. “대일 수출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는 때는 쌀 수출액이 증대할 경우”였다. 부산항을 통해 수출된 조선의 쌀은 일본의 자본주의 발전의 중심지였던 오사카-고베지방으로 집중적으로 공급되며 일본자본주의 형성과 발전에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880년대 들어 부산에서 수출되는 품목에서 쌀

94) 『朝鮮新報』, 1882년 4월 5일.

95) 「釜山通信」, 『西海新聞』 1882년 2월 25일.

96) 이하 조선-일본 간 무역에 관한 내용은 하원호의 앞의 논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어진다. 1881년 8월까지의 “조선수출미의 주된 수요지였던 오사카의 미가가 흉작으로 부산에 비해 2엔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나, 9월 이후에는 조선의 흉작으로 인해 부산의 미가가 일본보다 높아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후 1883년의 가뭄, 1884년의 흉수의 피해와 조선인 부상(富商)의 매점, 1885년 부산근방의 기근, 1886년 부산에서 수출되는 곡물의 주생산지인 전라·경상도에 심한 흉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굶어 죽는 사람과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한다.

쓰시마인이 동향회를 결성하여 대응하고자 했던 재해의 또 다른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질병이다. 재부일본인의 인구는 1879년 700명에서 1880년 2,066명으로 급증한다. 부산항을 통한 대일 수출·수입액도 각각 약 두 배 정도가 증가하였다.⁹⁷⁾ 부산을 통한 조선과 일본 간의 사람과 상품의 이동증가는 질병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정란(金貞蘭)의 연구에 따르면 1879년 “당시 일본에서도 아이치현(愛知縣)을 중심으로 콜레라가 유행하여 3월 중순부터 11월까지 환자 162,637명, 사망자 101,786명이 발생”하였는데 콜레라는 나가사키를 통해 부산항으로 전파되어 일본거류지에서도 1879년 9월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⁹⁸⁾ 쓰시마동향회의 결성 이후이기는 하지만 1885년 8월 1일 쓰시마동향회의 초대 회장을 맡기도 했던 아사야마는 부산해관의 민건호(閔建鎬)를 찾아가 콜레라 예방을 위한 피병원(避病院)의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다.⁹⁹⁾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쓰시마인의 동향회 결성배경은 부산의 개항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와 그에 동반해 발생했던 자연재해·불경기·질병 등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쓰시마동향회의 구체적 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4.2 활동

1884년 10월 3일 쓰시마동향회에서는 부산일본거류지 중앙에 자리한 용두산에 히로쿠니신사요배소(弘國神社遙拜所)를 건립한다.¹⁰⁰⁾ 히로쿠니신사요배소는 쓰시마

97) 수출(1879년: 612,174엔 - 1881년: 1,157,858엔), 수입(1879년: 566,955엔 - 1881년: 1,100,196엔). 자세한 내용은 하원호 앞의 논문 ‘<표1> 부산항 주요 수출입품 구성비’를 참고 바란다.

98) 金貞蘭 앞의 논문, p.42.

99) 閔建鎬, 『海隱日錄 I』, 부산근대역사관, 2008, pp.387-388.

100) 山川鶴市, 『龍頭山神社史料』, 龍頭山神社社務所, 1936, p.67.

초대 번주 소 요시토시(宗義智, 1568년-1615년)를 기리기 위한 시설이었다. 소 요시토시에게는 히로쿠니다이진(弘國大神)이라는 제신명(祭神名)이 부여되었는데, 그 이름은 쓰시마의 마지막 번주였던 소 시게마사(宗重正, 1847년-1902년)가 지은 것이었다.¹⁰¹⁾

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에 따르면 1890년을 전후한 시기 일본에서는 동향회와 같은 단체가 전국에 걸쳐 조직되었고, 각 동향회가 발행한 기관지에서는 당해지역의 역사상 인물, 예를 들어 구 번주와 같은 인물을 “위인”으로서 현창하며 애향심을 부여하려 했다고 한다.¹⁰²⁾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본다면 히로쿠니신사요배소는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이 구 번주에 대한 기억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장치로서 기능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다음의 사례는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쓰시마의 구 번주와 지역민의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884년 12월 한성에서는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에 의해 갑신정변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8명의 쓰시마인이 사망했다. 이에 1885년 2월 8일 쓰시마에서는 쓰시마의 15대 번주 소 요시요리(宗義和)가 쓰시마의 와타츠미신사(和多都美神社)에서 제주로 참여하여 사망한 쓰시마인 8명에 대한 위령제를 지냈다.¹⁰³⁾ 그리고 같은 해 6월 6일에는 소 요시요리가 사망한 동향자의 친족에게 편지와 함께 “香花料金”을 증여하기도 했다.¹⁰⁴⁾ 이상과 같은 쓰시마의 구 번주와 지역민 간의 유대는 부산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은 같은 해 6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소 요시요리의 위계(位階)승진 축하연회에 대한 기사문이다.

“쓰시마국 구 번주 소 요시요리의 위계가 正四位로 1급 승진됨에 따라 본향(부산항: 인용자) 재류의 쓰시마국인은 일제히 지난 25일 수제학교에 모여 축연을 집행하였다.”¹⁰⁵⁾

소 요시요리의 위계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들이 수제학교에 모여 행사를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구 번주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부산의

101) 山川鶴市 앞의 책, p.42.

102) 나리타 류이치, 한일비교문화세미나 역, 『고향이라는 이야기』,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p.81, pp.103-105.

103) 「嚴原通信」, 『鎮西日報』, 1885년 2월 21일.

104) 「香料贈與」, 『鎮西日報』, 1885년 6월 6일.

105) 「位階祝進級」, 『鎮西日報』, 1885년 6월 30일.

쓰시마인들에게 그 자리는 동향인 간 친목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쓰시마동향회가 설립한 히로쿠니신사요배소 역시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이 구 번주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유대감을 형성하는 장소로서 기능했을 것이다.

이처럼 쓰시마동향회가 구 번주를 축으로 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들의 공동성을 형성하고자 한 사실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정부가 천황을 중심으로 하여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형성하고자 했던 모습과 유사하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나리타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동향회에서 ‘고향’을 축으로 형성하고자 했던 이 공동성은 국민국가 형성의 형식과 서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동향회/동향의식/동향성은 국민국가/내셔널리즘/에스니시티(ethnicity)라는 논리적 차원과 대응하며, 시몬느 베유(Simone Weil)의 말을 빌리자면, 동향회의 ‘방정식’을 푸는 것은 국민국가의 형성을 고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¹⁰⁶⁾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나타난 동향회의 결성 및 활동을 통해 일본의 근대국민국가 형성 과정을 논할 수 있다면, 쓰시마동향회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에서 국민국가화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음의 인천일본인사회에 대한 기사는 부산에서 결성된 쓰시마의 동향회가 부산에 이어 개항된 원산과 인천에서도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조선삼항(朝鮮三港)에서 유명유실(有名有實)한 쓰시마친목회(對馬親睦會)의 정기총회가 본월 19일 사립학교(私立學校)에서 열렸다.¹⁰⁷⁾

기사에서 “조선삼항”은 부산에 이어 개항된 원산과 인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쓰시마인의 동향회는 일반적으로 친목회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에서도 쓰시마인 혹은 동향회의 모임을 수제학교에서 가졌던 것과 같이 인천에서도 학교가 쓰시마인의 모임장소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쓰시마인의 동향회 결성배경과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쓰시마인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 연대는 부산의 개항 이후 새롭게 일본

106) 나리타 류이치 앞의 책, pp.87-88.

107) 「仁川特別通信 6月 27日」, 『鎭西日報』, 1886년 7월 3일.

에서 건너온 유력가와의 갈등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조일 양국이 관계된 경제불황과 부산과 인근지역에 발생한 자연재해 및 질병은 쓰시마인이 대처해야만 했던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쓰시마인은 상호 간에 도움이 되고자 1882년 동향회를 결성한 것으로 보인다. 쓰시마동향회에서는 1884년 쓰시마의 초대번주를 모시는 히로쿠니신사요배소를 건립하였고, 이것은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 간의 유대감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장소로서 기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에게 구 번주는 여전히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였다.

5. 결론

본장에서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구조변화에 대해 쓰시마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과반수는 쓰시마인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새롭게 부산으로 진출한 일본인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쓰시마인들은 동향을 중심으로 단체를 결성하여 실력을 행사하였고, 1882년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향회가 결성되었다.

쓰시마동향회는 일본 국내에서 결성된 여타 동향회와 동일한 원리로 결성 및 유지되고 있었다. 1884년 쓰시마동향회가 구 번주를 지역의 위인으로 삼고 히로쿠니신사요배소를 설립하여 동향인의 결속을 기도했던 사실은 일본의 다른 동향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동향회의 결성이 일본의 국민국가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라고 봤을 때 쓰시마동향회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에서도 국민국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가 국민적 통합에 이르지 못하고 크게는 쓰시마인과 비쓰시마인으로 분할되어 있던 상황은 신앙생활의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제2장에서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가 신사설립을 통해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제2장 19세기 후반 재부일본인사회의 통합과 용두산신사

1. 서론

앞서 제1장에서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를 쓰시마인과 비쓰시마인으로 구분해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장에서는 개항 이후 분할되어 있던 재부일본인사회가 신사의 설립을 통해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의 신사에 관한 선행연구는 초량왜관 시기 쓰시마인이 그들의 신앙습관에 의해 세운 사당과 부산일본거류지의 설치 이후 정비를 통해 설립된 신사를 동일하게 “신사”라는 용어로 기술해왔다.¹⁰⁸⁾ “신도(神道)의 신을 모시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 또는 시설의 총칭”¹⁰⁹⁾으로서 신사라는 용어의 사용은 타당한 면이 있지만, 초량왜관의 신사와 개항 이후 부산일본거류지의 신사는 구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쓰시마인이 기복을 바라며 세운 민간신앙의 상징인 사당으로, 후자는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적 상징인 신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의상 양자를 신사라고 통칭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여 전자에서 후자로 변화해가는 과정과 그 의미를 고찰하지 못했다는 점은 선행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에서 진행된 신사사업은 초량왜관 시기 세워진 민간신앙의 사당이 국민국가 일본을 상징하는 신사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사업은 근대이행기에 진행된 것임에 따라 과거와 연속되는 부분과 단절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며, 그 변화를 담당할 주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에 대해 일본인자치기구, 쓰시마동향회, 구 번주 와 같은 주체들의 활동에 주목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2. 개항 이전 재부일본인사회와 민간신앙

부산의 일본인사회는 15세기 초 대일 외교·통상의 공간이었던 왜관이 부산포에 설치되면서 형성되었다. 표면적으로 왜관은 단순한 입항장에 지나지 않았으나 일본

108) 韓哲曦, 『日本の朝鮮支配と宗教政策』, 未來社, 1988, 菅浩二, 『日本統治下の海外神社-朝鮮神宮·台湾神社と祭神-』, 弘文堂, 2004, 青井哲人, 『植民地神社と帝国日本』, 吉川弘文館, 2005, 김승, 「개항이후 1910년대 용두산신사와 용미산신사의 구성과 변화과정」, 『지역과 역사』Vol.20, 2007.

109)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編, 『神道事典』, 弘文堂, 1999, p.3.

인들은 바람을 기다린다거나 선박을 수리한다는 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 체재 기간을 연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마침내는 집을 지어 정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곧 사실상 일본인의 거주지로 바뀌어 간다.¹¹⁰⁾

최초 부산포에는 20호에 해당하는 일본인만이 거주가 허락되었지만¹¹¹⁾, 1495년 삼포왜인들의 현황에 따르면 이것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 <표2>에 의하면 부산포의 왜인의 가구 수가 무려 107호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구의 증가 부분과 함께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사원(寺社)과 승려(僧人)의 존재다. 제포왜관의 경우 사원이 10개, 승려가 40명에 달하였고, 부산포왜관에도 사원이 4개, 승려는 7명이 확인된다. 부산포왜관의 사원에 대한 기록은 신숙주의 『해동제국기』(1471년)에 수록되어있는 「東萊富山浦」라는 지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지도에 의하면 당시 부산포에는 견강사(見江寺), 계월암(懸月菴)이라는 두 개의 사원이 있었다고 한다.¹¹²⁾ 사원과 승려의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에 반하여 신사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국내의 중세 항구거리의 예나, 일본 중세의 신불습합(神佛習合)적 신앙습속으로 보아 신사가 없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¹¹³⁾

<표2> 삼포왜관의 상황(1495년)

	부산포	염포	제포	계
戶	127가구	51가구	347가구	525가구
人口	457명	152명	2,460명	3,069명
寺社	4개	0개	10개	14개
僧人	7명	0명	40명	47명

(출전: 『성종실록』 1495년 10월 25일.)

일본에서 신불습합은 나라시대(710년-784년)에 불교경전지식의 보급을 위해 신을 불교의 호법선신(護法善神)으로 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후 헤이안시대(794년-1185년)가 되어서는 신과 불의 습합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본지수적설(本地垂迹說)¹¹⁴⁾이 등장하여 신을 보살(菩薩)과 권현(權現) 등의 호칭으로 부

110) 무라이 쇼스케, 이영 역, 『중세 왜인의 세계』, 소화, 2003, p.95.

111) 무라이 쇼스케 앞의 책, p.98.

112) 김동철, 「15세기 부산포왜관에서 한일 양국민의 교류와 생활」, 『지역과 역사』Vol.22, 2008.

113) 무라이 쇼스케 앞의 책, p.163.

르기도 하였다.¹¹⁵⁾ 신사에 부속되어 운영되는 절인 진구지(神宮寺)는 신불습합사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¹¹⁶⁾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부산포왜관의 불교사원이 신사의 기능을 겸했을 것으로 보인다. 1592년부터의 임진왜란으로 부산포왜관이 폐쇄되고, 일본의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재부일본인사회와 신앙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세키가하라(関ヶ原)전투의 승리로 새롭게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쓰시마의 소우케(宗家)를 통해 조선조정에 교섭재개를 요청한다. 이에 조선조정 역시 북쪽의 여진족과 함께 남쪽의 일본을 상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리하여 왜관은 부산지역에 다시 개설된다.

1607년 두모포(현재 부산시 동구청 중심의 1만 평으로 현재의 고관일대)에 공식적인 왜관이 다시 설치된다. 이후 비좁은 입지 등의 이유로 쓰시마 측에서 이건(移建)을 요청함에 따라 1673년 초량항(현재 부산시 중구의 용두산 주변)으로 이건이 결정된다.¹¹⁷⁾ 초량왜관을 출입하는 사람 중에는 동향사승(東向寺僧)이라는 승려도 포함되어 있었다. 왜관의 유일한 사원이었던 임제종계열의 동향사 소속의 승려였다. 부산포왜관 시절 4개였던 사원이 초량왜관 시기에는 1개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임진왜란 이후 왜관의 변화는 내부의 신사에서도 나타난다. 임진왜란 이전 왜관의 신사는 중세 일본인의 생활습속과 왜관 내 사원을 근거로 신불습합의 형태로 존재했으리라 유추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의 왜관에서는 자료를 통해 신사와 사원의 분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宗家と朝鮮』(1920년)에 따르면 초량왜관 내에는 “고토히라신사(金比羅神社), 벤자이텐(辨財天), 이나리신사(稻荷神社), 용미산(龍尾山, 현재 부산 광복동 롯데백화점 자리에 있었던 작은 산)의 가토신사(加藤神社)”¹¹⁸⁾와 같은 신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래의 왜관을 묘사한 그림지도를 통해 신사의 위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당시 신사의 명

114) 신은 불이 일본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난 모습이고 양자는 궁극적으로는 동체이며 불가분의 관계라는 설이라고 할 수 있다.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編 앞의 책, p.404.

115)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編 앞의 책, pp.24-26.

116)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編 앞의 책, p.108.

117) 『현종실록』, 1673년 10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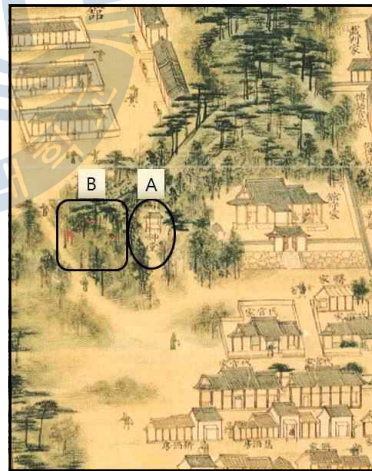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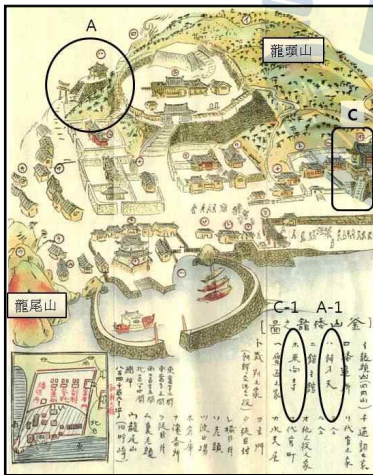
118) 高矯章之助, 『宗家と朝鮮』, 北内印刷所, 1920, p.97.

칭과 위치를 모두 표시하고 있는 지도는 없기 때문에 왜관의 상황을 묘사한 4장의 지도를 대조하며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1> 「왜관도(倭館圖)」에 표시된 'A'의 건물에는 일본어 가타카나로 “ハ”라는 표기가 되어 있다. “ハ”는 'A-1'에 표기된 설명에 “辨才天”이라고 적혀있다. 한자가 조금 다르지만 『宗家と朝鮮』에서 밝히고 있는 초량왜관의 “辨財天”이 'A'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C'에는 “ホ”라고 적혀 있으며, 'C-1'의 설명에 따르면 'C'가 동향사임을 알 수 있다. <그림2>는 1783년 변박이 그린 「왜관도(倭館圖)」이다. <그림2>의 'A'에는 “神堂”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아래 건물 하나가 그려져 있다. <그림1>의 'A'와 <그림2>의 'A'는 관수가의 왼편에 있는 같은 건물인 것으로 볼 때 변박이 “神堂”이라고 표기한 건물은 벤자이텐임을 알 수 있다. <그림2>의 'B'에는 붉은색 도리이(鳥居) 1개와 그 뒤편으로 붉은색 건물 2개가 확인된다. 붉은색 도리이가 이나리를 모시는 신사의 특징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림2>의 'B'에 표시된 건물은 이나리를 모시던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작자미상 「倭館圖」(19세기 말)

<그림2> 卞璞 「倭館圖」(178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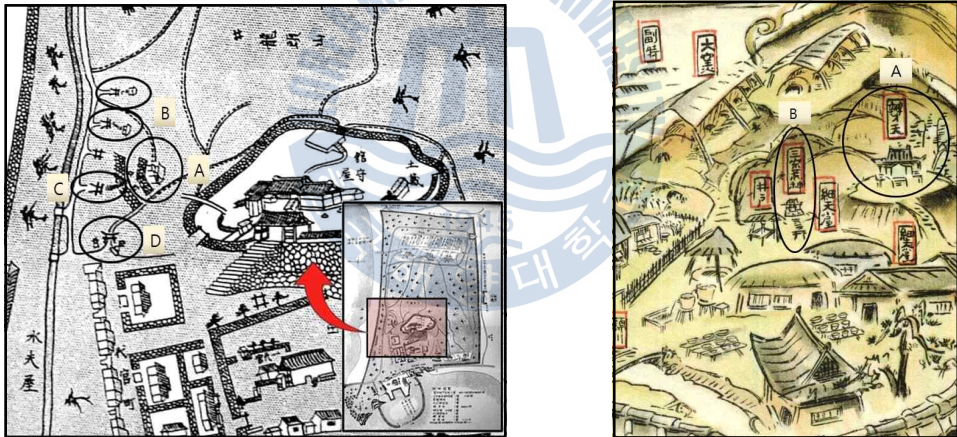
(출전 : <그림1> 김기혁, 『釜山古地圖』, 부산광역시, 2008, p.236, <그림2> 같은 책, p.226.)

<그림3>은 1678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부산화관준공도(釜山和館竣工圖)」이다. <그림1>과 <그림2>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그림3>의 'A'는 “벤자이텐”이며 'B'는 <그림2>의 'B'에 표시된 두 건물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3>의 'C'와

'D'에서는 "벤자이텐"으로 향하는 길목에 세워진 도리이가 표시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4> 「부산요도(釜山窯圖)」에서는 <그림2>와 <그림3>의 'B'에 표시된 2개의 건물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림4>의 'A'는 다른 지도에서도 확인했던 "벤자이텐"이다. <그림4>의 'B'는 <그림2>과 <그림3>의 'B'와 동일한 위치로 추정되는데, <그림4>의 'B'에서는 "삼보황신(三寶荒神)"이라고 적힌 글 아래 1개의 도리이와 건물만이 확인된다. 삼보황신은 황신이라고도 불리는데 삼보(佛·法·僧)를 수호하는 신이며 동시에 민간에서는 "불의 신이나 아궁이의 신"으로서도 모시는 "습합신(習合神)"이다.¹¹⁹⁾ 왜관에서는 1639년부터 1717년까지 가마를 두고 일본 수출용으로 차완(茶碗) 등을 만들었다. 가마에 불을 지펴 도자기를 만들었던 당시 왜관의 생활상으로 미루어 불 때 삼보황신을 모시는 신사의 존재가 어색하지 않다.

<그림3> 작자미상 「釜山和館坡工圖」(1678년) <그림4> 작자미상 「釜山窯圖」(19세기말)



(출전 : <그림3> 高矯章之助·中村金城 編, 『韓國併合史研究資料23 ①宗家と朝鮮 ②朝鮮風俗 畫報』, 龍溪書社, 1996 복각판, <그림4> 김기혁, 『釜山古地圖』, 부산광역시, 2008, p.237.)

왜관을 묘사한 4장의 지도에서 벤자이텐의 위치와 존재는 동일하게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신사에 대해서는 일관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그림2> 변박의 왜관도에서는 "이나라신사"로 추정되는 신사가 확인되었으나, <그림4> 「부산요도」에서는 동일한 위치로 추정되는 곳에 삼보황신을 모시는 신사만 표시되어

119)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編 앞의 책, p.78.

있었다. 이상의 왜관도 모두에서 고토히라신사와 가토신사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상의 과정을 통해 임진왜란 이후의 왜관에서는 신사와 사원의 분리가 명확했으며, 다양한 민간신앙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근대 이전 일본의 민중은 칠복신(七福神)¹²⁰⁾과 같이 현세의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여겨진 신과 불을 널리 신앙하였고, 또한 유행신과 같이 돌발적으로 유행하여 한 시기에 열광적으로 신앙되다 곧 잊혀져버리는 신과 불도 신앙하였다고 한다.¹²¹⁾ 초량왜관에서 확인된 벤자이텐은 대표적인 칠복신 중 하나다. 벤자이텐은 원래 지혜와 물의 여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상품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무로마치시대(1392년-1573년) 이후 재물의 수호신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졌다고 한다.¹²²⁾ 고토히라신사는 고토히라를 모시는 신사로 예부터 일본에 있던 신이었으나 근세에 들어 인도의 쿤빠라(항해의 신)와 습합되었다고 한다. 이후 해운업의 발달과 교통망의 정비 등과 함께 항해 및 어업의 수호신으로서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나리신사는 농경의 신 이나리를 모시는 신사로, 상업지역에서는 상업의 번영을 약속하는 신으로, 또 어촌에서는 어업의 신 등과 같이 지역적 특색에 따라 다양하게 신앙되었다고 한다.¹²³⁾ 가토신사는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가토 키요마사(加藤清正)를 모시는 곳으로, 왜관에 전염병이 돌자 그 원인이 왜관 맞은편에 있는 영도에 조선인이 모시는 이순신사당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그에 대응하는 신으로서 모셨다는 설이 있다.

임진왜란을 전후한 왜관의 변화를 통한 재부일본인사회와 신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재부일본인사회에 설치된 최초의 신사는 불교사원에 속해있던 것으로 보이며, 임진왜란 이후 사원으로부터 분리되어 각각 민간신앙의 장소로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왜관의 성격에 따라 재부일본인사회와 신사의 성격이 변화하였던 것과 같이 19세기 중반에 발생한 일본의 정권교체와 조선-일본 간의 관계변화는 재부일본인사회와 신사의 성격에 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120) 복을 준다고 하는 일곱신, 즉 惠比須·大黒天·毘沙門天·辨財天·福祿壽·壽老人·布袋의 총칭이다.

121) 스에키 후미이코, 백승연 역, 『일본종교사』, 논형, 2009, p.159.

122) 다카히라 나루미 외, 이만옥 역, 『여신』, 들녘, 2002, p.179.

123)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編 앞의 책, p.320, p.323.

3. 쓰시마인의 사당에서 일본인의 신사로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의 체결에 따른 부산의 개항과 이듬해 부산일본거류지의 설치로 재부일본인사회는 쓰시마인과 쓰시마 외 지역 출신의 일본인이 군집한 장소로 변해 갔다. 이하에서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가 신사의 설립을 통해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일본인자치기구’, ‘쓰시마동향회’, ‘구 번주’와 같은 각 주체들의 활동에 주목하며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일본인자치기구

부산에는 초량왜관이 존재했던 관계로 원산·인천과 달리 개항 이전부터 일본인의 자치기구가 운영되고 있었다. 김승의 연구에 의하면 왜관의 관리권한은 쓰시마에서 임명한 관수에게 있었으나, 1872년 일본외무성이 그 권한을 넘겨받은 이후에는 용번소(用番所)의 용번(用番)이 왜관의 자치를, 상법(商法)과 관련된 사항은 상회소(商會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고 한다.¹²⁴⁾ 이후 1879년 8월 13일 외무성 소속의 부산주재 관리관은 용번을 폐지하고 보장두취(保長頭取)를 두어 그들에게 거류지 자치의 대표를 맡겼으며 같은 해 9월 용번소를 폐지하고 보장두취의 업무를 위한 장소로서 보장두취역장(保長頭取役場)을 설치하였다. 초대 보장두취는 오쿠라구미(大倉組)의 지배인 다카하시 히라카쿠(高橋平格)가 선거를 통해 뽑혔다. 보장두취는 거류민의 호적관리 및 거류지의 기반시설관리에서부터 위생관리에 이르기까지 거류지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었다.¹²⁵⁾ 부산의 개항 이후 일본인자치기구와 자치대표의 변화는 <표3>을 참고 바란다.

1880년 2월 15일 보장두취역소에서는 보장집회가 열려 다음의 사항이 논의되었다.

제생의원 신축구내의 오른쪽에 있는 아사히나신사(朝比奈神社)를 벤텐샤(辨天社)로 합사(合祭)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관청의 물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없습니다. 다만 이나라신사도 원래의 이나라사(본사:원문)로 합사하기를 희망합니다.

124) 용번은 ‘御用番人’을 줄인 말로 초량왜관 시기부터 쓰시마의 번주에게 고용된 상인의 대표자를 일컫는 명칭이었다. 이하 재부산일본인사회의 자치기구에 관한 내용은 김승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김승, 「개항 이후 부산의 일본거류지 사회와 일본인 자치기구의 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Vol.15, 2012.

125) 1879년 8월 21일 보장선거법에 따라 21명의 보장이 선임되었다. 보장은 5-6호를 1조로 하여 각조마다 1명을 두었다. 김승 앞의 논문.

다. 이나라사가 병원의 지계(地界)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장두취역소보장집회결의록(保長頭取役所保長集會決議錄)「議第一號」¹²⁶⁾

<표3> 부산일본인자치기구 및 자치대표의 변화(1876년-1910년)

年次	公署名	職名	姓名
1876	會議所	用番	眞島仙藏
1878	上同	上同	阿比留護助
1879	保長頭取役所	保長頭取	吉副喜八郎
1880	上同	上同	阿比留護助
1881	總代役所	保長總代	上同
1882	上同	居留人民總代	上同
1894	上同	居留民總代	金井俊行
1896	上同	上同	佐原純一
1899	上同	上同	太田秀次郎
1901	居留地役所	居留民長	上同
1904	居留民役所	上同	石原半右衛門
1906	釜山居留民團役所	釜山居留民團民長	上同
1910	上同	上同	栗屋端一

(출전: 大曲美太郎, 김의환 역, 『釜山の古蹟과 遺物』, 아성출판사, 1969, p.75.)

거류지 내 제생의원의 신축 이전과 관련하여 신사의 합사가 논의된 것을 알 수 있다. 보장집회에서 신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관청”의 문익에 답을 하기 위함이었다. 아사히나신사와 이나라신사를 주변의 신사로 합사시키려는 관청의 발상은 1876년 12월 일본정부가 “평소 관리자가 없이 산야와 길가에 산재한 사당이나 불당을 가장 가까운 절이나 신사에 합사”하도록 명령했던 것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¹²⁷⁾ 여기서 관청이란 관리관청을 말하며, 1880년 4월 일본영사관의 설치 이전 재부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의 관리책임을 맡았던 기관이다.

제생의원은 1877년 2월 부산일본거류지 내 옛 관수가 앞 일대관가(一代官家) 건물자리에 세워진 근대의료시설이다.¹²⁸⁾ 그러나 그 건물이 당초 의료기관으로서 지어진 것이 아니었고 또 일본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조선인도 치료를 받거나 의술을 배우러 의원을 찾았기 때문에 1879년 원장 야노 요시아키라(矢野義徹)는 일본정부에 의원의 신축을 요청하였다. 제생의원의 정확한 신축 이전 시기는 알 수 없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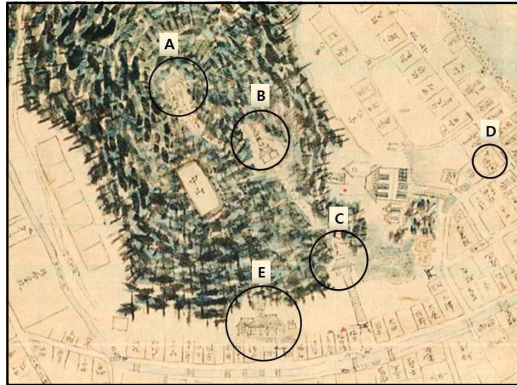
126) 山川鶴市, 『龍頭山神社史料』, 龍頭山神社社務所, 1936, pp.6-7.

127) 야스마루 요시오, 박진우 역, 『근대 천황상의 형성』, 논형, 2008, p.225.

128) 이하 제생의원의 설립 시기 및 이전에 관한 내용은 서용태, 「1877년 釜山 濟生醫院의 설립과 그 의의」, 『지역과 역사』Vol.28, 2011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880년 2월 20일 신축 예정지의 기초공사 입찰이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1880년 하반기에 “茶碗窯址”로 이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림5> 작자미상 「浦山港見取圖」(1881년)



(출전: 김기혁, 『釜山古地圖』, 부산광역시, 2008, p.239.)

<그림5> 「포산항견취도(浦山港見取圖)」는 1881년 제작된 지도로 제생의원이 처음 세워졌던 장소 D와 신축·이전된 장소 E가 확인된다. D에는 “旧病院”이라는 글자가 적혀있으며, E에는 옛 “茶碗窯址”에 신축된 제생의원이 그려져 있다. <그림5>에 표시된 A, B, C는 각각 용두산일대에 세워진 신사를 표시한 것이다. A에는 “稻荷社”, B에는 “金比羅社”, C에는 “弁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C는 앞서 <그림 1>과 <그림 4>를 통해 확인했던 벤자이텐이며, 보장집회에서 벤텐샤라고 불린 곳이다. 이전의 왜관지도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이나리신사와 고토히라신사가 <그림 5>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림 5>의 E는 <그림 2>와 <그림 4>의 B에 해당하는 곳으로 정확한 명칭은 알 수 없지만 신사로 보이는 건물이 그려져 있던 장소였다. 그 자리에 신축·이전된 제생의원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보장집회에서 논의된 신사의 합사·이전이 실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제생의원의 신축과 관계되어 논의되기 시작한 거류지의 신사는 같은 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재부일본인사회의 상징으로서 정비되기 시작한다. 9월 16일 보장주취 대리 아히류 호조(阿比留護助)는 거류지 내 신사의 상태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영사¹²⁹⁾에게 보고하였다. 부산의 개항을 전후하여 일본인자치기구가 변화를 거듭해온

129) 1880년 4월 부산일본거류지에 일본영사관이 설치됨에 따라 부산관리관청이 폐지되고, 부산일본인자치기구는 영사의 관리를 받게 된다.

것과 같이 재부일본인의 관리기관 또한 변화해 갔다. 아래 <표4>를 참고 바란다.

<표4> 부산일본인관리기관 및 관리관의 변화(1876년-1904년)

年次	官廳名	官名	氏名
1876	管理官廳	管理官	近藤眞鋤
1878	上同	上同	山之成祐長
上同	上同	上同	副田節
1879	上同	上同	前田獻吉
1880	領事館	領事	近藤眞鋤
1882	上同	上同	副田節
上同	總領事館	總領事	前田獻吉
1887	領事館	領事	室田義文
1890	上同	上同	立石革
1892	總領事館	總領事	室田義文
1895	領事館	1等領事	加藤増雄
1896	上同	上同	秋月左都夫
上同	上同	上同	伊集院彦吉
1899	上同	領事	能勢辰五郎
1901	上同	上同	幣原喜重郎
1904	上同	上同	有吉明

(출전: 大曲美太郎, 김익환 역, 『釜山の古蹟과 遺物』, 아성출판사, 1969, p.71.)

다음은 아히류가 영사 곤도 신스케(近藤眞鋤)에게 보고한 거류지 신사의 현황과 관리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 ① 거류지 각 신사에는 그 직(職)을 유지하는 자가 없고 겨우 청소만 담당하는 자가 있다. 신사에는 풀이 무성하고 불결함이 매우 심하고 현와(軒瓦), 사표(社表) 등이 파손되어 마치 폐사(廢社)와 다를 것 없는 참연(慘然)한 상태다.
- ② 신사의 그러한 모습은 거류지 일반의 모습과 관계되어 있어 금번 보장집회에서는 거류인 가운데 쓰시마 이즈하라(嚴原)의 전 신직(元神職) 나가세 에이(永瀨永)에게 각 신사 모두를 담임시키고 제전 및 기타 청소 등의 비용으로 월급 3엔을 교부한다. 수선비는 필요할 때 신앙동지자에게 기부를 협의한다.
- ③ (관리자에게:인용자) 훼손이 심한 벤텐사의 서쪽에 방 한 칸(一室)을 제공하여 그곳의 청소 등의 관리를 맡기고자 한다.¹³⁰⁾

130) 山川鶴市 앞의 책, p.7.

아히류의 보고는 이때부터 신사가 거류지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준다. 일본인자치기구의 대표를 맡고 있던 아히류의 거류지 신사에 대한 인식은 곧 일본인자치기구가 신사에 대해 가진 인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아히류는 보장집회를 통해 폐사와 같은 상태의 신사를 관리해 줄 전문인으로 쓰시마의 신직 나가세를 초빙했는데, 이것은 당시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중에는 신사의 제전이나 관리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1881년 1월 부산일본거류지 영사 곤도는 보장총대선거규칙을 제정하여 종래 관선이었던 보장두취를 민선으로 바꾸고 명칭 또한 보장총대(保長總代)로 개칭하였다.¹³¹⁾ 또한 영사는 “거류지편성규칙”을 정해 보장두취역소를 총대역소로 변경하고 총대로 하여금 “戶籍, 土木, 衛生, 教育, 神社 기타 전반의 자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대의기관을 두어서 공공사업 및 그 경비의 수지방법을 의결”하도록 하였다.¹³²⁾ 1881년 4월 22일 총대역소에서는 거류지회의가 열려 거류지의 신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안건이 결정되었다.

제2장

제1조 공유신사(共有神社) 2개소의 祭典 및 청소인비로 1개월에 금3엔으로 정해 담당인에게 전함. 단, 담당인은 총대의 예정에 맡김.

제2조 공유 각 신사의 영선은 그 때마다 담당인의 견적서를 총대에게 신청하여, 신앙자의 기부금으로 그것을 지변하는 것으로 함.

(1881년 총대역소 거류지회의안 同 결산보고서 ‘甲號’)¹³³⁾

총대역소에서 진행된 거류지회의에서는 거류지의 신사 2개소를 “공유신사”라고 칭하며 그 담당자를 정해 월 3엔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각 신사의 수선은 신사의 담당자가 총대에게 제출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거류지 내 신앙자의 기부금을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앞서 보장두취대리를 맡고 있던 아히류가 영사에게 허가를 구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상에서는 공유신사 2개소의 명칭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다.

1881년 6월 15일 신직 나가세는 총대 아히류에게 “當港(부산항:인용자)의 우지가 미(氏神)와도 같은” 벤텐샤가 점점 파손되고 있으니 장마가 오기 전 지붕주변 등을

131) 김승 앞의 논문.

132) 釜山甲寅會, 『日鮮通交史』, 朝鮮時報社, 1916, p.113.

133) 山川鵜市 앞의 책, p.8.

수선할 것과 동사(同社)의 서쪽에 신찬소(神饌殿)를 건립할 것을 요청한다. 같은 해 11월 나가세는 앞서 제시된 벤텐샤에 관한 사항과 함께 노후로 파손이 심한 “고토히라신사배전(拜殿)”의 개건을 요청했다.¹³⁴⁾ 이상 신직 나가세의 거류지 신사에 대한 요청으로 미루어 볼 때 1881년 4월 거류지회의에서 언급된 공유신사 2개소는 벤텐샤와 고토히라신사를 지칭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후 거류지 신사에 대한 사업은 두 신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1882년 1월 30일 아히류는 고토히라신사의 개건과 벤텐샤의 수선에 관한 비용마련과 조영(造營)의 크고 작음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위원의 선발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아히류는 아래의 ‘고토히라신사사개건 및 벤텐샤수선(金刀比羅神社改建並辨天社修繕)에 관한 특지연중대리위원 권한 및 선거규칙(特志連中代理委員權限並選舉規則)’에 대한 사안을 표결에 붙여 과반수의 동의를 있을 시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1장 위원권한

제1조 신사 영선비는 이전 거류지회에서 결의한 대로 신앙자의 기부금으로 지변하는 것으로 한다. 특히 이번의 신축은 첫 사업이기 때문에 특지인원(特志人員) 가운데에서 대리위원을 선거하고 아래 조항의 권한을 위임함.

제2조 위원은 공사 일체의 사건 및 그 경비조사에 이르기까지 총대역소와 협의하고, 특지인원 모두를 대신하여 결정하는 권리가 있음.

제3조 위원은 항상 사무를 취급할 때 전조의 권한 안의 사건에 대해 그 이해득실을 토론하고 심의한 것은 결의의 항목으로써 총대역소로 인계해야만 함.

단 그 사항에 따라서는 위원이 결의를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인가를 얻지 않았다면 곧바로 착수하지 않음.

제2장

제4조 위원은 특지인원에서 5명을 선거함.

제5조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특지인원 중 금3엔 이상의 기부금을 낸, 25세 이상의 남자에 한 함.

제6조 위원의 선거는 총대역소에서 취급하고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동수가 나올 경우 연장자로 정하고, 나이가 같을 경우 제비뽑기로 정함. 만약 당선인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임할 경우 그 다음으로 득표한 사람에게 넘어감.

제7조 위원의 임기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로 정하고, 그 안에 귀국하거나 병 그리고

134) 山川鶴市 앞의 책, pp.9-10.

기타 어쩔 수 없이 사고가 있어 사직하는 때에는 다시 일반의 투표를
요하지 않고, 처음(初順)의 투표부에서 다음 순서인 자를 대리위원으로
선임해야 함.¹³⁵⁾

이상의 대리위원 선거규칙 및 그 권한을 살펴보면 총 5명의 위원을 선발하며, 3
엔 이상의 기부금을 낸 25세 이상의 남자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리위원은 거류지 내 신사의 신축에 뜻이 있는 모든 일본인을 대신하여
사안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나, 이것은 총대역소와의 협의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1882년 2월 1일 「대리위원당선통지(代理委員當選者通知)」에 따르면 미쓰비시회사
(三菱會社), 오후라상사(大倉商社), 교도상회(協同商會), 스미토모지점(住友支店), 제
일국립은행(第一國立銀行) 등 3엔 이상의 기부금을 낸 총 50명의 개인 및 단체대
표가 입후보를 하였고, 이중 20표 이상 득표한 5명이 당선되었다.¹³⁶⁾ 당선자 및
득표수는 <표5>를 참고 바란다.

20표 이상을 득표하여 당선된 5명의 출신지를 조사해본 결과 그 가운데 3명이 쓰
시마출신임을 알 수 있었다. 도쿄에 본점을 둔 제일국립은행·오후라구미·미쓰비시
회사와 오사카에 본점을 둔 스미토모지점·호리구치구미(堀口組), 고베에 본점을 둔
이케다구미(池田組) 등과 같은 유력자본 대부분이 대리위원으로 당선되지 못한 사
실은 주목할 만하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쿠다 조베에(福田增兵衛)는 본래 쓰시
마-나가사키 간 무역에 종사했던 무역상이었으나,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산의
개항 이전인 1871년부터 조선과의 무역에 참가하였다.¹³⁷⁾ 같은 해 조슈(長州)의 구
리야 타스케(栗屋多助)가 기도(木戶孝允)참의의 명을 받고 쓰시마로 와서 물품을
부산으로 수송하려고 할 때 후쿠다는 자신의 배인 곤빠라마루(金比羅丸)를 이용해
도왔고, 별도로 작은 배를 준비해 자신도 부산으로 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후쿠
다는 1877년 부산에 영주하며 청각채를 매점하여 거부를 쌓았다고 한다. 또 다른
쓰시마출신 대리위원인 고리 긴자부로(郡金三郎)는 “부산의 3대 성공자”중 한 사람
인 오이케 츠스케(大池忠助)의 형으로 1877년 부산으로 건너와 고리 상점(郡商店)
을 열었고, 1880년 번성하던 부산의 사업을 동생에게 양도하고 인천으로 진출하였
다. 고리는 인천에서 상업회의소, 거류민회 등의 의원으로 매번 선출되었으며,

135) 山川鶴市 앞의 책, pp.11-13.

136) 山川鶴市 앞의 책, pp.13-15.

137) 후쿠다 조베에와 고리 긴자부로에 관해서는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新書, 2002, p.9, p.13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때에는 일본인들의 피난을 도왔다고 한다.¹³⁸⁾

<표5> '金刀比羅神社改建 및 辨天社修繕' 대리위원 선거참가자 및 득표현황(1882년)

(※당선자는 20표 이상 득표자)

順位	姓名/商號	得票	出身地
1	福田増兵衛	35	對馬
2	横松清助	29	-
3	齊藤萬次郎	29	-
4	保家貞八	28	對馬
5	郡金三郎	20	對馬
6	龜谷造次郎	19	-
7	協同社	13	-
8	松本清太郎	12	-
9	第一國立銀行	10	-
10	本馬宇三郎	10	-
11	三菱會社	9	-
12	堀口組	7	-
13	大倉組	6	-
14	溝口慶治	6	-
15	佐の但嘉	6	-
16	平山善助	5	-
17	富田重五郎	5	-
18	河野助次郎	5	-
19	桑田伴藏	4	-
20	早田淺之助	4	-
21	木村, 山田, 三村	3	-

(출전: 山川鶴市, 『龍頭山神社史料』, 龍頭山神社社務所, 1936, pp.14-15, 中田孝之介,

『在韓人士名鑑』, 木浦新報社, 1905, p.32.)

1882년 3월 '고토히라신사 개건기부금 수지정산표(金刀毘羅神社改建寄附金收支精算表)'에 따르면 고토히라신사의 개건에는 모두 519엔 19센(錢)이 사용되었는데, 이 가운데 336엔은 오쿠라상회 이하 75명으로부터 모은 기부금으로 충당된 것이었다.¹³⁹⁾ 이와 같이 고토히라신사에 관한 사업이 지체 없이 진행되었던 것에 반해 벤텐샤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887년 2월 9일 신직 나가세가 불

138) 加瀬和三郎,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편, 『13-1譯註 仁川開港25年史』, 인천광역시, 2008, p.182와 信夫淳平,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편, 『12-1譯註 仁川開港25年史』, 인천광역시, 2008, p.135에서 정리한 것이다.

139) 山川鶴市 앞의 책, p.16.

경기¹⁴⁰)로 중지되어버린 벤텐샤의 수선을 재차 총대 아히류에게 건의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¹) 다음은 나가세가 제출한 ‘벤텐샤 등 수선견적서’의 내용이다.

견적서

— 금94엔 51센 : 벤텐샤의 수선 및 사무소(社務所) 건축
내역 : 금45엔 10센(벤텐샤수선), 금49엔 41센(사무소건축)¹⁴²⁾

견적서에서 확인되는 사무소는 앞서 벤텐샤의 서쪽에 마련하려던 공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사무소는 “신사의 전반적인 사무를 취급하는 장소로 신찰(神札) 등의 수여와 기도의 접수를 받는 장소도 겸하는 곳”이다. 이러한 업무는 원래 “신직의 집 등에서 이루어졌으나, 메이지 시기 이후부터는 신사가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공적사무로 취급되어 사무소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또한 “1897년의 사격승격(社格昇格) 내규에서도 사무소는 촌사(村社)에 이르기까지 신사의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 규정”된다.¹⁴³⁾ 사무소의 건축은 초량왜관 시기 쓰시마인에 의해 세워졌던 사당이 근대적 신사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1887년 4월 18일 아히류는 나가세의 건의사항을 당시 영사 무로다 요시아야(室田義文)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일본인자치기구에 의해 정비가 완료된 고토히라신사에서는 메이지천황의 은혼식을 기념하는 의례가 집행되었다. 메이지천황과 황후의 결혼 25주년 기념축전은 일본의 관료들이 근대적 군주를 만들기 위해 서양 왕실의 관행을 조사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행사였다. 1893년 외무성은 유럽 주재 공사들을 통해 유럽 궁정의 금혼식과 은혼식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1894년 1월 26일 은혼식의 일정을 3월 9일로 한다는 공식발표가 났다. 행사당일인 3월 9일에는 헌법 발표식 때 처럼 이세신궁(伊勢神宮)과 모든 국가의 신사, 진무(神武)천황릉에서 동시에 의식이 거행되었다고 한다.¹⁴⁴⁾

140) 벤텐샤의 수선에 차질을 초래한 불경기는 1880년 이후 조선에서 발생한 극심한 흉작으로 인한 쌀값의 등귀와 함께 임오군란(1882년)·갑신정변(1884년)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불경기는 조선과의 무역에서 쌀에 대한 의존도가 높던 거류지 내 일본 거상의 폐점속출로 이어졌다. 하원호, 「개항 후 부산의 대외무역과 유통구조의 변동」, 『史林』Vol.25, 2006.

141) 山川鶴市 앞의 책, p.17.

142) 山川鶴市 앞의 책, pp.18-19.

143)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編 앞의 책, p.180.

같은 날 부산에서도 “官民企圖”로 고토히라신사에서 메이지천황의 은혼식을 축하하는 의례가 진행되었으며,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토히라신사의 “제신을 부산 거류지의 우부스나카미(産土神)”로 칭해 모시기로 결정되었다. 의례의 진행은 영사 무로다의 촉탁을 받은 권소교정(權少敎正) 야바시 칸이치로(矢橋寛一郎)가 맡았고, 영사 이하 문무관리와 유지자 등이 참석하였다.¹⁴⁵⁾ 부산일본거류지 내 신사에 관한 업무는 쓰시마에서 초빙된 신직 나가세가 맡아왔으나, 천황의 은혼식 기념의례에는 영사의 촉탁을 받은 야바시가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야바시는 1893년 9월부터(1903년 3월까지) 재부일본인자치기구의 의결기구였던 거류지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었으며, 또한 신슈교(神習敎)¹⁴⁶⁾에 소속된 교도직으로서도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⁴⁷⁾ 교도직은 1872년 3월 신설된 교부성(敎部省)¹⁴⁸⁾에서 기독교의 확산을 막고 국민을 교화하기 위해 만든 신불합동 선교직을 말한다. 교도직에는 “대교정(大敎正) 이하 권훈도(權訓導)까지 14계급이 정해져 있었으며 신도가, 신관, 승려 등이 임명되었다.”¹⁴⁹⁾ 시즈오카현(靜岡縣)에서는 1873년 8월 하순부터 12월 초까지 교도직의 설교에 1,000명이 넘는 청중이 참가하는 일도 적지 않았는데, 이렇게 “방대한 청중이 있었던 것은 현청(縣廳)의 지령으로 호장(戶長) 등이 마을마다 동원했기 때문이었다.”¹⁵⁰⁾ 이러한 예로 미루어 볼 때 메이지천황의 은혼식 당일 야바시가 영사의 촉탁을 받아 고토히라신사에서 의례를 집행하고, 신사의 제신을 우부스나카미로 정한 것은 재부일본인의 교화가 목적이었을 것

144) 다카시 후지타니, 『화려한 군주』, 이산, 2003, pp.152-155.

145) 山川鶴市 앞의 책, p.39.

146) 신슈교(神習敎)는 초대관장이었던 요시무라 마사모치(芳村正乘)가 1881년 도쿄의 간다(神田)에 설립한 신토신슈교교회(神道神習敎敎會)를 모태로 하며, 1882년 신토신슈교(神道神習敎)로 정식독립하면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시무라는 도쿠가와시대 말기부터 존왕양이 사상을 주장했던 인물로, 메이지유신 이후에는 메이지정부의 진기칸(神祇官)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147) 釜山甲寅會 앞의 책, p.137, 山川鶴市 앞의 책, p.76.

148) 신사와 불교 각 종파, 민간종교를 관할하며 국민의 교화를 중심업무로 하던 일본정부부서로 1877년 1월에 폐지되고, 관련업무는 내무성의 사사국(社寺局)으로 이관된다. 교도직은 학교제도의 정비로 교화업무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의 이유로 1884년 폐지되었다.

149) 大敎正, 權大敎正, 中敎正, 權中敎正, 少敎正, 權少敎正, 大講義, 權大講義, 中講義, 權中講義, 少講義, 權少講義, 訓導, 權訓導와 같은 14계급이 있었으며 이중 權少敎正 이상은 칙주임관(勅奏任官) 대우였다.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編 앞의 책, p.142.

150) 安丸良夫, 『神々の明治維新』, 岩波新書, 1979, p.185.

으로 짐작할 수 있다. 우부스나카미란 당해지역의 수호신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돈벌이를 목적으로 부산을 찾은 대다수의 일본인들을 당해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영사와 야바시가 택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메이지천황의 은혼식을 축하하는 기념의례가 같은 날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에서도 진행된 사실은 근대국민국가의 수립을 위해 창출된 일본의 국가의례가 해외 일본인사회와도 연동되어 기능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그런데 일본의 수도와 재부일본인사회에서 동시에 진행된 국가적 행사는 메이지천황의 은혼식이 처음은 아니었다. 1885년 5월에도 도쿄의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와 부산의 용두산에서 동시에 야스쿠니제(靖國祭)가 진행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5월 5일 도쿄의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에서는 갑신정변으로 사망한 일본인을 위한 초혼제(招魂祭)가 실시되었고, 다음 날인 6일 합사제(合祀祭)가 실시되어 사망자 6명의 혼령이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¹⁵¹⁾

<표6> 1885년 5월 6일 靖國神社 합사자 명단(6人)

이름	출신지	직업
磯林眞三	土佐國 土佐郡	歩兵大尉
飯島碩太郎	尾張國 愛知郡	歩兵曹長
藤代市十郎	陸中國 東磐井郡	歩兵1等卒
目黒多利吉	磐城國 伊具郡	歩兵1等卒
赤羽平太郎	東京芝區	語學生
上野茂一郎	對馬國 下縣郡	語學生

(출전: 「招魂社合祀」, 『鎮西日報』, 1885년 5월 7일.)

같은 해 5월 6일 부산의 용두산에서도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야스쿠니제가 진행되었다.

지난 6일은 마에다(前田) 총영사, 와타나베(渡邊) 육군중장, 1등 군의관 기타 유지자의 발기로 한성조난사(韓城遭難士,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말함(인용자))의 제전과 야스쿠니제(靖國祭)가 용두산에서 집행되었다. 유지자에 의해 2일 간 스모(角力) 봉납 등이 열려 매우 성대한 제전이 되었다. 그런데 당시 류쥬함(龍驤艦)이 정박하고 있어 승조원 일동이 참배하려고 했지만 하필이면 때가 나쁘게 홍역(麻疹:인용자)이 유행하여 사관 몇 명(士官數名)이 참배해 제문 등을 낭독하고, 아래의 노래 두 곡을 묘 앞에(墓前)에

151) 「招魂社合祀」, 『鎮西日報』, 1885년 5월 7일.

바쳤다.……152)

임오군란(1882년)과 갑신정변(1884년) 당시 사망한 일본인에 대한 위령제가 도쿄의 야스쿠니신사와 함께 부산의 용두산에서도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에다 총영사 외 일본의 관리들이 부산의 용두산에서 위령제를 집행한 것은 용두산 일대에 고토히라신사와 벤텐샤 같은 신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당시 부산 이외의 일본인사회에는 위령제를 지낼 마땅한 장소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⁵³⁾

다카시에 따르면 메이지정부의 수립 초기부터 일본의 지배층은 국가의례의 실행을 통해 민중을 흡수하려고 했다. 발명된 국가의례를 일본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만 개의 신사에서 진행되도록 하여 “수평적으로 계층화된 신분과 수직적으로 분리된 지역들로 분절화된 이 영토(일본:인용자)에 하나의 통치자, 하나의 신성한 정통 질서, 그리고 하나의 지배적인 기억이 존재하기를 염원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전국의 신사에서 행해지는 의례의 표준지침을 정하여, “지역의례에 제국적·국가적 의미를 부여했다.”¹⁵⁴⁾ 일본의 수도 도쿄와 재부일본인사회에서 진행된 야스쿠니제와 메이지천황의 은혼식은 일본의 민중을 통합하고자 마련된 국가적 의례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재부일본인사회와 같은 해외일본인사회의 국민국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자치기구의 활동은 전문인(신직과 교도직)의 협조 속에 초량왜관 시기의 사당이 부산일본거류지와 일본을 상징하는 신사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쓰시마인은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번을 중심으로 하는 전근대적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양식은 다음에서 살펴볼 신앙생활의 측면에서도 확인된다.

152) 「招魂祭」, 『鎮西日報』, 1885년 5월 15일.

153) 부산에 이어 1881년 개항된 원산에서는 그 이듬해인 1882년 5월 일본 유지자들에 의해 두동산(頭洞山)에 소사(小祠)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조선인들이 여름이 되자 그곳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 침상으로 사용하거나 그곳의 사이센(賽錢)을 가지고 가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원산일본거류민들은 소사를 일본거류민사무실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그 후 원산에 일정한 규모를 갖춘 신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16년이 지난 후인 1898년이 되어서였다. 山口公一, 「『韓國併合』以前における在朝日本人創建神社の性格について」, 『日韓相互認識』第2号, 2009. 또한 원산에 이어 개항된 인천에서는 1889년 3월에서야 “인천대신궁”의 설립이 진행되었다. 仁川府, 『仁川府史』, 1933, p.1347.

154) 다카시 후지타니 앞의 책, pp.33-34.

3.2 쓰시마동향회

부산의 일본인자치기구가 주도하던 신사정비사업이 불경기로 차질을 빚고 있던 무렵인 1884년 10월 3일 쓰시마동향회는 영사관의 허락을 얻어, 부산일본거류지 중앙에 자리한 용두산에 구 번주 를 기리기 위한 시설로 히로쿠니신사요배소(弘國神社遙拜所)를 건립하였다.¹⁵⁵⁾ 히로쿠니신사요배소는 쓰시마의 초대 번주 소 요시 토시(宗義智)를 상징하는 히로쿠니다이진(弘國大神)을 제신으로 하는 시설이었다.¹⁵⁶⁾ 이것은 재부일본인사회의 일본인자치기구와 쓰시마동향회가 지역사회의 신앙에 관해 각자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히로쿠니신사요배소의 설립이 가지는 의미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라는 일본의 근대 신사사(神社史)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에 따르면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는 세상에 원한을 남기고 죽었다고 추정되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재앙신 유형과 생전에 위업을 달성한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현창신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창신 유형의 특징은 “위업을 달성한 인물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 신이라는 관념이나 신사라는 장치를 이용한다는 점”에 있는데, 예를 들어 “영주의 치세를 찬양하고자 하는 백성들은 그 초대 영주를 신으로 모심으로써 현창하고 기억”하고자 했다.¹⁵⁷⁾ 현창신 유형의 신사는 근대에 들어 급증하였는데 메이지신궁(明治神宮), 미나토가와신사(湊川神社)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고마쓰의 분류에 따른다면 히로쿠니신사요배소는 현창신 유형의 신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도 폐번치현(1871년) 이후 구 번주 를 모시는 신사가 설립되었다. 신분제의 폐지와 함께 구 번주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해체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신사에 구 번주를 모심으로써 지역 내 사족 간 관계 유지 및 결합을 유도한 것이다.¹⁵⁸⁾ 이러한 신사의 예로는 우에스기신사(上杉神社, 1882년)와 오야마신사(尾山神社, 1873)가 있다. 우에스기신사에는 우에스기 하루노리(上杉治憲, 요네자와번(米澤藩)의 9대 번주)와 우에스기 켄신(上杉謙信, 16세기 전국시대 무사)이 모셔졌으며, 오야마신사에는 카가번(加賀藩)의 초대 번주 마에다 토시이에(前田利家)가 제신으로 모셔졌다. 이들 신사가 근대화되어 가는 일본의 지역사회 속에서 구 번주를

155) 山川鶴市 앞의 책, p.67.

156) 山川鶴市 앞의 책, p.42.

157) 고마쓰 가즈히코, 김용의 외 역, 『일본인은 어떻게 신이 되는가』, 민속원, 2005, pp.6-7.

158) 羽賀祥二, 『明治維新と宗教』, 筑摩書房, 1994, p.336.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공동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¹⁵⁹⁾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히로쿠니신사요배소 역시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들의 공동성 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기능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히로쿠니신사요배소에서는 히로쿠니다이진을 현창하는 제전이 집행되었는데, 이 행사에는 쓰시마인 외 일본의 군인을 비롯한 관리 등도 참가하였다. 1885년 12월 13일자 『鎮西日報』의 기사에서는 용두산에서 진행된 히로쿠니다이진의 제전을 잘 묘사하고 있다.

용두산 위에 모셔진 소 요시토시(宗義智) 공의 증호(贈號) 히로쿠니다이메이진(弘國大明神)의 제전이 지난 3일 재류쓰시마인(在留對州人) 가운데 유지자의 발기로 거행되었다. 그날 미우라(三浦)육군중위 외 일본관리, 상인 등 무려 천여 명(千有餘人)이 연신 잇따라 산 정상으로 참배하였다. 발기자인 쓰시마동향회원(對州親睦會員)은 위의 참배인 중 미우라 중위를 비롯해 관리, 상인 200여 명을 배소(拜所) 근처로 불러 식사를 대접했다.¹⁶⁰⁾

제전 당일 참배한 천여 명(千有餘人)은 당시 재부일본인의 구성으로 미루어 볼 때 대부분이 쓰시마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미우라 육군중위 외 일본관리가 제전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정부는 외무성을 통해 쓰시마로부터 대조선 외교권을 회수하려 했다. 쓰시마를 새로운 조일관계의 저해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쓰시마인 역시 일본정부에 비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미우라중위와 기타 일본관리들의 제전참가는 일본정부가 쓰시마와 우호관계를 형성하여 재부일본인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히로쿠니다이진에 대한 제전은 1887년 10월 3일에도 쓰시마동향회의 주도로 진행되었다.¹⁶¹⁾ 그러나 히로쿠니다이진에 대한 제전은 청일전쟁 이후인 1896년 4월 1일을 기점으로 더 이상 히로쿠니신사요배소에서 개최되지 못하게 된다. 당일 히로쿠니다이진이 재부일본인사회를 대표하는 신사로 거듭나고 있던 고토히라신사로 합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개항 이후부터 1896년까지는 재부일본인사회에서 신사가 국민적 통합의 상징으로 기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159) 羽賀祥二 앞의 책, p.345.

160) 「祭典」, 『鎮西日報』, 1885년 12월 13일.

161) 「弘國神社祭典」, 『鎮西日報』, 1887년 10월 11일.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쓰시마동향회의 히로쿠니신사요배소 설립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해보았다. 히로쿠니신사요배소는 쓰시마의 초대 번주를 모신 시설이었다는 점에서 현창신 유형의 신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일본인자치기구가 재부일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사의 정비 및 제전을 집행했다면, 쓰시마동향회는 쓰시마인의 결집을 위한 활동을 주도했다. 이것은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가 신사를 통한 국민적 통합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쓰시마 측과 비쓰시마 측으로 나뉘어 있던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구조는 청일전쟁 이후 변화를 맞게 된다.

3.3 용두산신사의 설립과 구 번주

청일전쟁(1894년-1895년) 이후인 1896년 4월 1일 히로쿠니신사요배소의 제신인 히로쿠니다이진이 고토히라신사로 합사되었다. 이날의 행사에는 신직 나가세와 거류민총대 아히류 그리고 쓰시마동향회의 회장 고토 쇼이치로(古藤勝一郎)가 참석했다.¹⁶²⁾ 히로쿠니다이진의 합사가 쓰시마동향회의 회장과 일본인자치기구의 대표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양측의 대표가 고토히라신사를 재부일본인사회의 대표신사로 결정했음을 알려준다.

같은 해 4월 6일 신직 나가세는 파손된 고토히라신사의 사전(社殿)의 수선을 요청하였다.¹⁶³⁾ 1897년 10월 나가세를 비롯한 거류지회 의장 고토 쇼이치로, 거류지회의원 후쿠다, 야바시, 호케 사다하치(保家貞八) 등은 영사 이슈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에게 신사수선사업의 필요성을 알렸다.¹⁶⁴⁾ 1898년 8월 6일 신사의 개축사업에 관한 회의에서는 총 공사비용 6,020엔(지형비 50엔 포함) 중 5,900엔 정도는 기부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거류지회의 임시비와 잡비에서 1,000엔을 조달하기로 했다.¹⁶⁵⁾ 공사는 1898년 9월 10일 고토히라신사 임시사전(假殿)의 지진제를 시작으로 1899년 7월 천궁식(遷宮式)을 거쳐 마무리되었다.¹⁶⁶⁾ 고토히라신사의 신축이 진행되던 중인 1899년 1월 그 사호가 용두산신사로 개칭되었고, 같은 해 4월

162) 山川鶴市 앞의 책, p.42.

163) 山川鶴市 앞의 책, p.24.

164) 山川鶴市 앞의 책, p.43.

165) 山川鶴市 앞의 책, p.24.

166) 山川鶴市 앞의 책, p.26-27.

에는 한반도의 침략과 관계있는 3좌의 제신이 용두산신사로 합사되었다.¹⁶⁷⁾

공사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은 거류민의 기부금으로 충당했는데, 거류민은 그 기부금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낸 것 같지는 않다. 다음 1899년 7월 1일자 『中外日報』의 기사를 살펴보자.

용두산 정상에는 곤뵘라신사(金比羅神社)가 있고, 금번에 거류민이 수만금을 들여 신전을 신축한다. 그 중간에는 벤텐토(辨天堂)가 있다. 이 경비는 거류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때문에 거류민은 신사와 절의 신축에 필요한 기부금에 지쳐있다.¹⁶⁸⁾

위 기사에 따르면 재부일본인은 고토히라신사 외에도 부산일본거류지 내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 사원의 신축에도 기부금을 내고 있었으며,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부일본인으로부터 기부금이 모집되어 고토히라신사의 신축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 그 답은 신사에 대한 재부일본인의 신앙심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쓰시마의 마지막 번주 소 시게마사(宗重正)가 기금 모집에 참여했다는 사실¹⁶⁹⁾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 시게마사는 신분제의 폐지로 근대 이전의 신분이 법적으로 무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 번주로서 쓰시마인에 대해 가졌던 영향력은 잃지 않고 있었다. 1882년 1월 24일자 『大阪朝日新聞』 기사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쓰시마사족의 폭동으로 고심하고 있던 때 소 시게마사는 그들을 구 번주저(藩主邸)에 소집해 타일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¹⁷⁰⁾

1871년 일본에서는 폐번치현의 단행으로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어갔고 그 과정에서 쇼코다이묘화족(諸侯大名華族)과 구계화족(公家華族)은 각각 도쿄와 교토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구 신분제에 근거한 주종관계는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사회적으로는 전통적인 주종의식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었다.” 메이

167) 신축된 용두산신사는 1907년 5월 31일자 기록에 따르면 14평 규모의 목조동판지붕(木造銅葺)으로 된 신전과 약 21평 규모의 목조기와지붕(木造瓦葺)의 배전 그리고 4평의 신찬소(神饌所)와 약 20평 규모의 사무소(社務所), 2개의 수세소(手洗所)를 갖쳤으며 경내신사로 벤텐신사(辨天神社)와 이나리신사(稻荷神社)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山川鶴市 앞의 책, pp.72-73.

168) 「韓國布教一斑」, 『中外日報』, 1899년 7월 1일.

169) 山川鶴市 앞의 책, p.43.

170) 『大阪朝日新聞』, 1882년 1월 24일, 柳教烈, 『明治憲法體制と華族』, 神戸大學博士論文, 1994, p.43에서 재인용.

지 시기의 화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구 시즈오카번주(舊靜岡藩主)였던 도쿠가와 이에사토(徳川家達)가 유럽방문을 마치고 1882년 7월 귀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구 막신(幕臣)과 번사(藩士) 300여 명은 1개월 전부터 조직적으로 구 번주의 귀국 환영식을 준비했다고 한다. 또한 같은 해 5월 29일에는 이탈리아의 전권대사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구 사가번주(舊佐賀藩主) 나베시마 나오히로(鍋島直大)를 환영하기 위해 당해지역의 구 번사들이 자리를 마련하였고, “7월 16일에는 번주 스스로가 자택에 사가번 출신인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외 300여 명의 구 번사를 초대해 간친회”를 열기도 했다. 구 번주는 번지(藩地)에 대한 집착도 강했는데, “도쿄에 집주하여 지방이주나 여행의 자유가 구속되어 있고, 귀향할 때마다 궁내성의 허락을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족들은 자신의 구 번지로 나가 사족이나 지방민과의 옛 정의관계를 이어갔다.”¹⁷¹⁾ 이와 같은 구 번주와 지역사회에 관한 사례들은 고토히라신사의 신축 자금 모집에 소 시게마사가 미친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청일전쟁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히로쿠니다이진의 합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토히라신사를 중심으로 지역민의 신앙을 통일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토히라신사의 신축과정에서 사호를 용두산신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한 것과 새로운 제신을 합사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고토히라신사의 사호를 용두산신사로 변경하는 것은 1899년 1월 27일 거류지회에서 결정되었다.¹⁷²⁾ 사호에 용두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한 것은 1894년 3월 9일 메이지천황의 은혼식제전 당일 고토히라신사의 제신을 우부스나카미로 칭해 모시기로 한 것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재부일본인이 신사를 통해 지연(地緣)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해 4월 23일에는 거류지회의 원이자 신슈쿄의 교도직 야바시가 신슈쿄관장 요시무라 마시모치(芳村正秉)에게 의뢰하여 “외진(外鎮)의 공덕이 현저”하다는 이유를 들어 스사노오노 미코토(素戔鳴尊)·진구황후(神功皇后)·도요토미 히데요시공(豊臣秀吉公)을 제신으로 불러와 용두

171) 구 번주의 그러한 면모는 지방의 공공사업에 자본을 제공했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82년 10월 4일 “우스키번주(臼杵藩主)였던 이나바 히사미치(稻葉久通)는 구 번사의 자제에게 학자금 1,000엔을 기증했을 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설립”하여 구 번지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상 구 번주와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柳教烈 앞의 논문, pp.37-39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72) 山川鶴市 앞의 책, p.29.

산신사에 합사시켰다.¹⁷³⁾ 진구황후와 도요토미는 근대 이전부터 일본의 지배층과 지식인 사이에서 조선에 대한 우월감과 멸시감을 드러낼 때 되풀이되며 거론되던 소재였다.¹⁷⁴⁾ 때문에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진구황후와 도요토미에 관련되는 신사나 사우(祠宇)를 정비하여 민중에서 전승되고 있던 신화와 전설을 근대국가 권력으로 수렴시키고자 했다.¹⁷⁵⁾ 청일전쟁의 승리 후 용두산신사에 합사된 진구황후 외 2개 제신은 재부일본인이 조선인에 대한 우월감과 멸시감을 공유하며 국민적 통합에 이르게 하는 기재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일전쟁 이후 고토히라신사는 신축을 통해 용두산신사로 거듭나며 재부일본인사회를 대표하는 신사가 되었다. 재부일본인사회에서 용두산신사의 설립은 출신지를 중심으로 분열되어 있던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용두산신사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1896년 히로쿠니다이진의 합사, 1899년 1월 용두산신사로 사호 개칭, 4월 진구황후 외 2제신의 합사, 7월 신축공사 완료)은 소 시게마사를 비롯해 쓰시마동향회의 회장이자 거류지회의 의장이었던 고토와 거류지회의원이자 신슈교 교도직이었던 야바시 등과 같은 재부일본인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자들이 관계하고 있었다. 이들은 신사의 사무에 관계하며 재부일본인사회와 근대국민국가로 향해가는 일본의 중간에서 양측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야스마루 요시오(安丸良夫)가 말하는 “중간적 지도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근대이행기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중간적 지도층은 주로 촌락관리나 지주, 명망가, 학교 교사, 신직과 승려와 같은 신분에 있는 자들이었으며, 이들은 국가권력과 일반 민중의 매개적인 위치에서 활동하였다. 중간적 지도층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안정된 질서를 수립하고자 “더욱 보편적인 권위와 원천을 추구”하며, 거기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¹⁷⁶⁾ 용두산신사는 재부일본인사회의 중간적 지도층이 횡적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종적으로는 천황 숭배사상이나 국체론과 결합된 원리를 제시하며 당해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상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173) 山川鶴市 앞의 책, p.36.

174) 박진우,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와 민중』, 제이앤씨, 2004, p.105.

175) 박진우 앞의 책, p.120.

176) 야스마루 요시오 앞의 책, pp.233-234.

4. 결론

본장에서는 개항 이후 쓰시마인과 비쓰시마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재부일본인사회가 용두산신사의 설립을 통해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개항 이전 부산에는 초량왜관 내 용두산을 중심으로 민간신앙의 상징인 사당이 몇 개소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부산의 개항에 따라 다양한 지역 출신들로 재부일본인사회가 형성되어 감에 따라 더 이상 쓰시마인이 설립한 사당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앙을 담당하는 주체가 분화되었는데 대표적인 단체로는 일본인자치기구와 쓰시마동향회를 꼽을 수 있다.

일본인자치기구는 부산일본거류지 내에 남아있던 초량왜관 시절의 사당을 신직·교도직과 같은 전문인의 도움을 얻어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토히라신사와 벤텐사가 공유신사로서 재부일본인사회의 중심신사로 부각되었다. 신직 나가세의 관리하에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는 신축과 보수를 거치며 사무소와 같은 근대적인 신사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신슈료의 교도직 야바시는 거류지회의 임원을 역임하며 1894년 3월 9일 고토히라신사에서 열린 메이지천황의 은혼식 기념제전을 집행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의 근대적 신사행정과 의례가 일본인자치기구에서 초빙한 전문인에 의해 재부일본인사회에도 전해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또한 같은 날 도쿄와 부산에서 동시에 국가적 의례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가 말하는 공간과 시간의 국민화¹⁷⁷⁾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일본인사회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준다.

신사에 관한 일본인자치기구의 사무가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에 반해 쓰시마동향회는 쓰시마의 구 번주를 신으로 모시는 히로쿠니신사요배소를 설립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의 결집을 도모하였다. 구 번주를 제신으로 하는 신사는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지역사회에서도 지역민의 통합을 이끌어 내는 상징으로서 설립된 바 있다. 쓰시마동향회의 히로쿠니신사요배소 설립은 특정 지역 출신자의 결집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특수성을 갖지만, 그 원리는 근대이행기 일본의 지역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점에서 해외일본인사회에서 진행된 일본의 국민국가화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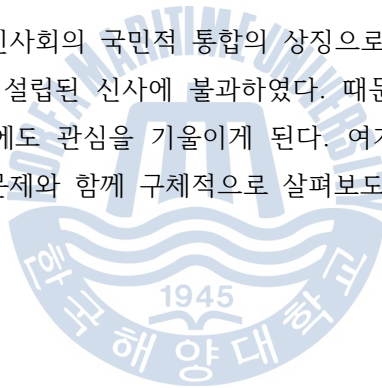
청일전쟁은 일본인자치기구와 쓰시마동향회 같은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가진 주체들을 통합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1896년 4월 히로쿠니다이진이 쓰시마동향

177) 西川長夫·松宮秀治, 『幕末・明治期の國民國家形成と文化變容』, 新曜社, 1995, p.31.

회의 참석하에 진행되던 행사 중 고토히라신사로 합사된 것이다. 쓰시마의 구 번주소 시계마사가 고토히라신사의 신축자금모집에 협조한 사실 또한 양측의 통합을 지지하는 행위로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소의 행동은 구 통치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책임져야 했던 화족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개축을 거친 고토히라신사는 용두산신사로 사호가 변경된다. 용두산신사가 재부일본인사회의 대표신사로 거듭나는 데는 쓰시마동향회장, 일본인자치기구의 임원과 신직·교도직 등 야스마루가 말하는 중간적 지도층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근대이행기 학교 교사, 촌락지도자, 신직, 승려와 같은 중간적 지도층은 천황의 권위를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확보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유도했다. 재부일본인사회의 중간적 지도층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신사를 설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유도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권위에도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용두산신사는 재부일본인사회의 국민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기능하게 되었지만, 법적으로는 해외에 임의로 설립된 신사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용두산신사의 법적 지위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여기에 관해서는 3장에서 재부일본인사회의 법인화 문제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3장 20세기 초 재부일본인사회의 법인화와 신사행정

1. 서론

본장에서는 통감부 시기 거류민단법 시행 이후 재부일본인사회가 법적으로 근대 국민국가 일본의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을 신사행정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부산의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중간적 지도층들은 용두산신사의 설치를 통해 당해지역 일본인의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당해 시기 재부일본인사회는 일본 국내법의 적용 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며 단지 영사의 책임 하에 거류민단체가 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것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용두산신사를 비롯한 거류지 내 기타 신사들은 해외에 설치된 비공인신사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재부일본인사회의 법적지위는 1906년 통감부령 거류민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통감부 시기 재한일본인사회에 대한 연구로는 통감부와 재한일본인사회 간의 갈등을 다룬 연구¹⁷⁸⁾가 있다. 재한일본인사회는 통감의 정치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며 통감부와 대립양상을 보였다. 특히 거류민단 민장의 선출방식은 양자의 갈등을 촉발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1908년의 통감부는 “거류민단의 경비 절감, 적절한 민장을 얻지 못할 경우의 배제, 민장 선거의 과열로 인한 혼란 방지”를 이유로 들어 거류민장을 관선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재한일본인사회에서는 “자치제를 유린하는 처사”, “지나친 간섭주의”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비판한 것이다.¹⁷⁹⁾ 또한 재한일본인들은 통감부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대한제국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재한일본인의 이익을 등한시한다며 이를 ‘한국본위주의’로 정의한 후 비판하기도 했다.¹⁸⁰⁾ 통감부와 재한일본인사회 간의 갈등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들 양측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박양신은 ‘자치’에 대한 통감부와 재한일본인사회의 양자 간의 갈등을 인정하면서, 거류민단법의 시행이 결과적으로는 일본거류지를 중심으로 재한일본인사회를 도시적으로 발전시켰으며, 그것이 1910년 이후 일본의 조선통치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

178) 山中麻衣, 『서울거주 日本人自治機構연구(1885-1914)』,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박양신, 「통감정치와 재한 일본인」, 『歷史教育』Vol.90, 2004, 市川まりえ, 「1905-1910年 在韓日本人 民間言論의 統監府政治觀」, 『韓國史論』Vol.55, 2009.

179) 박양신 앞의 논문.

180) 市川まりえ 앞의 논문.

조하고 있다.¹⁸¹⁾

이상의 연구를 통해 재한일본인사회와 통감부의 관계 및 거류민단법의 시행경위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류민단법의 시행에 따른 재한일본인사회의 행정적 변화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통감부 시기 거류민단법의 시행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행정의 변화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2. 부산거류민단의 신사운영

2.1 부산거류민단의 성립

재부일본인은 개항 이전인 1873년부터 보장두취를 통해 관민의 사무를 취급하며 자치행정을 시작했었다. 이후 1880년 4월 영사관이 설치되고 1881년 영사에 의해 거류지편제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재부일본인은 영사의 관할 하에 거류민회와 거류민역소를 두고 거류지의 자치를 실시했다.

재부일본인의 인구는 청일전쟁 직후 약 5,000명에 이르렀고 러일전쟁 이후인 1906년에는 약 16,000명에 달하게 된다.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가지의 확장이 불가피했으나, 임의적인 자치기구였던 거류민회의 힘만으로는 학교, 수도시설, 병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부산을 비롯한 인천, 원산 등의 일본거류지도 마찬가지로여서 “거류지의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거류민 ‘과금’, 체납의 강제 징수와 공채 발행을 가능케 하는 거류지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한일본인사회에서 제기되었다.¹⁸²⁾ 1905년부터 1910년 부산거류민단의 주요사업 중에는 학교의 신·증축 사업이 9개에 달했으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206,033엔으로 한 해 민단세의 두 배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거류민단의 성립 이전에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한일본인은 공공사업 확대를 위한 공채 발행 자격의 획득을 목적으로 거류민단의 법인화를 요구했던 것이었다.¹⁸³⁾ 일본 외무성은 재한일본

181) 박양신,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성립과 해체」, 『아시아문화연구』Vol.26, 2012.

182) 박양신 앞의 논문.

183) 김대래·김호범, 「부산일본거류민단 재정 연구(1907-1914):부산부재정의 성립에 관하여」, 『지방정부연구』Vol.10 제2호, 2006.

인사회에서 제기된 거류지 법인화의 법안을 마련하여 1904년 12월 15일자로 각의에 회부하였다. ‘거류민단법안’은 1905년 2월 14일 제국의회에 제출되었고, 1906년 7월 통감부령 제20호로 거류민단법시행규칙이 발표됨으로써 시행에 들어갔다.¹⁸⁴⁾

거류민단은 1906년 2월 통감부와 함께 설치된 이사청의 관할하에 운영되었다. 통감부는 경성에 설치되었으며, 통감은 일본 천황에 직속하고 외교에 관해서는 일본 외무대신을 거쳐 내각 총리대신을, 기타 사무에 관해서는 내각 총리대신을 거쳐 재가를 받게 되어 있었다. 또한 통감은 통감부령을 발하고 금고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엔 이내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었으며, 이사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도 통감의 직무였다.¹⁸⁵⁾ 이사청은 1906년 2월 1일부터 대한제국 내 부산·원산·인천과 같은 개항지에 순차적으로 설치되어 영사관의 기능을 대신하였다. 종래 재한 일본인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를 위한 재판권은 나가사키공소원(長崎控訴院) 관할하에 영사관에서 취급하였으나, 이사청의 설치 이후에는 관할구역 내 소송사건을 이사청이 맡게 되었다.¹⁸⁶⁾

1906년 7월 부산에도 거류민단법시행규칙에 따라 거류민단이 설치되었고 그 관할구역은 일본거류지를 중심으로 절영도, 초량, 부산진 구관(구 왜관자리) 지역이 되었다.¹⁸⁷⁾ 거류민단 내에는 자치행정을 실행하기 위한 의결기관인 거류민회와 집행기관인 참사회(參事會), 거류민단장과 보조기관인 민단리원(民團吏員)을 두도록 되어 있었다.¹⁸⁸⁾ 또한 거류민단역소의 사무조직은 총무, 서무, 토목, 징세, 회계, 수도의 6계를 두고 있어 일본 국내의 시역소(市役所) 조직과 다를 바가 없었다.¹⁸⁹⁾

민단리원은 1906년 12월 22일 민단규칙 제20호 급여규칙에 따라 급료, 주택료, 문구료, 수당, 위로금, 퇴직일시금 등을 지급받았다.(제1장 제1조)¹⁹⁰⁾ 급료 중 월봉은 매월 21일에, 일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였으며, 일급은 집무일수에 의거해 지급하지만 전염병 발생으로 격리 중이거나 공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집무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할 수 있었다.(제2장 제4조·제5조)¹⁹¹⁾ 수당으로는 토목공사 감독이

184) 박양신 앞의 논문.

185) 김혜정 외, 『통감부 설치와 한국 식민지화』,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p.40.

186) 김혜정 외 앞의 책, p.63.

187) 김대래·김호범 앞의 논문.

188) 홍순권 외, 『부산의 도시 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2008, p.20.

189) 박양신 앞의 논문.

190) 釜山居留民團役所, 『釜山居留民團例規類集』, 瞬報社, 1909, p.39.

나 측량, 징세감시를 위해 항상 외출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7엔 이내의 월 수당을 지급하고, 전염병 예방에 종사하는 관리(吏員) 중 병자 또는 병독(病毒)에 오염된 물품에 접근하는 자에게는 월급의 2분의 1 이내의 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다.(제 6장 제25조·제26조)¹⁹²⁾ 다음의 <표7>은 부산거류민단관리의 연봉을 직명과 등급별로 분류한 것이며, <표8>은 거류민단 설치 이전 거류민장의 연봉을 등급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7> 부산거류민단 관리의 연봉표 (단위:엔)

	1級	2級	3級	4級	5級	6級
民長	3,000	2,500	2,200	2,000	1,800	1,600
助役	2,000	1,600	1,400	1,200	1,000	800
會計役	1,400	1,100	1,000	900	800	700
技師	1,800	1,500	1,300	1,200	1,100	1,000

(출전 : 釜山居留民團役所, 『釜山居留民團例規類集』, 瞬報社, 1909, p.37.)

<표7>과 <표8>을 비교하면 거류민단 설치 이후 거류민 대표의 연봉은 그 이전보다 1,000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부일본인의 인구 증가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8> 거류민단 설치 이전 거류민장의 연봉표 (단위:엔)

		1級	2級	3級	4級
民長	上	2,000	1,800	1,600	1,400
	下	1,900	1,700	1,500	1,300

(출전 : 相澤仁助, 『釜山港勢一斑』, 釜山日韓昌文社, 1905, p.39.)

부산거류민단에서는 영업세, 호별세, 양조세 등의 경상세입과 거류민단체, 매축지 수입 등의 임시세입으로 확보된 예산을 기반으로 위생·교육·도로·신사에 관한 사업에 지출하였다.¹⁹³⁾ 1907년을 예로 들면 총 608,220엔의 세입이 있었고, 그 중 411,810엔이 병영 이전(30,000엔), 상업학교 신축(32,559엔), 묘지 이전(21,217엔), 용미산신사 개축(5,192엔) 등의 사업으로 지출되었다.¹⁹⁴⁾

191) 釜山居留民團役所 앞의 책, pp.39-40.

192) 釜山居留民團役所 앞의 책, pp.43-44.

193) 흥순권 외 앞의 책, p.22.

194) 김대래·김호범 앞의 논문.

1907년 3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7월에 완성된 용미산신사는 부산거류민단이 설치된 이후 거류지의 첫 신사사업이었다. 초량왜관 시기부터 존재했던 신사를 전신으로 했던 용미산신사는 부산의 개항 이후 몇 차례의 개·보수를 거쳐 부산일본거류지 내 용두산신사와 함께 재부일본인의 우부스나카미(産土神)로서 신앙되었다. 다음을 통해 용미산신사의 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부산일본거류지가 설치된 다음해인 1878년 봄 소실되었던 용미산의 목조소사(木造小祠)가 일본거류민들에 의해 다시 재건되었다.¹⁹⁵⁾ 이 소사는 1891년 2월과 1892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가토신사물품도난계(加藤神社物品盜難届)”¹⁹⁶⁾에서 각각 “當港龍尾山鎮坐加藤神社”, “當港龍尾山加藤神社”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가토신사(加藤神社)라고 불렸던 것을 알 수 있다. 가토신사는 바다와 직면하고 있는 용미산 위에 지어진 탓에 비바람이 불 때마다 훼손되고 있어 1895년 수선이 의뢰되었다.

가토신사는 바람이 센 곳에 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이 토벽의 구조여서 풍우(風雨)가 발생할 때마다 파손이 생겨 경제적이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병참부에서 탄약창고(彈藥置場)로 차용 중이기 때문에 특히 견고한 수선을 요한다. 따라서 수선을 시급히 착수하려 한다.¹⁹⁷⁾

토벽으로 된 가토신사가 풍우가 있을 때마다 파손이 되고 있으며, 또한 병참부에서 탄약창고로 빌려 사용 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이때 신사의 외벽을 신설하는 등의 수선비로 약 11엔이 사용되었으며, 그 가운데 5엔은 거류지의 예비비(豫備費)로 충당되었다.¹⁹⁸⁾

1900년 1월 4일 부산일본거류지 내 신사의 관리를 맡고 있던 신직 나가세 에이(永瀨永)는 아래와 같이 용미산에 세워진 신사의 사호와 제전일의 변경을 거류민총대에게 요청한다.¹⁹⁹⁾

195) 山川鶴市 앞의 책, p.77.

196) 山川鶴市 앞의 책, pp.20-21.

197) 山川鶴市 앞의 책, p.23.

198) 山川鶴市 앞의 책, p.23.

199) 신직 나가세의 건의에 따라 “龍尾山神號”에 대한 거류지회의가 1900년 1월 20일 열려 용미산신사로 결정되었다. 山川鶴市, 『龍頭山神社史料』, 龍頭山神社社務所, 1936, pp.49-50.

당항 용미산 위 다마다레신사(玉垂神社)에는 다케우치노수쿠네(武内宿禰)가 주좌(主座)해 있고 상전(相殿)에는 가토 키요마사(加藤清正), 아사히나 사부로(朝比奈三郎)의 3신이 진좌되어 제전을 집행해 왔는데, 지금의 사명(社名)을 용미산신사로 개칭하고 또 제전 및 기타 모든 것을 용두산신사와 같은 날에 집행하길 희망합니다.

1900년 1월 4일

신직 나가세 에이

거류민총대 사하라 준이치로(佐原純一郎) 앞²⁰⁰⁾

1899년 1월 용두산의 고토히라신사를 용두산신사로 개칭한 것과 같이 용미산의 다마다레신사도 용미산신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용두산신사와 함께 관리하자는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용미산의 신사는 가토신사로 불러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의 고토히라신사의 신축 직후인 1900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용두산신사 기타 제신 및 연혁」에서는 거류지 내 각 신사에 대한 소개 가운데 다마다레신사와 그곳의 제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다마다레신사(원안 '가토사(加藤社)'라고 되어 있음: 원문)

다케우치대신(武内大神)(원안에는 '다마다레(玉垂)'라고 되어 있음: 원문),

가토대신, 아사히나대신²⁰¹⁾

「용두산신사 기타 제신 및 연혁」을 작성하며 참고한 자료의 원문에는 다마다레신사가 아니라 “가토사”라고 적혀 있었으나, 작성 중에 다마다레신사로 바꿔 적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1908년에 작성된 「용미산신사연혁개략」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용미산은 소나무 숲(松樹)이 울창하고 조망이 좋은 신경(神境)으로 부산거류지의 동남쪽 구석에 자리하고 있다. 1678년 3월 왜관 이전 당시 사전을 세워 다케우치노수쿠네를 모시고, 『다마다레신사라고 불렀다』(원안에 없음: 원문)……”²⁰²⁾

200) 山川鶴市 앞의 책, p.49.

201) 山川鶴市 앞의 책, p.41.

202) 山川鶴市 앞의 책, p.76.

즉 어느 시점에서 용미산의 신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가운데 신사의 사호가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적어도 1895년 가토신사의 수선이 진행되던 무렵까지는 용미산 위의 신사가 가토신사라고 불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95년에서 1900년 사이 가토신사가 다마다레신사로 변경된 사실이 있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00년 이후에 작성된 자료에서 원문에는 없거나, 가토사라고 적혀있던 사호가 어느 시점인가 변경된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선통교사』 등의 자료에서 용미산신사가 1678년 3월 창건된 다마다레신사를 기원으로 한다는 서술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⁰³⁾

1900년 1월 이후 용미산신사는 용두산신사와 함께 “거류지의 우부스나카미”로 추앙받게 되었으나, 1905년 사전이 낡고 용마루가 휘어져 개건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경신회(敬神會)에서는 같은 해 여름 경신회장 야바시 칸이치로(矢橋寛一郎), 간사 고토 쇼이치로(古藤昇一郎) 등이 중심이 되어 조영계획을 의결하였다.²⁰⁴⁾ 이후 민장 이시하라 한에몬(石原半衛門)과 거류지회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호소카와후작(細川侯爵)과 소백작(宗伯爵)의 주도로 거류민으로부터 기부금 약 5,500여 엔이 모집되었다. 개건사업은 1907년 3월 시작되어 같은 해 7월 마무리되었다.²⁰⁵⁾ 1907년도 부산거류민단의 세출 중 사사비(社寺費)가 1,107엔²⁰⁶⁾을 차지했던 것으로 볼 때 용미산신사의 개건사업에 사용된 비용의 대부분은 여전히 재부일본인의 기부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파악된다.

용미산신사의 개건에 필요한 자금마련에 호소카와후작·소백작과 같은 화족이 앞장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화족이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치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2장에서 쓰시마의 마지막 번주이자 백작이었던 소 시게마사(宗重正)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 있다. 용미산신사의 개건에 참여한 호소카와후작은 구마모토번(熊本藩)의 마지막 번주이자 1884년 화족령에 의해 후작에 오른 호소카와 모리히사(細川護久, 1839년-1893년)의 아들 호소카와 모리시게(細川護成, 1868년-1914년)라고 생각된다. 호소카와 후작이 용미산신사의 개건비용마련에 조력한 배경에는 그곳에 구마모토번의 초대 번주인 가토 키요마사가 모셔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토가(加藤家)의 몰락 이후 그 통치지역을 이어받은 호소카와가(細川家)는

203) 釜山甲寅會, 『日鮮通交史』, 朝鮮時報社, 1916, p.186.

204) 山川鶴市 앞의 책, p.77.

205) 山川鶴市 앞의 책, pp.77-78.

206) 『第1次統監府統計年報』, 統監官房文書課, 1907, p.248.

당해지역민들의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 초대번주 가토의 영을 모셨다고 알려져 있다.²⁰⁷⁾ 또한 호소카와가에서 가토의 영이 모셔져 있는 용미산신사의 개건에 힘을 더한 배경에는 부산을 비롯해 대한제국 각지로 구마모토의 지역민이 진출하고 있던 상황도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²⁰⁸⁾

이상을 통해 부산거류민단의 성립과 부산거류민단의 첫 신사사업이었던 용미산신사의 개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감부의 설치로 영사의 관리 하에 있던 재부일본인 사회의 자치단체는 최종적으로 통감의 관할에 놓이게 되었다. 부산거류민단 민장의 연봉은 3,000엔에 달했는데 이는 1905년 기준 일본지방고등관 연봉과 비교할 때 3급 지사(知事)의 연봉과 같은 액수였다.²⁰⁹⁾ 민장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1907년도 용미산신사의 개건은 부산거류민단의 첫 신사사업이었다. 공사자금으로 거류민단비 중 사사비가 지출되었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재부일본인의 기부금을 통해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사에 관한 자금은 거류민단 설치 이전부터 기부금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신사에 지원되는 경비는 1906년 4월 ‘부현사이하 신찬폐백료의 공진(府縣社以下神饌幣帛料の供進)’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관비(官費)가 지출되지 않았다.²¹⁰⁾ 즉 신사를 신앙하는 사람들의 기부에 의한 것이 원칙이었다.²¹¹⁾ 또한 법적측면에서도 재부일본인 사회의 신사는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임의로 설치한 비공인신사였으므로 국가로부터 경비가 지출될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거류민

207) 1600년부터 1870년까지 지역민의 봉기가 20년 마다 발생하였고, 가토 키요마사의 200회기(回忌)인 1810년을 포함해 1820년의 사이는 구마모토에서 봉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였다고 한다. 가토가를 이어 구마모토번을 지배하게 된 호소카와가에서는 지역의 영웅이었던 가토의 영을 모시는 행위를 통해 지역 사회의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福西大輔, 『加藤清正公信仰』, 岩田書院, 2012, pp.109-110.

208) 1895년부터 구마모토현의 의회에서는 헌비로 매년 일정 수의 한국어 연구생을 파견하였다. 熊本縣議會事務局編, 『熊本縣議會史』第二卷, 熊本縣議會, 1968, pp.503-505, 1904년 호소카와 모리시게는 전라북도 익산군 춘포면 대장촌에 토지를 매수하여 총 1,300여 평의 농장을 개간해 구마모토 사람들을 이주시켜 호소카와농장미(細川農場米)를 생산하게 했다고 한다.

<http://db.history.go.kr/> 검색어: ‘細川護成’, 검색일: 2012년 4월 10일.

209) 「勅令 第144號 地方高等官俸給令改正」, 1905,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3020636200.

210) 藤本頼生, 『神道と社會事業の近代史』, 弘文堂, 2009, p.32.

211) 羽賀祥二, 『明治維新と宗教』, 筑摩書房, 1994, p.330.

단법의 시행으로 재부일본인사회에는 일본 국내의 시정촌과 같은 법적지위가 부여되고 행정규칙 또한 구체화됨에 따라 당해지역사회의 신사행정도 이를 기반으로 명문화 된다. 다음을 통해 거류민단법의 시행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신직에 관한 규칙의 변화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신사·신직에 관한 규칙

부산일본거류지의 설치 이후 거류지의 신사에 대해 마련된 규칙은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81년 총대역소에서 거류지의 신사 2개소를 공유신사로 정하고, 신직의 관리에 맡긴다고 정한 것이 최초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거류지 신사에 대한 규칙은 각 신사에 개건과 수선 등이 필요하다는 신직의 요청이 있을 시에 거류지회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제2장에서 살펴본 1882년 고토히라신사와 벤텐샤의 사업에 대한 대리위원의 권한과 선발에 관한 규칙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에 대한 규칙은 용두산신사(1899년)·용미산신사(1900년)가 거류지를 대표하는 신사로 정해진 이후 점차 명문화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1900년 8월 27일 정해진 거류지의 신사를 관리하는 신직에 대한 규정이다.

신직규정

제1조 용두산신사, 용미산신사, 벤텐샤에 유급 신직 1명을 둔다.

제2조 신직은 신명(神明)에 대해 정성을 다해 존송하며, 전례에 따라 그 본무를 다해야 한다.

제3조 거류지의 제일은 매년 4월 21일, 22일 양일에 집행한다.

제4조 예제 외에 아래의 제전을 실시한다.

사방배(四方拜) - 1월 1일, 원시제(元始祭) - 1월 3일,

고메이천황제(孝明天皇祭) - 1월 30일,

기원절(紀元節) - 2월 11일, 춘계황령제(春季皇靈祭) - 3월 21일,

진무천황제(神武天皇祭) - 4월 3일, 추계황령제(秋季皇靈祭) - 9월 23일,

천장절(天長節) - 11월 3일, 신상제(新嘗祭) - 11월 23일,

연기제(年祈祭)·대불(大祓) - 12월 31일

제6조 신직은 임시제를 실시할 때는 거류지역장에게 알려야만 한다.

제8조 신직은 신전, 사무소, 기타 영조물 및 경내를 청결하게 하고 단속에 주의하여 오염·파손이 없도록 한다.

제9조 신직은 신사에 소장된 보물, 집기 및 문서류를 감독하고 보호(監護)하여 누락되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0조 신직은 재산부를 작성하여 신사에 속한 조영물·집기를 기록하고,

1통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1통을 거류지역소에 제출해야하며, 증감이 있을 시 바로 그 사항을 기재하고 거류지역소에 알려야 한다.

제11조 금품의 기부가 있을 시에는 그 뜻을 기록하고, 그 때마다 거류지역소에 알려야 한다.

제12조 사무소에는 일지를 비치하여 신사에 관한 크고 작은 사고를 기록해야 한다.

제13조 신직의 퇴진은 거류지상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한다.²¹²⁾

제4조에 기재된 제전에서 원시제, 기원절, 진무천황제, 신상제, 춘추황령제 등은 기기신화를 근거로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정부가 창안한 의례이며, 나머지 제전 역시 일본의 근대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천황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로 고안된 제전이다.²¹³⁾ 나머지 조문은 신사의 재산과 청결에 관한 신직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직의 역할에 관한 규정은 거류민단법의 실시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된다.

1909년 부산거류민단역소에서 발간한 『부산거류민단예규류집』에는 신직에 관한 규칙으로 ‘신직봉무규칙(神職奉務規則)’, ‘신직의 공진금품 및 취급방법의 건’, ‘신직복무 및 제급여규정(神職服務及諸給與規程)’이 게재되어 있다. ‘신직봉무규칙’은 1900년의 ‘신직규정’과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하나 신직이 집행해야 할 제전과 신사재산관리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제전부분에서 ‘신직봉무규칙’에는 연기제(12월 31일)가 빠지고, 신상제(10월 17일)가 추가 되었으며, 대불이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늘어났다. 신사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제10조를 통해 보물 및 귀중한 서화, 집기류를 신사 밖으로 대출할 시 품목, 사유, 대출장소, 보관방법, 대출기간을 민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 외 신직에 관한 규칙은 부산거류민단규칙에 근거하여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1907년 4월 17일 마련된 ‘신직복무 및 제급여규정’²¹⁴⁾에서는 신직은 개인적인 일로 여행하게 될 때 그 사유, 일수, 지명을 보고하여 민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212) 森田福太郎, 『釜山港勢一斑』, 釜山商業會議所, 1912, pp.238-239.

213) 村上重良, 『天皇の祭祀』, 岩派新書, 1977, p.75, pp.95-106.

214) 釜山居留民團役所, 『釜山居留民團例規類集』, 釜山居留民團例規類集, 1909, p.157.

(제2조), 7일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될 때에는 사무를 촉탁할 자를 정해 민장에게 보고해야 했다(제5조). 또한 사무에 의한 출장 시에는 1906년 거류민단규칙 제19조 여비규칙에 의해 여비를 지급받았다(제6조). 아래의 <표9>와 <표10>은 각각 1906년 12월에 정해진 거류민단원의 여비와 1907년 4월에 정해진 신직의 여비를 정리한 표이다.

<표9> 거류민단원여비(1906년 12월 22일)

	기차비	기선비	마차운임 1리	1박 숙박료	일상1일
민장, 의원	1등	1등	40센	5엔	3엔
회계역	2등	2등	40센	4엔	2엔
서기	2등	2등	30센	3엔	1엔50센

(출전: 釜山居留民團役所, 『釜山居留民團例規類集』, 釜山居留民團例規類集, 1909, p.51.)

<표10> 신직여비(1907년 4월 17일)

	기차비	기선비	마차운임 1리	1일 숙박료	일상 1일
신직	2등	2등	30센	3엔	1엔 50센
신직대리	3등	3등	20센	2엔	1엔 20센

(출전: 釜山居留民團役所, 『釜山居留民團例規類集』, 釜山居留民團例規類集, 1909, p.158.)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직은 거류민단원의 규정을 토대로 거류민단 서기와 같은 수준의 여비를 지급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신직에 관한 규정 외에도 거류민단규칙은 거류지의 신사에 관한 여타 규칙의 토대가 되었다.

1908년 4월 10일 민단규칙 제12호 ‘신사우지코총대규칙(神社氏子總代規則)’²¹⁵⁾이 마련되었다. 용두산신사 및 용미산신사의 유지 및 제전 등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우지코총대를 두기 위한 것(제1조)으로, 우지코총대의 선출구역은 1907년 3월의 민단규칙 제11호 ‘거류민단구내총대설치규칙’의 구역과 같았다(제2조). 우지코총대란 신직 이외 한 신사를 신봉하는 자(우지코)들을 대표하는 자를 부르는 호칭으로, 신사의 제례 등이 실시될 때 신직에 협력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²¹⁶⁾ 우지코총대의 정원은 총 18명으로 각 구역에서 2명씩 선발했으며(제3조), “당해구내에 만 2년 이내 거주하거나 계속 거주하는 자”, “만 2년 이내 거류민단세 연액 5엔 이상 납부하거나 계속 납부하는 자”(제4조)여야 했다. 아래를 통해 우지코총대

215) 釜山居留民團役所 앞의 책, p.159.

216)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編, 『神道事典』, 弘文堂, 1999, p.358.

의 선출기준이 된 ‘거류민단구내총대설치규칙’의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1조 거류민단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아래의 구역에서 총대(원문)를 둔다.

第1區 埋築地一圓, 北濱町, 本町, 琴平町, 常盤町, 辨天町

第2區 南濱町, 入江町, 幸町

第3區 西町(自1丁目, 至4丁目)

第4區 大廳町, 西町5丁目, 西山町

第5區 富平町, 谷町, 土城町, 草場町

第6區 寶水町, 大新町, 富民町, 中島町

第7區 牧島一圓

第8區 草梁, 古館, 支那町一圓

第9區 釜山鎮一圓

제2조 총대는 各區에 1명을 둔다.

총대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한다.

총대에게는 매년도 예산에서 사무비를 지급한다.

제3조 총대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민장이 선임한다.

1. 당해구내에 만 2년 이내 거주하고, 계속 거주하는 자.

2. 만 2년 이내 거류민단세 연액 5엔 이상을 납부하고, 계속 납부하는 자.

제4조 총대는 아래의 직무에 종사한다.

1. 거류민단규칙의 고시 및 필요한 공문의 보급에 관한 것.

2. 호적의 누락이 없도록 할 것.

3. 위생사상의 함양을 기도할 것.

4. 취학을 권유할 것.

5. 과세의 균형(權衡)에 주의하여 탈세자가 없도록 할 것.

6. 도로 기타 교통 상에서 수리보존에 관하여 조사보고 할 것.

앞의 각호 기타 임시 필요한 사항에 관해 시설상의 의견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보고할 것.

제5조 총대의 복무에 관한 규정은 민장이 정한다.

부 칙

제6조 본 규칙은 1907년 4월 1일부로 시행한다.²¹⁷⁾

용두산신사와 용미산신사의 사무보조를 위한 우지코총대는 거류민단의 총대 선출 규칙에 따라 이상의 9개구에서 각 2명씩 총 18명이 선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지코총대의 자격과 거류민단총대의 자격(제3조)이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볼

217) 釜山居留民團役所 앞의 책, pp.81-83.

때 부산일본거류지의 신사 및 신직에 관한 규칙들은 부산거류민단규칙에 근거하여 정비된 것을 알 수 있다.

1871년 이후 메이지정부는 신사를 국가의 종사로 규정하고 호적제도²¹⁸⁾와 우지코 제도의 일체화에 의해 전 일본국민을 지역신사(郷社)의 우지코로 만들고자 하였다.²¹⁹⁾ 무라카미 시게요시에 따르면 메이지 말기부터는 일정한 우지코구역을 정해 그 구역 내 거주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를 우지코로 하는 속지주의가 내무성의 공식견해였다. 또한 내무성은 지방제도강화 및 국민의 교화를 위해 우지코조직을 중시하였고, 신사를 시정촌 내지 우지코조직의 공공활동, 산업, 교육, 사상의 중심에 두는('신사중심주의') 방침을 세웠다.²²⁰⁾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거류민단법의 시행 이후 호적구가 구체적으로 명기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우지코총대의 선발규정도 마련되었다. 이는 재부일본인사회가 적어도 신사행정의 측면에서는 1907년 이후부터 일본 국내의 시정촌과 동일한 형태로 정비되어 갔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산거류민단예규류집』에 수록된 거류지의 신사·신직에 관한 규칙은 1908년 집 중적으로 정해졌다. 1907년 4월에 제정된 '신직복무 및 제급여규정'와 1909년 1월에 제정된 '우지코총대선거수속'를 제외한 나머지 '우지코총대복무규정', '신사우지코총대규칙', '신사경비공진규칙', '신직의 공진금품 및 취급 방법의 건'과 같은 4개의 규칙은 모두 1908년에 제정된 규칙이다. 1906년 7월 거류민단제가 실시된 이후 순차적으로 부산일본거류지의 시설과 관리에 관한 규칙이 마련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것은 1907년 1월부터 제기된 재부일본인사회의 용두산신사의 사격(社格)청원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907년 5월 부산거류민단의 민장 이시하라(石原半右衛門)은 통감 이토에게 용두산신사의 사격부여를 청원하며 신사의 제신, 신사의 건조물 종류와 크기, 유서 및 연혁 등의 항목을 갖춘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서식과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부산거류민단에서는 용두산신사·용미산신사에 관한 규칙 등의

218) 1871년 4월 메이지정부는 메이지 초기부터 각 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던 탈락자를 일소하기 위해 호적제도를 시행했다. “인민은 호적에 등재됨에 따라 비로소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으로서 파악되었고, 호적에 기재되지 않은 자는 ‘국민이 아닌 자(國民の外)’”로 규정되었다. 遠藤正敬, 『近代日本の植民地統治における國籍と戸籍—滿洲·朝鮮·台灣』, 明石書店, 2010, pp.116-117.

219) 羽賀祥二 앞의 책, p.328.

220) 村上重良, 『國家神道』, 岩派新書, 1970, p.180.

명문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절을 달리하여 통감부 시기 재부일본 인사회의 사격청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

3.1 배경

1907년 1월 25일 용두산신사·용미산신사의 신직 히라마츠 요시오(平松義雄)와 재부일본인사회의 경신회(敬神會)에서는 민장 이시하라에게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의 뜻을 밝혔다.

부산은 조선에서도 가장 일본과 연고가 깊고,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거류할 뿐만 아니라 수세대(數世)가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1894년부터는 거류지 우부스나카미(産土神)을 모시고 있으며 매년 4월 예제에는 영사관에서 폐물로서 떡을 바친다. 부산은 학교, 병원, 전등, 수도 등이 있고 무엇 부족한 것이 없이 갖추어져 있다. 당 신사의 경내 4만여 평에는 고목노송이 층만하여 동양에서 굴지의 승지로 1년의 사납(社納) 역시 적지 않다. 매월 호수 50여 호씩 증가하고 있어 곧 수만 여 호에 이를 것이므로 관폐대사(官幣大社)로 승격하더라도 결코 불품없게 보이지 않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용두산신사는:인용자) 무격사(無格社)로서 완전하지 않아 부산거류인민은 주야 개탄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1만 이상의 정촌(町村)에는 그에 상응하는 신사가 있으니, 우리 거류민에게 위안을 주며 일본과 가장 연고가 깊은 용두산신사가 관폐대사로 승격되길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부산거류인민은 관재(官裁)의 공명정대함에 감응하여 더욱 더 경신의 염려를 깊게 할 것이고, 정치상으로도 대한제국민(韓民)을 일본에 열복시켜 암암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221)

신직 히라마츠와 경신회는 민장에게 무격사인 용두산신사를 관폐대사로 승격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무격사인 용두산신사는 1907년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관폐대사의 규모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정부는 1871년 5월 14일 일본 태정관 포고 ‘관사이하정액·신관직제등규칙’에 따라 신사의 격을 크게 관사(官社)와 제사(諸社)로 분류하였다. 관사는 관폐(官幣) 대·중·소사와 국폐(國幣) 대·중·소사로 분류되었으며, 관폐사는 신기관이 국폐사는 지방관이 제사를 지냈다. 1906년에는 ‘관국폐사경비에 관한 건’이 정해져 관사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사에는 부·번·현·향사를 두었으나(폐번치현이

221) 山川鵜市 앞의 책, p.57.

단행됨에 따라 번사에 정해진 신사는 없었다), 같은 해 7월 ‘향사정칙’의 제정으로 부현사(府縣社), 향사(鄉社), 촌사(村社)의 사격이 공적으로 규정되었고 이상의 사격을 부여받지 못한 신사는 무격사(無格社)라고 불리게 되었다.²²²⁾

용두산신사가 1907년 현재까지 무격사에 지나지 않았던 이유는 사격제도가 일본 국내의 신사에만 해당되는 법이었기 때문이다.²²³⁾ 스가 코지(菅浩二)는 1907년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이 시작된 배경에 대해 용두산신사가 한반도의 여타 신사와 달리 긴 역사를 가졌다는 사실과 함께 치외법권지역인 거류지에 위치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²²⁴⁾ 그러나 사격제도가 일본 국내에만 적용된 법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이 시작된 것은 거류민단법의 시행으로 재부일본인사회가 일본의 시정촌과 같은 법적지위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부산이라는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임의로 설치한 신사가 법적으로 일본의 신사로 공인되는 길이 거류민단법의 시행으로 열린 것이다.

한편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이 있기 이전인 1906년 11월 부산을 방문했던 치바(千葉)지역의 신직인 사와다 소시게(澤田總重)는 용두산신사의 사격에 관해 다른 견해를 보였다. 다음은 사와다가 『신사협회잡지』에 기고한 「한국의 신사경영에 대해」라는 글의 일부이다.

……한국에서 나는 부산, 인천, 경성, 진남포, 평양 등의 장소에 들렀다. 이 나라는 일본과 교통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거류지는 평양시만 제외하면 대략 내지(일본:인용자)와 같은 설비가 있고 어디라도 신사가 있다. 특히 부산항의 용두산에 있는 용두신사, 인천항의 일본인공원에 있는 태신궁사(太神宮祠)는 모두 높은 지대의 승지를 점하고 있고, 경내도 좁지 않으며, 사전도 장려하여 내지라면 부현사에 해당하는 설비이다.
……²²⁵⁾

사와다는 러일전쟁 이후 대한제국 내 일본인사회를 둘러본 후 부산과 인천의 신사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부산의 용두산신사를 “용두신사”라고 적고 있으며, “내지” 즉 일본 국내의 신사와 비교해 “부현사”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소개하고 있

222) 이상 사격에 관한 내용은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編 앞의 책, pp.121-127, 村上重良, 『国家神道』, p.95에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23) 菅浩二, 『日本統治下の海外神社-朝鮮神宮·台湾神社と祭神-』, 弘文堂, 2004, p.172.

224) 菅浩二 앞의 책, p.173.

225) 神社協會, 『神社協會雜誌 第5年 第11號』, 1906년 11월 15일, pp.39-42.

다. 그렇다면 왜 용두산신사의 관계자들은 용두산신사의 첫 사격으로 관사 중에서도 최고의 사격인 관폐대사를 청원했던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용두산신사·용미산신사의 신직 히라마츠의 행적에서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히라마츠는 1894년 8월 국폐중사 와카사히코신사(若狭彦神社)의 구지(宮司)²²⁶⁾로 부임하여 1895년 국폐대사 오야마즈미신사(大山祇神社)의 구지를 거쳐 1900년 10월 15일에는 관폐대사 다츠타신사(龍田神社)로 자리를 옮겨 구지로서 복무하였다.²²⁷⁾ 이후 그의 행적은 대만의 신사에서 확인된다. 다음은 1902년부터 1905년까지 대만에서의 히라마츠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대만총독부의 기록을 정리한 표이다.

<표11> 臺灣에서의 平松義雄의 행적

일자	내용	비고
1902.09.22	대만총독부 민정부총무국에서 근무를 명받음.	
1903.01.01	대만신사의 네기(禰宜) ²²⁸⁾ 로 임명.	
1904.02.13	대남(臺南) 개산신사(開山神社)의 구지에 검보.	
同.10.01	관폐대사 대만신사 네기 히라마츠 외 1명 감봉됨.	
1905.12.16	관폐대사 대만신사 네기 히라마츠 본인의 바람으로 본관을 면함.	

(출전: <http://sotokufu.sinica.edu.tw/dore/listm.php>, 「臺灣總督府檔案」, 검색어: '平松義雄', 검색일: 2013년 10월 29일.)

이상의 표를 참고하면 히라마츠는 일본에서부터 대만에 이르기까지 관사급의 신사에서 주로 근무해왔던 것을 알 수 있다. 1902년 대만총독부의 소속으로 보임된 이후 대만의 최초 신사인 대남의 개산신사와 대만신사의 업무를 겪었던 사실은 흥미롭다. 1905년 히라마츠가 어떤 이유로 인해 감봉되었고 대만신사의 신직을 그만 두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후 그는 1906년 7월 부산 용두산신사의 신직으로 부임하였다.²²⁹⁾ 1907년 1월 일본 국내의 신사도 아니며, 사격이 부여된 적도

226) 신직의 계급의 하나로 당해신사의 신직 중 장을 말한다.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編 앞의 책, p.148.

227) 「大神神社宮司從六位東吉貞以下十六名叙位ノ件」, 1900, 日本國立公文書館, A10110067100.

228) 일본의 전통적인 신직의 명칭 중 하나로 메이지유신 이후에는 신궁이나 관국폐사(官國幣社)에 그 직을 두었다.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編 앞의 책, pp.151-152.

229) 『神社協會雜誌』 第5年 第12號, 1906년 12월 15일, p.22.

없던 해외의 신사인 용두산신사에 처음부터 최고의 등급에 해당하는 관폐대사의 사격이 청원된 것은 용두산신사의 역사와 재부일본인사회의 규모 그리고 이상과 같은 경력을 가진 신직 히라마츠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히라마츠와 함께 용두산신사의 사격을 청원한 또 다른 주체인 경신회는 앞서 용미산신사의 개축에도 앞장섰던 단체로 1900년 10월 용두산신사의 원래 신직이었던 쓰시마 출신의 신직 나가세와 쓰시마동향회의 회장을 역임했던 고토, 신슈교(神習教) 교도직 야바시가 창립한 단체였다. 경신회는 숭경회(崇敬會)·봉경회(奉敬會)²³⁰⁾ 등과 같이 신사의 외부 기관으로서 창립되었으며, 유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고 신사의 제전에 필요한 신찬비(神饌費)²³¹⁾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신회의 창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26일 나가세가 병으로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1905년 4월 2일부터는 야바시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²³²⁾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는 일본 국내에서 공인된 신직 히라마츠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고, 기존 재부일본인사회에서 신사의 사무를 담당했던 중간적 지도층들은 경신회의 멤버로서 그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 배경에 대해 법적지위 및 청원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은 스가의 분석과 같이 신사와 재부일본인사회의 역사 및 규모가 고려되었겠지만, 무엇보다 거류민단법의 시행으로 재부일본인사회가 일본 국내의 지역사회와 같은 법적지위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무격사에 지나지 않았던 용두산신사의 첫 사격으로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관폐대사를 청원한 것은 일본과 대만의 신사에서 신직을 역임했던 히라마츠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07년 1월 신직 히라마츠와 경신회를 통해 제기된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안은

230) 신사의 유지·조영·교화활동의 실천을 위해 신자(氏子·崇敬者·信奉者 등)에 의해 구성된 조직이다. 이러한 명칭으로 불리는 집단에는 몇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항상적·상설적 조직과 임시로 설치된 조직이 있다. 임시로 설치된 조직은 신사의 조영이나 기념사업, 식년대제 등의 사업과 자금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을 시 설치되어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하게 된다. 반면 상설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신사의 향례적 제례행사 등을 중심으로 신사의 경상비를 부담 혹은 조성하거나, 교화활동을 목표로 한다.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編 앞의 책, p.357.

231) 신에게 마치는 음식의 총칭이다. 1875년 관국폐사 이하 신사제식이 정해져 신찬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획일화되었다.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編 앞의 책, p.205.

232) 山川鶴市 앞의 책, p.70.

부산거류민단의 민장을 거쳐 통감 이토에게로 보고되었다. 이하에서는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에 대한 통감부의 대응과 경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통감부의 대응

1907년 1월 25일 경신회와 신직으로부터 용두산신사의 사격부여의 청원을 보고 받은 부산거류민단의 민장 이시하라는 같은 해 5월 31일 통감 이토의 앞으로 그 사안을 정리하여 사격의 부여를 청원한다. ‘신사사격부여에 관한 품신’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문은 용두산신사의 제신·신전과 배전 등 건조물의 형태·유서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래는 그 청원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용두산신사는 쓰시마의 영주 소 요시자네(宗義眞)가 본방인(本邦人)에게 위안의 마음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봉사한 이래 거류민의 숭경이 날로 두터워졌으며, 이경(異境)에 있는 본방인에게는 크게 정신상의 위안을 주고 거류지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생각건대 신영토 또는 보호국과 같은 토지에서 민심의 감화통일 상 경신의 염려를 증진시키는 것은 긴요한 일이므로 관폐사에 상당하는 사격을 부여해주길 청원한다.²³³⁾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용두산신사의 사격신청은 재부일본인사회가 러일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일본의 지배력이 강화된 것을 의식하며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6월 24일 통감부는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안을 내무성으로 보내 조회를 의뢰하였다. 1907년 7월 6일 내무차관 요시하라 사부로(吉原三郎)는 내무성 통갑(統甲) 제2호를 통해 통감부의 총무장관 츠루하라 사다키치(鶴原定吉) 앞으로 용두산신사의 사격에 관한 사안은 통감부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답신을 보냈다.²³⁴⁾ 대만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에 설립된 신사에 관한 주관관청은 내무성의 신사국이 아닌 식민지정부의 담당부서였으며, 내무성은 식민지정부의 신사 담당부서를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아오이 아키히토(靑井哲人)에 따르면 일본 국내에서 제사(諸社)의 관리는 “내무성과 지방청에 의한 인가제도를 기본”으로 했는데, “식민지에서도 당해지역 관할관청의 인가제가 일반적이었다.” 식민지에서 제사의 관리를 정한

233) 山川鶴市 앞의 책, pp.74-75.

234) 「神社社格附與ノ義ニ付稟申」, 『宗教ニ関スル雜件綴』, 1906-1909, 대전국가 기록정보센터, CJA0004731-0027159067.

법규는 ‘현사(縣社) 이하 신사의 창립·이전·폐지·합병 등에 관한 규칙’ 혹은 ‘**신사 규칙’ 등으로 불렸는데, 1915년 8월 조선총독부령 제82호 ‘신사사원규칙’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용두산신사의 사격으로 요청한 관폐사 즉 관사의 경우는 제사와 사정이 달랐다. 관사의 경우에는 그 존립을 일본 본국정부가 결정하였고, 창립 후에는 당해 신사의 관리를 식민지정부에 위탁하는 ‘이중구조’였다. 예를 들어 “각 식민지를 총진수²³⁵⁾하는 관폐대사를 비롯한 관사가 창립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제국의회에서 건의안의 검토를 받고, 제신이나 사격은 내무성·궁내성에서 전의(詮議)하며 창립은 내각의 고시라는 형식을 취했다.”²³⁶⁾ 용두산신사의 사격에 관한 사안이 내무성을 거쳐 다시 통감부로 돌아오게 된 것은 용두산신사가 관폐대사에 해당하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용두산신사의 사격에 대해 통감부와 내무성에서 논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가 일본 국내법이 적용되는 범위로 진입한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 사례를 통해서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가 당해지역사회 일본인들의 국민적 통합의 상징으로서만이 아닌 타민족의 교화수단으로도 언급되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07년 중순에 진행된 용두산신사의 사격에 관한 사안에 진전이 없자 부산거류민단에서는 1908년 9월 14일 재차 통감 이토에게 사격부여를 청원한다. 이번의 청원에는 일본전국신직회의 의견을 사격신청서에 첨부하였는데, 이것은 신직 히라마츠와 경신회의 고토가 일본전국신직회에 미리 요청해 둔 것이었다. 아래는 일본전국신직회의 용두산신사의 사격에 관한 의견이다.

1. 한국에서의 신사행정에 대해 당국은 신속히 적당한 제도를 설정하여 장래에 생겨날 유폐(가령, 내지에 있어서의 부현사 이외의 신사에 대해 지금 정리의 필요를 느끼는 것과 같은 것:원문)를 미연에 예방할 것을 희망함.
2. 부산 용두산신사는 현재 한국에 있는 신사 중 최고의 역사를 가지며, 사전 및 경내 등도 다른 곳과 비교 할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 이에 상당한 사격을 정해줘야만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함.²³⁷⁾

235) 당해 식민지의 전인구를 우지코·송경자로서 포섭하는 것을 뜻한다.

236) 일본의 식민지 신사제도에 관한 내용은 靑井哲人, 『植民地神社と帝國日本』, 吉川弘文館, 2005, pp.69-73을 참고하였다.

237) 山川鶴市 앞의 책, pp.79-80.

일본전국신직회에서는 용두산신사의 사격에 관한 사안을 접한 후 일본 국내와 같은 유폐 즉 부현사 이하 신사의 정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한제국 내 신사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1873년 약 12만 개에 이르던 일본 국내의 신사는 러일전쟁 이후인 1906년 약 19만 개로 급증했다. 무라카미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신사를 국가의 종사로 삼고 사적으로 존재하는 신사를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농촌이나 도시에 설치된 “토착의 소사(小社祠), 가족동족(家族同族) 등을 모시는 사제(私祭)의 사사(社祠)가 공적성격을 가진 신사로 인정”됨에 따라 일본 전국의 신사 총수는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길옆(路傍)의 소사(小祠)라도 일단 형태를 갖춰 신사라고 부르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공적성격을 부여받았고, 관리·운영상에서 공비의 지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군소신사가 방임상태에 놓여 관리되지 못하게 되자 일본정부는 구촌(舊村)을 통합하여 행정촌을 두는 작업에 대응시켜 신사의 통·폐합을 단행하였다. 신사의 통·폐합은 1908년-1909년에 정점에 달했는데, 일본의 지방당국은 신사의 통·폐합이라는 내무성의 뜻을 수용하며 “반강제적으로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다거나 봉사가 되지 않는 소신사를 적당하게 다른 신사로 합병시켜, 원칙적으로 촌사는 행정촌 마다 1사(社), 무격사는 구촌에 1사 내지 수(數)사로 줄이는 방침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결과 1910년대 중반까지 약 8만 개의 촌사와 무격사의 신사가 합병 또는 폐지되어 신사의 총수는 약 11만 개로 격감하였고, 이나리(稻荷)·하치만(八幡)·곤삐라(金比羅)·텐신(天神)이 모셔진 4개의 신사가 합병되어 이나하치콘텐신사(稻八金天神社)와 같은 기이한 신사가 탄생되기도 했다.²³⁸⁾

일본전국신직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일본 국내의 신사문제가 재한일본인사회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용두산신사의 사격문제를 통해 신사정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실제로 1907년 5월 31일 부산거류민단에서 이토 통감에게 보낸 용두산신사 사격청원문을 살펴보면 부산일본거류지 내 다른 신사인 벤텐신사(辨天神社)와 이나리신사(稻荷神社)가 용두산신사의 경내신사로 기재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³⁹⁾ 즉 일본 국내에서 진행된 신사의 통·폐합이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통감부 시기 용두산신사의 사격문제와 결부되어 진행되었던 것이다. 단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 통·폐합이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과 마찬가지로

238) 일본 국내의 신사 통폐합에 관한 내용은 村上重良, 『國家神道』, pp.166-167을 참고로 정리하였다.

239) 山川鶴市 앞의 책, p.73.

통감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당해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일본신직회의 의견서까지 준비하여 용두산신사의 사격부여를 통감부에 청원했지만 결국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였고, 이 사안은 1910년 한일병탄 이후로 이어지게 된다.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거류민단법의 시행 이후인 1907년과 1908년 두 차례에 걸쳐 용두산신사의 사격을 통감부에 청원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안이 통감부를 거쳐 내무성까지 전해져 논의된 사실은 해외에 임의로 설립된 용두산신사가 일본의 법 테두리 속으로 진입했음을 알려준다. 또한 사격청원 과정에서 재부일본인사회 내 기타 신사들이 용두산신사의 경내신사로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당시 일본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던 신사의 통·폐합 정책의 영향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단 재부일본인사회에서 진행된 신사의 통·폐합은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할 수 있겠다.

4. 결론

본장에서는 재부일본인사회가 근대국민국가 일본의 일부로 편입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거류민단법의 시행 이후 신사행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러일전쟁 이후 한반도 내 일본인의 인구증가로 재한일본인사회에서는 학교, 병원, 수도시설과 같은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었다. 재한일본인사회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공채의 발행을 통해 보완하고자 했으며 이는 일본정부에 대한 거류지의 법인화 요구로 이어졌다. 1906년 7월 통감부령으로 거류민단법이 시행되었고 대한제국 내 일본인단체에는 일본 국내의 시정촌과 같은 법인격이 부여되었다.

거류민단법의 시행으로 재부일본인사회에도 부산거류민단이 설치되었다. 부산의 신사와 신직에 대한 규정은 거류민단규칙의 제정과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되기 시작하였다. 거류민단규칙으로 정한 호적구와 총대의 자격을 기반으로 하여 우지코총대의 선발규정 등이 마련된 것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1871년 이후 메이지정부는 신사를 국가의 종사로 규정하고 호적제도와 우지코제도의 일체화를 통해 전 일본국민을 지역신사에 결박시키고자 했다.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그와 같은 양상이 1907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거류민단규칙의 정비와 연동되어 신사·신직에 대한 규정의 명문화가 진행된 것은 1907년부터 제기된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과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격을 청원하기 위해서는 당해신사의 연혁과 규모, 제신 등의 항목을 완성하여 제출

해야했기 때문이다.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1907년과 1908년 두 차례에 걸쳐 용두산신사의 사격을 통감부에 청원하였다. 사격제도는 일본 국내의 신사에만 적용되는 법이었으나, 거류민단법의 시행으로 재부일본인사회가 일본의 시정촌과 같은 법지위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사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용두산신사의 사격은 경신회와 신직 히라마츠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들은 최초 부산거류민단의 민장에게 용두산신사 사격으로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관폐대사를 청원하였다. 관폐대사의 사격이 청원된 것은 용두산신사의 오랜 역사, 러일전쟁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규모확대와 함께 일본과 대만의 관폐사에서 신직으로서 근무했던 히라마츠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재부일본인사회 내 벤텐신사와 이나리신사는 용두산신사의 경내신사로 통합되었다. 1908년 무렵 일본 국내에서도 급격히 증가한 신사의 관리를 위해 정부의 주도로 신사의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었다. 재부일본인사회에서 진행된 신사의 통합은 일본 국내에서 진행된 신사정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과 마찬가지로 신사의 통합 역시 재부일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은 특기할 사실이다.

통감부 시기 재한일본인들은 대한제국을 이미 식민지와 다름없이 인식하였고, “한국의 개발과 한인 계도의 임무”를 강조하며 때때로 통감부 당국자보다 더 강한 제국주의적 성격을 보였다고 한다.²⁴⁰⁾ 이러한 모습은 용두산신사의 사격을 청원하는 가운데 신사를 통한 교화의 대상으로 대한제국민(韓民)을 포함시키고 있었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부일본인사회의 국민적 통합을 위한 상징적 장소였던 용두산신사가 통감부 시기에 들어서서 타민족의 교화수단으로서도 거론되기 시작한 사실도 본장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상 재부일본인사회와 신사를 통해 해외에 형성된 일본인사회가 근대국민국가 일본의 지역사회로서 자리잡아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을 살펴보기 위해 당해지역사회의 구조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재부일본인사회의 경우 쓰시마인과 비쓰시마인이라는 구도로 나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는 당해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담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론에서는 러일전쟁 이후 대련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에 대해 이상과 같은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40) 박양신 앞의 논문, 2004.

보론 1905년-1910년 대련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과 사회통합

1. 서론

보론에서는 러일전쟁 이후 대련일본인사회에서 신사가 지역사회의 상징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관계주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련신사에 관한 연구는 닛타 미츠코(新田光子)의 『大連神社史』를 유일하게 꼽을 수 있다.²⁴¹⁾ 그러나 닛타는 러일전쟁 이후부터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 분석을 한 결과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신사의 설립과정에 대한 분석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특히 신사의 설립과 당해사회구조의 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닛타의 대련신사연구를 참고로 하면서 신사가 대련일본인사회의 통합의 상징으로서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닛타의 연구를 통해 간단하게 대련신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닛타에 따르면 대련신사는 교파신도계 종교인 이즈모오야시로쿄(出雲大社教)의 대련분사(分祠)를 전신으로 하는 “매우 유니크 한” 신사였다.²⁴²⁾ 이즈모오야시로쿄는 시마네현(島根縣)의 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 제80대 고쿠소(國造)였던 센게 타카토미(千家尊福)가 창설한 친정부적 성향이 강한 종교였다.²⁴³⁾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분사가 대련에 설립되어 대련신사로 거듭나기까지는 많은 유력자와 기관의 협력이 있었다. 특히 관동도독부의 특허 하에 아편전매로 부를 쌓은 이시모토 칸타로(石本鑽太郎)는 자신의 집을 분사설립사무소로 대여해주는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였으며, 분사설립에 관여한 여러 단체에서도 중역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련신사가 설립될 수 있었던 길이 한 가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련실업회(大連實業會)의 간사였던 데미즈 야타로(出水彌太郎)의 대련실업회 몇 명이 대련신사의 설립을 추진했었기 때문이다. 데미즈 측의 신사설립활동에 대해 닛

241) 新田光子, 『大連神社史 -ある海外神社の社会史』, おうふう, 1991.

242) 新田光子 앞의 책, p.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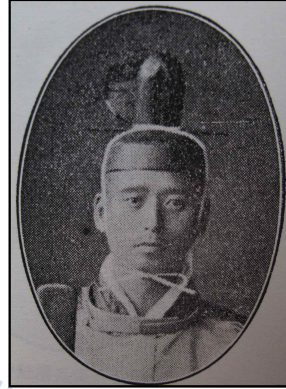
243)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정부의 종교개혁에 따라 센게도 신도포교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이즈모타이샤의 조직개혁에 착수하였다. 이후 이즈모타이샤의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각 지역의 이즈모쿄(出雲講) 등을 조직화하여 1873년 1월 이즈모타이샤케이신쿄(出雲大社敬神講)를 결성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이즈모오야시로쿄회의 설립을 신청하였다. 1882년 11월에는 그 명칭을 신토오야시로쿄(神道大社教)로 개칭하였고, 1884년에는 센게가 초대관장이 되었다.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編, 『神道事典』, 弘文堂, 1999, p.454.

타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대련신사의 설립으로 이어지지 못한 데미즈의 신사설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6> 千家尊福



<그림7> 松山理三



(출전: 松山理三編, 『大連神社創立誌』, 大連神社社務所, 1920.)

2. 대련일본인사회와 신사설립

2.1 데미즈 야타로(出水彌太郎)의 대련신사설립계획

1904년 2월 시작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전쟁은 1905년 8월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러일전쟁 직전인 1904년 1월 대련의 일본인은 307명이었지만, 러일전쟁이 끝난 1906년 말에는 8,248명 급증하였다.²⁴⁴⁾ 1905년 1월 4일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장래 만주에서 일본의 상권(商權)이 발전하기를 바라며 대련의 도항상인과 도항자 재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²⁴⁵⁾ 같은 규정의 제3장 도항상인의 자격에 따르면 “제국신민으로서 상당의 자산과 신용을 가진 자”여야 했으며, 도항상인은 “호적등본과 소득세액 증명서” 등을 갖추어 육군대신에게 제출해야 했다.²⁴⁶⁾ 이와 같은 규정은 일본정부가 무분별하게 일확천금을 노리고 대련으로 도항하는 자들을 저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44) 柳澤遊, 『日本人の植民地経験-大連日本人商工業者の歴史』, 青木書店, 1999, p.25.

245) 大連市役所, 『大連市史』, 1936, p.240.

246) 大連市役所 앞의 책, p.242.

오사카 출신인 데미즈 야타로는 1905년 4월 육군대신 데라우치에게 대련도항영업소의 허가청원서를 제출하였다.²⁴⁷⁾ 데미즈는 1895년부터 자본금 30만 엔으로 오사카에 가요우철도주식회사(河陽鐵道株式會社)²⁴⁸⁾를 설립한 이후 철도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²⁴⁹⁾ 데미즈가 대련에 도항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906년 3월 그가 대련실업회(大連實業會)의 간사로 선출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도항 시기는 1905년 4월부터 1906년 3월 사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905년 9월 대련으로 민간일본인의 자유도항이 허가됨에 따라 대련에는 일본국내 뿐만 아니라 조선과 대만 등지에서 몰려든 일본상인들로 북적였다. 그 결과 상업질서의 확립과 영업활동 조건 정비를 위한 실업가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06년 1월 10일 대련실업가 18명은 실업상의 의견교환과 친목을 위한 조직으로 헤이고다화회(丙午茶話會)를 결성하였다.²⁵⁰⁾ 같은 해 3월 10일, 제3회 모임에서는 헤이고다화회를 실업단체조직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간사 9명, 서기장 1명 등이 선출되었다. 데미즈는 이때 대련실업회의 간사로 선출되었다.²⁵¹⁾ 대련실업회는 관동도독부의 대련 이전 청원을 비롯해 “특종(特種)은행설립문제, 특종대출증자문제, 자유항철폐반대운동”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며 당해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해 갔다.

1905년 9월 대련으로의 자유도항이 허가됨에 따라 대련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점차 증가하였지만, 신사가 설립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국경일이 되더라도 신사를 찾아가 참배할 수가 없었다. 이에 데미즈를 중심으로 한 유지자들은 약 20만 엔의 예산을 들여 대련신사의 설립을 계획하였다.²⁵²⁾

데미즈의 대련신사설립이 추진되고 있을 때 다른 한 쪽에서는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대련포교사였던 마츠야마 테이조(松山理三, <그림7>)가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대련분사설립과 신자모집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대련에는 우부스나신사(産土神社)가 없었기 때문에 대련의 일본인 대다수는 마츠야마 포교사가 이즈모타이샤(出雲大社)와 관계가 있는 신사를 대련에 설립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

247) 「大連渡航營業所許可証交付付願の件」, 『陸滿普大日記 明治39年4月』, 1906, 日本國立公文書館, C030270241001906.

248) 현재 近畿日本鐵道(近鐵)의 전신이다.

249) 「河陽鐵道の仮死」, 『大阪毎日新聞』, 1926년 1월 10일.

250) 柳澤遊 앞의 책, p.32.

251) 福昌公司互敬會, 『滿洲と相生由太郎』, 1932, p.370, 柳澤遊 앞의 책, p.32.

252) 松山理三編, 『大連神社創立誌』, 大連神社社務所, 1920, p.1.

다.²⁵³⁾ 데미즈가 마츠야마에게 자신들과 함께 대련신사의 설립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1907년 7월 25일 이시모토의 집에 마련된 이즈모오야시로코 분사설립사무소에서 데미즈의 건의에 대한 회의가 열렸다. 회의 결과 대련신사 합동설립안은 무산되었다. 경영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大連神社創立誌』에 따르면 이후 데미즈는 대련신사의 설립계획을 단념하고 일본으로 귀국하였고, 데미즈와 함께 대련신사설립에 참여하였던 “木村, 佐藤, 北條”²⁵⁴⁾ 등도 신사설립사업을 포기하였다고 한다.²⁵⁵⁾

대련신사의 합동설립이 무산되었다는 이유로 데미즈가 일본으로 귀국하였다는 서술에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데미즈의 대련도향 목적은 데라우치 육군대신에게 제출한 서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련에서의 사업에 있었다. 신사창립이 대련진출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데미즈가 귀국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그 답은 당시 대련의 경제상황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1906년 10월부터 1907년 5월까지 대련실업회의 지도부는 빈번한 교체를 겪었다. 그 이유는 대련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1906년 10월 회장에 취임한 미요시 테이지로(三好程次郎)는 같은 해 12월 영업 부진으로 사임하였다. 뒤를 이어 회장대리로 취임한 야마가타상회(山縣商會) 대련지점의 고타우 센키치(五寶仙吉) 역시 업소의 영업부진으로 1907년 5월 그 직을 사임하고 일본 본국으로 돌아갔다. 1907년부터 1908년까지 대련경제는 전쟁특수의 소멸과 일본 국내의 공황 등의 영향으로 도산하는 상점과 영업실적 하락을 겪는 기업이 속출하였다. 대련실업회의 간사도 그 영향으로 인해 빈번한 교체를 피할 수 없었다.²⁵⁶⁾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데미즈의 귀국과 나머지 관계자들의 신사사업 포기는 1907년부터 1908년에 걸친 대련의 경제공황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추측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본다면 데미즈 측이 이즈모오야시로코 측에 대련신사의 합동건설을 제안한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였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즈모오야시로코의 활동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던 이시모토는 아편전매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시모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253) 松山理三編 앞의 책, p.2.

254) 木村, 佐藤, 北條는 데미즈와 함께 대련실업회에서 활동하였던 인물인 木村政平, 佐藤至誠, 北條三野夫人 것으로 추측된다. 福昌公司互敬會 앞의 책, p.370.

255) 松山理三編 앞의 책, pp.21-22.

256) 柳澤遊 앞의 책, p.33.

은 후술하도록 하겠다.

대련신사의 설립은 최초 데미즈 등 대련실업회의 회원들에 의해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데미즈 측의 신사설립계획은 이즈모오야시로쿄 측과의 협상결렬 그리고 대련경제에 닥친 불황의 영향으로 인해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대련의 일본인들은 여전히 아이가 탄생하거나 국경일이 오더라도 신사를 찾아 참배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련의 일본인들에게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대련분사설립 활동은 한층 더 시마네현의 이즈모타이샤와 관계 깊은 신사가 설립되는 모습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대련분사 설립과 대련신사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이즈모오야시로쿄(出雲大社教)와 대련신사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대련진출은 러일전쟁 중이었던 1904년 7월 포교사 마츠야마가 야전철도제리부(野戰鐵道提理部)의 군속신분으로 대련에 건너가며 시작되었다.²⁵⁷⁾ 같은 해 7월 5일 대련에 도착한 야전철도제리부는 러시아군이 파괴한 선로와 교량의 개량, 기관차 차량의 조직, 러시아식의 5피트 폭을 일본차량의 운전에만도록 3피트 6인치로 개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²⁵⁸⁾ 마츠야마는 군속의 임무를 수행하는 와중에도 “만주포교”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향토민족에 동화”되고자 목축을 부업으로 하며 현지의 아이들을 모아 일본어를 가르쳤다. 그러나 마츠야마는 대련에서 같은 일본인으로부터 얻는 효과가 적지 않았으므로 얼마 후 일본인 포교를 전문으로 하게 되었다.²⁵⁹⁾

1904년 7월부터 군속의 임무가 끝난 1907년 3월까지 마츠야마가 모집한 이즈모오야시로쿄의 코우샤인(講社員)은 약 천명에 달했고 이들로부터 확보한 적립금은 분사설립의 기초자금이 되었다. 앞서 언급되었던 이시모토도 이즈모오야시로쿄 코우샤인 중 한 명이였다. 이시모토는 1907년 3월 28일 자신의 집의 한 칸을 이즈모오야시로쿄 분사건설사무소로 대여해주었고, 같은 해 4월부터 10월까지 마츠야마를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했다.²⁶⁰⁾

같은 해 8월 2일 이시모토는 사무소에서 분사건설을 위한 위원을 선출하자는 의

257) 松山理三編 앞의 책, p.69.

258) 大連市役所 앞의 책, p.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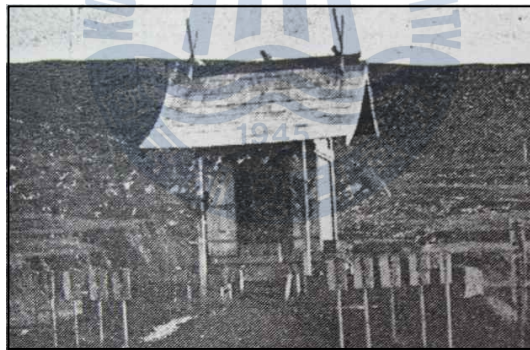
259) 松山理三編 앞의 책, p.3.

260) 松山理三編 앞의 책, p.21.

건을 제시했다. 이후 8월 19일 창립위원총회가 열려 분사건설위원이 선출되었고, 위원장에 아리마 수미오(有馬純雄), 부위원장에 다카야나기 노부마사(高柳信昌)가 각각 취임하였으며 정·부위원장의 추천으로 59명의 위원이 정해졌다. 59명의 건설위원 가운데 15명의 평의원이 선발되었고, 회계를 맡을 2명의 위원이 정해졌다. 여기서 이시모토는 유일하게 건설위원, 평의원, 회계를 모두 맡고 있었다.²⁶¹⁾ 이로써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대련분사건설사업은 건설위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게 된다.

8월 25일 건설위원이자 아키다(秋田)상회의 대련지점장인 아키토미 큐타로(秋富久太郎)가 목재 일체를, 이와미구미쵸(岩見組長)의 미즈마 요사쿠(水間與作)가 공작비 일체를 기부하여 임시신전(假神殿)의 공사가 시작되었고, 같은 달 31일 완성되었다.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분사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대련의 일본인은 이즈모타이사의 분사(分社)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임시신전의 공사가 끝나고 사토쵸(佐渡町, 현 白玉街)의 유지자로부터 ‘대련신사’라고 적힌 목조의 도리이(木造鳥居)가 기증된 사실은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다.²⁶²⁾

<그림8> 出雲大社教 大連分祠의 假神殿



(출전: 松山理三編, 『大連神社創立誌』, 大連神社社務所, 1920.)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대련분사설립에 관여한 또 다른 단체로는 황도회(皇道會)를 들 수 있다. 1907년 10월 25일 이시모토의 집에서는 가도(歌道)²⁶³⁾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와카회(和歌會)가 조직되었다. 와카회의 회원 중에는 이시모토를 비롯해

261) 松山理三編 앞의 책, pp.22-23.

262) 大連神社八十年祭奉讚會, 『大連神社八十年史』, 啓隆社, 1987, p.6, 新田光子 앞의 책, pp.52-53, 松山理三編 앞의 책, p.25.

263) 와카를 짓거나 연구하는 일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오바 토요하루(大羽豊治), 오타니 신조(大谷深造)와 같은 분사건설위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 오타니는 동회(同會)의 발전을 위해 황도회를 조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시모토는 그 부속사업으로 “만주 각지에 재주하는 취학아동이 대련 소학교로 통학하도록 장학원(獎學園)이라는 기숙사를 설립”하자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 속에 조직이 정비되어 육군중장 사이쇼 아츠부미(稅所篤文), 육군대좌 오타니 신조가 각각 회장과 부회장에 취임하였다. 1908년 3월 14일 나니와초(浪速町, 현 天津街)의 선방정(扇芳亭)에서 오바는 황도회의 회원 “백수십명”을 앞에 두고 “황도회원과 분사건설위원은 표면적으로 조직의 계통을 달리 하고 있지만, 그 근본적 정신에서는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한 뒤 분사건설의 동기와 그 경영방법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황도회의 회원 일제히 동의했다.²⁶⁴⁾

한편 분사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황도회와 분사건설위원회를 연합하자는 의견이 분사건설위원회 내에서 제기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부위원장 다카야나기는 스스로 책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평의원까지 사직했고, 아리마 위원장 역시 자신이 대련민정서에서 근무하는 관리라는 이유를 들어 1908년 7월 3일 사직했다. 이로 인해 건설위원들은 다음날 대련실업회사사무소에서 총회를 열어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발에 관한 회의를 시작했고 동월 9일에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의 이사였던 구니자와 신베에(國澤新兵衛)와, 이시모토가 각각 신임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에 올랐다. 13일 포교사 마츠야마와 이시모토는 구니자와를 방문하여 협조를 구했고, 구니자와는 이시모토가 부위원장이 된다는 조건하에 승낙했다. 14일 대련실업회사사무소에서 재차 건설위원총회가 개최되었고, 이상의 사실들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²⁶⁵⁾

이즈모야시로쿄의 대련분사는 1907년 7월 시즈오카현(靜岡縣) 후쿠로이(袋井)의 사전건축사 스즈키 마고키치(鈴木孫吉)에 의해 제작이 진행되고 있었다.²⁶⁶⁾ 그런데 1908년 7월 22일 후쿠로이에서 목재에 관한 요금을 청구하였으나 분사건설위원회에서는 이를 해결할 자금이 없어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는 1907년과 1908년에 걸친 대련의 불경기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건설위원회에서는 긴급하

264) 松山理三編 앞의 책, p.27, p.69.

265) 松山理三編 앞의 책, p.28, 泰郁彦, 『戰前日本官僚の制度・組織・人事』, 東京大學出版會, 1981, p.93.

266) 松山理三編 앞의 책, p.69.

게 기부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세웠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부위원장과 회계계를 각각 1명씩 증원하였다.²⁶⁷⁾ 신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류조억(劉兆億)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핑제채표국(宏濟彩票局)과 기타 방면으로부터 다액의 기부금을 조성했고, 신임 회계계로 임명된 아이오이 유타로(相生由太郎) 역시 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 및 기존의 부채를 일시에 해결하여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²⁶⁸⁾ 핑제채표국과 아이오이가 가진 경제력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1908년 8월 30일 후쿠로이역(袋井驛)에서 출발한 건축자재 및 관련 기술자들이 대련항에 도착하였다. 9월 2일에는 부두에 도착한 목재를 건축부지로 운반하는 나무끌기의식(木曳式)이 진행되어 대련의 남녀노소가 참여하였다.²⁶⁹⁾

<그림9> 대련시민의 木曳式



(출전: 松山理三編, 『大連神社創立誌』, 大連神社社務所, 1920.)

1908년 9월 2일 대련항을 통해 분사건축에 관한 재료가 도착하였고, 1년간의 공사를 거쳐 1909년 10월 7일 신전, 배전, 중문, 신찬소(神饌所), 미즈야(水舎), 사무소(社務所)가 완공되었다. 다음 날인 8일에는 이즈모오야시로쿄의 관장 대리인 사사키 유키미(佐佐木幸見)가 대련에 도착하여, 도쿄에서 가지고 온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분령을 미코시(神輿)에 안치하여 경내까지 옮기는 의식을 진행하였다.²⁷⁰⁾ 9일

267) 松山理三編 앞의 책, p.32.

268) 松山理三編 앞의 책, p.33, p.40.

269) 松山理三編 앞의 책, p.33.

270) 松山理三編 앞의 책, p.70.

에는 천좌식이 진행되었으며, 임시신전에 안치되어 있던 신체(神體)도 신축된 신전으로 옮겼다. 10일 오전 10시부터는 진제식(鎭祭式)이 진행되어 분사건설위원 및 민정장관 대리, 대련민정서장, 황도회장, 대련재향군인회단장, 각 신문사장 등을 비롯한 각 관계자들이 본식에 참여하였다.²⁷¹⁾ 또한 이즈모오야시로쿄의 관장 센게 타카치카(千家尊愛)는 분사건설위원장 이하 위원 및 위원에 준하는 각 이들에게 감사장과 선물을 증정하였는데, 다른 이들에게는 1개씩 증정되었던 은잔이 구니자와위원장, 이시모토와 류부위원장, 아이오이 회계위원에게는 각각 3개씩이 증정되었다.²⁷²⁾ 이상의 네 사람이 분사의 건설에 크게 조력한 것을 알 수 있다.

1909년 12월 6일 구니자와 위원장, 이시모토 부위원장, 아이오이 회계주임 등이 사무소에서 비밀회의를 개최하여 신사와 종교의 구별에 관해 논의를 하고,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본원과 교섭을 거듭한 후 1910년 3월 30일 분사상급역원회의를 열어 분사를 대련신사로 개칭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안은 건설위원 간에 의견 조절을 거쳐 대련민정서장에게 보고되었다. 4월 30일에 열린 분사역원총회에서는 분사를 신사로 개칭하는 방법과 수순에 관한 7개의 사항을 정리하였다.²⁷³⁾

1910년 5월 28일에는 대련신사 최초의 춘계대제가 집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련민정서장 대리에 의한 폐백공진이 진행되었고, 소학교 아동의 참배가 이어졌다. 이와 같은 행사는 일본 국내와 비교하자면 ‘현사(縣社)’의 사격에 해당하는 신

271) 松山理三編 앞의 책, p.42.

272) 松山理三編 앞의 책, pp.49-51.

273) 1. 오야시로쿄 관동분사를 대련시의 우부스나신사로 봉사할 것.
 2. 신전, 배전, 울타리(玉垣), 중문, 신찬소, 미즈야, 사무소, 휴게소는 우부스나신사의 관할로 함.
 3. 기와구조의 구 사무소(舊社務所), 장학원 기숙사건물 및 부속건물은 오야시로쿄의 관할로 함.
 4. 토지는 다리를 경계로 이남을 우부스나신사의 관할로, 이북을 오야시로쿄의 관할로 함.
 단, 공도(公道)로 통하는 도로는 우부스나신사의 관할로 함.
 5. 배전 내에 있는 조령사(祖靈社)는 구 사무소를 개조하여 조령사로 함.
 6. 건설위원은 대련시민 중 선출한 우지코(氏子)총대가 확정되면 인계수속을 마치고 해산함.
 단,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잔무위원 수 명을 둠.
 7. 구 사무소 개축, 기타 경비세목 및 협정에서 빠진 사항은 우지코총대, 잔무위원, 분원역원이 협정하는 것으로 함.
 이상은 1910년 5월 17일 위원회에서 결정.
 松山理三編 앞의 책, pp.59-60.

사에서 진행되었으므로, 무격사에 지나지 않던 대련신사에서는 파격적인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²⁷⁴⁾ 같은 해 10월 13일에는 대련신사제규정(大連神社諸規定)이 관동도독부로부터 허가되었다. 주요 내용은 우지코와 역원(役員)의 역할과 선발규정이었다. 당시 관동주에는 신사인가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대련신사의 인가규정은 이후 만주 각지의 신사설립 신청 시 참고자료가 되었다.²⁷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련신사는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대련분사를 기반으로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데미즈 등이 신사설립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본으로 귀국했던 것과 달리 이즈모오야시로쿄는 이시모토를 비롯한 여러 개인과 단체의 지원을 얻어 분사건설에 성공하였다. 이시모토는 분사건설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관동도독부의 통역관으로 재직하며 개인적으로 자신의 집의 일부를 분사창립사무소로 대여해주었고, 분사건설위원회, 황도회 등의 단체에서도 분사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즈모오야시로쿄를 대련신사로 만드는 데 크게 조력한 이들은 주로 만철, 대련민정서, 군(軍)과 같은 일본정부와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이즈모오야시로쿄 측이 데미즈 측과 달리 사업을 성공시키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시모토가 이즈모오야시로쿄의 분사건설에서부터 대련신사의 설립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막대한 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대련신사의 설립에 가장 크게 공헌한 이시모토와 그를 경제적으로 부유하도록 만든 아편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대련신사와 아편

『對支回顧錄』²⁷⁶⁾에 따르면 이시모토는 1868년 4월 고지현(高知縣) 나가오카군(長岡郡) 오코무라(岡豊村) 출신이며, 그의 집안은 대대로 구지(宮司)의 직을 맡아왔다고 한다. 1882년 이시모토는 사사키 타카유키(佐佐木高行)²⁷⁷⁾의 후원으로 상해로

274) 新田光子 앞의 책, p.63.

275) 新田光子 앞의 책, pp.55-56.

276) 東亞同文會編, 『對支回顧錄』, 原書房, 1981, p.284.

277) 佐佐木高行(1830년-1910년)는 도사번(土佐藩) 출신으로 메이지 시기 정치가로 활약하며 이타가키 타이스케(板垣退助)·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郎)와 함께 도사삼백(土佐三伯)으로 불렸다 <http://ja.wikipedia.org/wiki/%E4%BD%90%E4%BD%90%E6%9C%A8%E9%AB%98%E8%A1%8C>, 검색어: '佐佐木高行', 검색일: 2013년 11월 14일.

건너가 프랑스인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배웠다. 청일전쟁의 발발 후 도사(土佐)출신의 제1사단장 야마지 모토하루(山地元治)의 통역관으로 참전하여 대만까지 종군하였고,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가 대만총독으로 임명된 이후 대만총독부 전매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이시모토는 대련에서 아편전매국을 경영하게 된다. 러일전쟁에도 통역관으로서 제3군 소속으로 참전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대련에 머물며 관동도독부 소속으로 근무하게 되었다.²⁷⁸⁾

아편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정부가 재원의 확보를 위해 직접 관리하는 상품이었다. 1894년 청일전쟁 이래 대만·관동주 등의 지역에서 일본정부는 아편을 전매하며 재정을 확충했다. 1898년 9월 일본은 대만에 아편령의 실시에 들어갔고, 이 아편령에 근거해 대만총독부는 전매국에서만 아편을 수입·제조하도록 하였다.²⁷⁹⁾ “1898년 일본은 대만에서 약 350만 엔 정도의 아편전매 수입을 올렸는데, 이것은 대만 전체 세입의 46.34%”에 해당하는 것으로 점진정책에 근거한 아편전매제도가 아편 근절을 위한 것이 아닌 대만총독부의 재정확보를 위한 사업이었음을 말해준다.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관동주를 조차한 후, 이 지역에서도 아편 점진정책을 명분으로 아편전매제도를 실시하였다.²⁸⁰⁾ 그러나 관동주의 아편전매제도는 대만총독부와 같은 식민지당국이 직접 아편전매를 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²⁸¹⁾

1906년 관동도독부는 아편판매의 개인특허제를 실시하여 중국인 반충국(潘忠國)에게 권한을 주었고, 1907년 이시모토가 그 특허권한을 넘겨받았다. 이시모토는 1915년 개인특허제가 폐지될 때까지 아편판매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다.²⁸²⁾ 이시모토의 저택은 마츠야마저택(松山御殿)이라 불리며, 해마다 꽃놀이가 열리는 호화저택으로 유명했는데, 그 규모는 관동도독부 민정장관의 관사를 능가했다고 한다.²⁸³⁾ 이시모토는 해외에서 아편을 대규모로 수입하여, 광고국(廣膏局)에서 아편 원료를 벽돌 크기의 아편고(阿片膏)로 가공한 후 민정서에 등기한 중간상인에게 도매했는데, 광고국은 “이름은 민립(民立)이나 사실은 관영(官營)으로 틀림없이 관청

278) 이시모토의 경력은 東亞同文會編 앞의 책, pp.284-285에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79) 박강, 『中日戰爭과 아편-내몽고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사, 1995, p.59.

280) 박강 앞의 책, pp.60-62.

281) 구라하시 마사나오, 박강 역, 『아편제국 日本』, 지식산업사, 1999, p.142.

282) 구라하시 마사나오 앞의 책, pp.142-143.

283) 구라하시 마사나오 앞의 책, p.149.

과 상인이 결탁한 경영기구”였다.²⁸⁴⁾ 이상과 같이 이시모토는 관동도독부로부터 허가받은 아편전매권을 기반으로 수익을 올렸고, 그 수익의 일부는 다시 관동도독부로 제공되어 군부의 비밀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²⁸⁵⁾

<표12>은 1908년 7월 이후 이즈모야시로료의 분사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기부한 개인과 단체를 다액기부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12> 出雲大社教 大連分祠 건설자금 기부자 및 기부금액 (단위 엔)

개인명·단체명	금액	비고
宏濟彩票局	12,000	중국인단체
相生由太郎	5,330	분사건설위원회 회계주임
南滿洲鐵道株式會社	3,000	국영회사
石本鑽太郎	2,049	분사건설위원회 부위원장
國澤新兵衛	1,000	분사건설위원회 위원장

(출전: 松山理三編, 『大連神社創立誌』, 大連神社社務所, 1920, pp.106-107.)

이시모토보다 다액을 기부한 개인 및 단체가 있긴 하지만 이시모토의 기부액도 결코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시모토가 이상과 같이 분사건설자금으로 거액을 기부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대련에서 아편전매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액기부자 및 단체 중에는 이시모토와 같은 분사건설위원회의 임원과 함께 핑제 채표국이라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핑제채표국은 1905년 말 대련화상공의회(大連華商公議會)회장 류조이(劉兆伊)와 기타 관계자가 군용수표 회수와 채표²⁸⁶⁾의 발행수익을 통한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관동도독부로부터 인가받아 설립했다. 1908년 3월 제20차 발행까지 총 58,823엔을 수익을 올렸는데, 그 중 21,618엔은 1907년 핑제선당(宏濟善堂)건설, 1·2차 채표손실보충,

284) 郭鐵樁 外, 신태갑 외 역, 『일본의 대련 식민통치 40년史 제1권』, 선인, 2012, p.149.

285) 구라하시 마사나오 앞의 책, p.148.

286) 채표는 지금의 복권과 같은 것으로 1893년 당시 부산의 총영사 무로다 요시아야(室田義文)가 허가한 것을 기원으로 한다. 그 이후로 만들어진 것들이 핑제채표, 용암포채표, 대만채표인데, 다른 채표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쇠락했으나 핑제국의 채표는 점점 융성해 갔다. 게다가 핑제국의 채표는 조선, 일본으로의 유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고 달마다 수만 장이 유입되었다고 한다. 「滿洲時事」, 『朝鮮及滿洲』, 1913년 4월 1일.

공학당일어전습소(公學堂日語傳習所) 건설에 사용하였다고 한다.²⁸⁷⁾ 핑제선당은 1908년 4월 개설되어 중국인 고아나 과부의 원조, 빈곤자구제 및 아편흡연자의 치료 등을 행하는 자선단체였다고 알려져 있다. 핑제선당의 대표는 분사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 류조억이었다. 그는 러시아가 대련을 점령하던 시기 외국무역 중개업자로 활동하다, 일본이 대련을 점령한 이후에는 “친일적민족자본가”가 되어 일본의 대련 지배에 공헌한 인물이었다.²⁸⁸⁾ 핑제선당은 관동도독부로부터 매년 지원금을 받았으며, 1914년에는 이시모토의 아편전매특허권을 넘겨받아 아편의 수입·제조·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²⁸⁹⁾ 핑제선당 안에는 계연부(戒烟部)라고 하는 금연부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이 금연부는 사실 아편을 판매하는 곳이었다. 즉 대련민정서는 핑제선당의 명의를 빌려 아편판매를 한 것이다. 일본의 관동주 식민당국이 대련에서 아편판매 등으로 얻은 수입은 특허비라는 명목으로 관동주의 지방재정으로 충당되었는데, 관동주 식민당국 권력자들은 해외식민지의 지방재정수입은 제국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일본 법률을 이용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특허비를 사용하였다. 1921년의 ‘관동주 아편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었다.²⁹⁰⁾

대련에서 판매되는 아편은 모두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였다. 수입은 주로 미쓰이(三井)물산 대련지점과 같은 일본의 대형 상사나 만철, 복창공사(福昌公司)와 같은 회사가 그 일을 맡았다.²⁹¹⁾ 복창공사는 분사건설 기부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낸 아이오이가 1909년 설립한 회사였다. 아이오이는 1867년 후쿠오카 출신으로 도쿄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1898년에 미쓰이광산(三井鑛山)에 입사했다. 1907년에는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만철총재를 통해 대련부두사무소장직을 맡았고, 1909년에는 만철에서 항만노동자를 공급하는 부분을 독립시켜 복창공사를 설립했다.²⁹²⁾ 만철에서는 대련항의 하역일을 모두 복창공사에 맡겼고, 아이오이는 하역노동에 종사하는 중국인 노동자(中國人苦力)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수용소를 만들었다.²⁹³⁾ 1913년 당시 대련에는 모두 3곳에 중국인 노동자수용소(苦力收容所)가 있었다. 그중에서 복

287) 「宏濟彩票局の計劃事業」, 『滿洲日日新聞』, 1908년 4월 20일.

288) 竹中憲一, 『大連歴史散歩』, 皓星社, 2007, p.125.

289) 竹中憲一 앞의 책, p.126, 大連民政署編, 『大連要覽』, 大阪屋號書店, 1928, p.280.

290) 郭鐵樁 外 앞의 책, p.151, p.155.

291) 郭鐵樁 外 앞의 책, pp.151-154.

292) 竹中憲一 앞의 책, p.24.

293) 西澤泰彦, 『大連都市物語』, 河出書房新社, 1999, p.75.

창공사의 수용소가 가장 컸다고 한다. 각 수용소는 대련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1912년에 유행한 페스트 전파의 최대요인으로 꼽혀 시내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²⁹⁴⁾ 아이오이는 수용소에 “치료·오락·위생시설을 세워 ‘관리’와 ‘복리’ 2가지 방책”을 사용해 노동자를 관리했으며, 노동자들에게 아편과 채표를 공급해 그들의 공임(工賃)을 토해내게 만들기도 하였다.²⁹⁵⁾

이상 대련신사의 탄생에 크게 조력했던 이시모토의 활동 배경에 대해 그의 아편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시모토가 이즈모야시로쿄의 대련분사설립 초기부터 자신의 집 일부를 내어주고, 또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분사설립에 필요한 협력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편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시모토는 청일전쟁 이후부터 군과 맺어온 인연을 바탕으로 아편전매에 종사하였고, 그 경험을 토대로 대련에서도 아편을 통해 부를 쌓았다. 아편은 이시모토 뿐만 아니라 중국인단체였던 광제국과 무역업과 중국인 노동자관리업을 하던 아이오이에게도 부를 가져다주었다.

4. 결론

러일전쟁 이후 대련신사가 당해지역의 국민적 통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 대해 참여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닛타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대련신사는 이즈모야시로쿄의 대련분사를 전신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나 대련신사의 설립배경의 이면에는 이즈모야시로쿄 측과는 별개로 대련신사를 최초로 설립하고자 했던 데미즈 측과 같은 세력도 존재했던 사실을 본 연구에서 밝혔다. 데미즈 측의 시도는 이즈모야시로쿄 측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좌절되었다. 대련일본인사회에서 신사설립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의 사례는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라고 신사의 설립에 모두 협조하거나, 찬성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해외일본인사회와 신사에 관한 연구에서 신사설립에 있어서 지역민의 불화에 관한 부분이 지적된 적은 없었다. 또한 이시모토 칸타로라고 하는 아편전매상이 대련신사의 설립에 많은 협조를 했다는 사실은 신사의 성격을

294) 「苦力と苦力收容所」, 『朝鮮及滿洲』, 1913년 1월 1일.

295) 竹中憲一 앞의 책, p.25.

신사 안에 모셔진 제신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재부일본인사회의 경우 아편상이 아닌 쓰시마의 마지막 번주였던 소 시게마사(宗重正)와 같은 쓰시마인이 신사의 설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해외일본인사회의 신사가 신사로서 다 같은 것이 아닌 당해지역사회의 특징이 반영된 개성을 가진 산물이었음을 말해준다.

대련과 같은 조차지 혹은 식민지에 설립된 신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되고 있다.

“신사는 식민지 도시에 있어서 일본인 사회의 정신적 통합의 핵이자 식민지 지배의 상징으로, 구미인 커뮤니티의 교회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신성한 장소로 일찍부터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일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면 거의 모든 곳에 신사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⁹⁶⁾

하시야 히로시(橋谷弘)가 일본의 식민지 도시 경관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의 하나로 신사를 꼽은 것도 위와 같은 이유이다.²⁹⁷⁾ 일본인들이 모여 있는 모든 곳에 신사가 있다는 말은 해외신사연구의 선구자로 알려진 오가사와라 쇼조(小笠原三省)의 『海外の神社』에서 나온 이래 지금까지 아무런 비판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신사에 대한 인식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해외일본인사회에 설립된 개별 신사가 가졌던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해외일본인사회가 신사를 통해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가는 과정도 드러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해외일본인사회에 신사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그 신사가 어떻게, 어떤 사회적 구조 속에서 설립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작업이 수반될 때 해외일본인사회와 당해지역신사가 어떤 과정을 거치며 개성을 잃고 제국일본을 구성하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296) 김백영,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근대도시 형성」,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근대도시 형성』, 심산, 2013, p.198.

297) 橋谷弘, 『帝國日本と植民地都市』, 吉川弘文館, 2004, p.81.

종장

이상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형성의 특징을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을 통해 살펴보았다.

제1장에서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구조변화에 대해 쓰시마인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쓰시마인은 쓰시마 본도(本島)의 피폐와 경제적 문제로 인해 1876년 이후 부산으로 대거 진출하였다. 그 결과 1888년까지 약 2천 명에 달하는 재부일본인의 과반수를 쓰시마인이 차지하였다.

쓰시마인은 부산에 진출한 일본의 유력자본가와와 갈등, 경제불황, 자연재해 등을 경험하는 가운데 동향인 간에 도움이 되자는 목적을 세우고 동향회를 결성하였다. 동향회의 결성은 1880년을 기점으로 일본 국내의 도시에서도 확인된다. 나리타 류이치는 동향회의 결성원리가 국민국가의 형성원리와 유사함을 지적하며 그것이 국민국가 형성기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밝혔다. 또한 쓰시마동향회에서는 1884년 쓰시마의 초대 번주 소 요시토시를 모시는 히로쿠니신사요배소를 설치하였는데, 일본 국내의 동향회도 구 번주를 역사상의 위인으로 삼아 현창하며 동향인 간의 연대를 기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에서 일본 국내와 유사한 형태로 국민국가화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제2장에서는 개항 이후 쓰시마인과 비쓰시마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재부일본인사회가 청일전쟁 이후 용두산신사의 설립을 통해 국민적 통합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초량왜관 시기부터 존재했던 쓰시마인의 사당은 부산의 개항 이후 다수의 일본인을 통합할 수 있는 형태의 신사로 변화되어야만 했다. 사당에서 신사로의 변화를 담당한 주체는 일본인자치기구였다. 일본인자치기구에서는 신직과 교도직 같은 전문인의 지원을 통해 쓰시마인의 사당을 사무소(社務所)와 같은 근대적 시설을 갖춘 신사로 바꿔나갔다. 정비가 진행 중이던 고토히라신사에서는 1894년 3월 9일 메이지천황의 은혼식을 기념하는 제전이 집행되었다. 이날은 일본제국헌법 발포식 때와 마찬가지로 이세신궁과 모든 국가의 신사 등에서 동시에 제전이 집행되었다. 재부일본인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국가적 제전을 통해 공간과 시간의 국민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자치기구의 신사에 관한 사무가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에 반해 쓰시마동향회는 쓰시마의 구 번주를 신으로 모시는 히로쿠니신사요배소를 설립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쓰시마인을 대상으로 활동하였다. 청일전쟁은 재부일본인사회가 신앙의 측면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으로 보인다. 전쟁 이후인 1896년 4월 히로쿠니다이진이 쓰시마동향회 관계자의 참석 하에 진행된 행사 중 고토히라신사로 합사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는 국민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히로쿠니다이진의 합사 이후 고토히라신사는 노후가 원인이 되어 개축된다. 이때 필요한 공사자금은 쓰시마의 마지막 번주 쇼 시게마사의 협조 속에 마련되었다. 재부일본인 전체를 위한 신사의 공사자금마련에 쇼 시게마사가 협조한 것은 구 통치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책임져야 했던 화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도 파악된다.

고토히라신사는 개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던 1899년 1월 용두산신사로 사호가 변경된다. 이로써 용두산신사는 재부일본인사회를 대표하는 우부스나신사가 되었다. 용두산신사가 재부일본인사회를 대표하는 신사로 거듭나기까지는 야스마루 요시오가 말하는 중간적 지도층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그들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신사를 설립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치적 안정을 유도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권위에도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재부일본인사회가 법적으로 국민국가 일본의 일부로 편입되어가는 과정을 거류민단법의 시행 이후 신사행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06년 통감부령으로 거류민단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부일본인사회는 일본의 시정촌과 같은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후 새롭게 제정된 거류민단규칙을 기반으로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행정도 보다 명문화된다. 우지코제도를 거류민단규칙에 나와 있는 총대선출규칙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재부일본인사회에서는 1907년과 1908년 두 차례에 걸쳐 용두산신사의 사격을 통감부에 청원하였다. 사격은 원래 일본 국내에만 적용되는 법이었기 때문에, 해외에 임의로 설립된 용두산신사에는 적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거류민단법의 시행으로 재부일본인사회가 법인화됨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과 대만의 관폐사급 신사에서 신직으로서 재직했던 히라마츠가 용두산신사의 신직으로서 사격청원을 주도한 것은 용두산신사의 사격으로 관폐대사가 요청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안은 통감부를 거쳐 내무성까지 전해졌다. 비록 통감부 시기 사격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은 해외에 임의로 설치된 신사가 일본 국내법의 테두리 속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준다.

또한 용두산신사의 사격청원 과정 중 재부일본인사회 내의 기타 신사들은 용두산신사의 경내신사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던 신사의

통·폐합정책의 영향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 또한 재부일본인사회에서도 일본 국내와 마찬가지로 신사를 통한 국민국가화가 진행 중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 과정을 통해 근대 일본의 국민국가화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재부일본인사회를 비롯한 메이지 초기 형성된 해외일본인사회와 당해지역의 해외신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재부일본인사회 외에 보다 다양한 대상지역과, 신사와 같은 국민통합의 장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니시카와 나가오는 근대 국민국가의 특징 중 하나로 명확한 국경의 존재를 꼽았다. 1877년 초량왜관이 폐쇄됨에 따라 쓰시마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완충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양국의 관계가 쓰시마의 소멸과 함께 근대적으로 개편되었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정작 양국을 매개한 주체였던 쓰시마인은 그러한 국제관계의 개편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일본의 국민으로서 수렴되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었다. 본 연구는 개항 이후 재부일본인사회의 신사설립 과정을 통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사료>

- 『현종실록』, 1673년 10월 19일.
奥村梅臯, 『大阪人物評論』, 小谷書店, 1903.
相澤仁助 『釜山港勢一斑』, 釜山日韓昌文社, 1905.
中田孝之介, 『在韓人士名鑑』, 木浦新報社, 1905.
『第1次統監府統計年報』, 統監官房文書課, 1907.
釜山居留民團役所, 『釜山居留民團例規類集』, 瞬報社, 1909.
森田福太郎, 『釜山要覽』, 釜山商業會議所, 1912.
釜山甲寅會, 『日鮮通交史』, 朝鮮時報社, 1916.
高矯章之助, 『宗家と朝鮮』, 北内印刷所, 1920.
松山理三編, 『大連神社創立誌』, 大連神社社務所, 1920.
大連民政署編, 『大連要覽』, 大阪屋號書店, 1928.
天野皎, 『入清日記その他』, 壺外書屋, 1929.
松尾鐵次, 『對馬近代史』, 對島明新聞社, 1930.
福昌公司互敬會, 『滿洲と相生由太郎』, 1932.
小笠原三省, 『海外の神社』, 神道評論社, 1933.
仁川府, 『仁川府史』, 1933.
小山文雄, 『神社と朝鮮』, 朝鮮佛教社, 1934.
山川鶴市, 『龍頭山神社史料』, 龍頭山神社社務所, 1936.
大連市役所, 『大連市史』, 1936.
岩下傳四郎, 『大陸神社大觀』, 大陸神道聯盟, 1941.

<문서>

- 「勅令 第144號 地方高等官俸給令改正」,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3020636200.
「신사사격부여의의에 대한 품신」, 대전국가기록정보센터, CJA0004731-002715967.
「大神神社宮司從六位東吉貞以下十六名叙位ノ件」, 日本國立公文書館, A10110067100.

「朝鮮ニ於ケル官国幣社以外ノ神社ノ神饌幣帛料供進ニ関スル件ヲ定ム」, 日本國立公文書館, A01200732000.

「大連渡航營業所許可証交付付願の件」, 『陸滿普大日記 明治39年4月』, 日本國立公文書館, C030270241001906.

<서적>

- 김기혁, 『釜山古地圖』, 부산광역시, 2008.
- 이승일·김대호 외,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식민지적 근대』, 동북아역사재단, 2008.
- 김순석, 『일제 시기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 김종현, 『近代日本經濟史』, 비봉출판사, 1991.
- 김혜정 외, 『통감부 설치와 한국 식민지화』,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 김흥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 구라하시 마사나오, 박강 역, 『아편제국 日本』, 지식산업사, 1999.
- 고마쓰 가즈히코, 김용의 외 역, 『일본인은 어떻게 신이 되는가』, 민속원, 2005.
- 나리타 류이치, 서민교 역, 『근대 도시공간의 문화경험-도시공간으로 보는 일본근대사-』, 뿌리와 이파리, 2011.
- 나리타 류이치, 한일비교문화세미나, 『고향이라는 이야기』,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 나루사와 아키라, 박경수 역, 『일본적 사회질서의 기원』, 소화, 2004.
- 니시카와 나가오, 윤대석 역, 『국민이라는 괴물』, 소명출판, 2002.
- 니시카와 나가오, 한경구·이목 역, 『국경을 넘는 방법』, 일조각, 2006.
- 다시로 가즈이, 정성일 역, 『왜관 : 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 2005.
- 다카히라 나루미 외, 이만옥 역, 『여신』, 들녘, 2002.
- 다카시 후지타니, 『화려한 군주』, 이산, 2003.
- 미와 료이치, 권혁기 역, 『일본경제사』, 보고서, 2004.
- 박강, 『中日戰爭과 아편-내몽고 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사, 1995.
- 박진우,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와 민중』, 제이앤씨, 2004.
- 박진한 외, 「인천대신궁의 공간 변용과 재인천 일본인」,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근대도시 형성』, 심산, 2013.

- 무라이 쇼스케, 이영 역, 『중세 왜인의 세계』, 소화, 2003.
- 스에키 후미이코, 백승연 역, 『일본종교사』, 논형, 2009.
- 앤드루 고든, 김우영 역, 『현대 일본의 역사』, 이산, 2005.
- 야스마루 요시오, 박진우 역, 『근대 천황상의 형성』, 논형, 2008.
- 이성환·이토 유키오 편저, 『한국과 이토히로부미』, 선인, 2009.
- 최영호, 박진우, 류교열, 홍연진, 『부관연락선과 부산』, 논형, 2007.
- 한일종교연구포럼, 『한일 근현대와 종교문화』, 청년사, 2001.
- 함동주, 『천황제 근대국가의 탄생』, 창비, 2009.
- 현명철, 『19세기 후반의 對馬州와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3.
- 홍순권 외, 『부산의 도시 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2008.
- 郭鐵樁 外, 신태갑 외 역, 『일본의 대련 식민통치 40년史 제1권』, 선인, 2012.
- 閔建鎬, 『海隱日錄 I』, 부산근대역사관, 2008.
- 韓哲曦, 『日本の朝鮮支配と宗教政策』, 未來社, 1988.
- 大曲美太郎, 김의환 역, 『釜山の 古蹟과 遺物』, 아성출판사, 1969.
- 加瀬和三郎,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편, 『13-1譯註 仁川開港25年史』, 인천광역시, 2008.
- 信夫淳平,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편, 『12-1譯註 仁川開港25年史』, 인천광역시, 2008.
- 朝日新聞社編, 『村山龍平傳』, 朝日新聞社, 1953.
- 青井哲人, 『植民地神社と帝国日本』, 吉川弘文館, 2005.
- 井上順孝, 『海を渡った日本宗教-移民社會の内と外』, 弘文堂, 1985.
- 上垣外憲一, 『ある明治人の朝鮮觀』, 筑摩書房, 1996.
- 小笠原三省編, 菅浩二, 『海外神社運動の思想を読む』, 『海外神社史』, ゆまに書房, 2004.
- 木村健二, 『在朝日本人の社会史』, 未來社, 1989.
- 熊本縣議會事務局編, 『熊本縣議會史』第二卷, 熊本縣議會, 1968.
- 小林正彬, 『政商の誕生:もうひとつの明治維新』, 東洋經濟新報社, 1987.
- 坂本悠一·木村健二, 『近代植民地都市釜山』, 櫻井書店, 2007.
- 菅浩二, 『日本統治下の海外神社-朝鮮神宮·台湾神社と祭神-』, 弘文堂, 2004.
-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新書, 2002.
- 高矯章之助·中村金城 編, 『韓國併合史研究資料23 ①宗家と朝鮮 ②朝鮮風俗畫報』,

龍溪書社, 1996.

中島三千男, 『海外神社跡地の景觀変容: さまざまな現在』, 御茶の水書房, 2013.

西川長夫·松宮秀治 編, 『幕末·明治期の国民国家形成と文化変容』, 新曜社, 1995.

新田光子, 『大連神社史 -ある海外神社の社会史』, おうふう, 1997.

西澤泰彦, 『大連都市物語』, 河出書房新社, 1999.

泰郁彦, 『戦前日本官僚の制度·組織·人事』, 東京大學出版會, 1981.

竹中憲一, 『大連歴史散歩』, 皓星社, 2007.

原武史, 『<出雲>という思想』, 講談社, 2001.

大連神社八十年祭奉讃會, 『大連神社八十年史』, 啓隆社, 1987.

遠藤正敬, 『近代日本の植民地統治における國籍と戸籍—滿洲·朝鮮·台湾』, 明石書店, 2010.

市川正明 編, 『韓國併合史料②』, 原書房, 1978.

羽賀祥二, 『明治維新と宗教』, 筑摩書房, 1994.

橋谷弘, 『帝國日本と植民地都市』, 吉川弘文館, 2004.

藤本頼生, 『神道と社會事業の近代史』, 弘文堂, 2009.

福西大輔, 『加藤清正公信仰』, 岩田書院, 2012.

副田義也編, 『内務省の歴史社会学』, 東京大學出版會, 2010.

村上重良, 『國家神道』, 岩波新書, 1970.

村上重良, 『天皇の祭祀』, 岩派新書, 1977.

柳澤遊, 『日本人の植民地経験-大連日本人商工業者の歴史』, 青木書店, 1999.

安丸良夫, 『神々の明治維新』, 岩波新書, 1979.

<논문>

김대래·김호범·장지용·정이근,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인구통계의 정비와 분석」, 『한국민족문화』Vol.26, 2005.

김대래·김호범, 「부산일본거류민단 재정 연구(1907-1914):부산부재정의 성립에 관하여」, 『지방정부연구』Vol.10, 2006.

김동철, 「15세기 부산포왜관에서 한일 양국민의 교류와 생활」, 『지역과 역사』 Vol.22, 2008.

김승태, 「日本 神道の 침투와 1910·1920 년대의 ‘神社問題」, 『韓國史論』Vol.16,

1987.

김승, 「개항이후 1910년대 용두산신사와 용미산신사의 조성과 변화과정」, 『지역과 역사』Vol.20, 2007.

김승, 「개항 이후 부산의 일본거류지 사회와 일본인 자치기구의 활동」, 『지방사와 지방문화』Vol.15, 2012.

오미일, 「개항(장)과 이주상인」, 『한국근현대사연구』Vol.47, 2008.

서용태, 「1877년 釜山 濟生醫院의 설립과 그 의의」, 『지역과 역사』Vol.28, 2011.

박양신, 「통감정치와 재한 일본인」, 『歷史教育』Vol.90, 2004.

박양신,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성립과 해체」, 『아시아문화연구』Vol.26, 2012.

양흥숙, 「17-18세기 譯官의 對日貿易」, 『지역과 역사』Vol.5, 1999.

차철옥, 「개항기-1916년 부산 일본인상업회의소의 구성원 변화와 활동」, 『지역과 역사』Vol.14, 2004.

차철옥·양흥숙, 「개항기 부산항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관계 형성」, 『한국학연구』Vol.26, 2007.

하원호, 「개항 후 부산의 대외무역과 유통구조의 변동」, 『史林』Vol.25, 2006.

靑野正明, 「朝鮮總督府の神社定策における國幣小社列格」, 『桃山學院大學人間科學』第35號, 2008.

靑井哲人, 「朝鮮の居留民奉齋神社と朝鮮總督府の神社政策」, 『朝鮮學報』, 1999.

岡本雅享, 「二人の現津神-出雲から見た天皇制」, 『アジア太平洋レビュー』Vol.6, 2009.

石川寛, 「倭館接收後の日朝交渉と対馬」, 『九州史學』 Vol.139, 九州史学研究会, 2004.

津田良樹, 中島三千男, 金花子, 川村武史, 「旧朝鮮の神社跡地調査とその検討-全羅南道, 和順郡を中心に-」, 『年報 人類文化研究のための非文字資料の体系化』第3号, 神奈川大学21世紀COEプログラム研究推進会議, 2006.

市川まりえ, 「1905-1910年 在韓日本人 民間言論의 統監府政治觀」, 『韓國史論』Vol.55, 2009.

中島三千男, 「‘海外神社’研究序說」, 『歷史評論』Vol.602, 2000.

竹澤尙一郎編, 「第五障 神社の近代」, 『宗教とモダニティ』, 世界思想史, 2006.

濱田信夫, 「日本の新聞産業を牽引した企業家活動-村山龍平と本山彦一-」, 『日本の企業家活動シリーズ』Vol.52, 2012.

山口公一, 「『韓国併合』以前における在朝日本人創建神社の性格について」, 『日韓相互認識』第2号, 2009.

<학위논문>

柳教烈, 『明治憲法體制と華族』, 神戸大學博士論文, 1994.

山中麻衣, 『서울거주 日本人自治機構연구(1885-1914)』,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相沙希子, 「부산항 일본인 거류지 연구 : (1876-1883)」,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7.

金貞蘭, 『開港期釜山における社会構造変化の研究 -日本の衛生行政を中心に-』, 神戸大學博士論文, 2009.

황백헌, 「對馬島の 韓語學習에 관한 研究」,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金潤煥, 『近代朝日關係形成史の研究』, 神戸大學大學院人文學研究科博士學位論文, 2012.

<사전>

田中琢·宇野俊一·朝尾直弘, 『日本史辭典』, 各川書店, 1997.

國學院大學日本文化研究所編, 『神道事典』, 弘文堂, 1999.

<신문·잡지>

『大阪日報』, 1881년 6월 26일.

『西海新聞』, 1882년 2월 25일.

『朝鮮新報』, 1882년 3월 15일.

『朝鮮新報』, 1882년 4월 5일.

『鎮西日報』, 1885년 1월 24일.

『鎮西日報』, 1885년 2월 21일.

『鎮西日報』, 1885년 3월 5일.

『鎮西日報』, 1885년 5월 15일.

『鎮西日報』, 1885년 5월 7일.

『鎮西日報』, 1885년 6월 6일.
『鎮西日報』, 1885년 6월 30일.
『中外日報』, 1899년 7월 1일.
『鎮西日報』, 1885년 12월 13일.
神社協會, 『神社協會雜誌 第5年 第11號』, 1906년 11월 15일.
神社協會, 『神社協會雜誌 第5年 第12號』, 1906년 12월 15일.
『滿洲日日新聞』, 1908년 4월 20일.
『朝鮮及滿洲』, 1913년 1월 1일.
『朝鮮及滿洲』, 1913년 4월 1일.
『大阪每日新聞』, 1926년 1월 10일.

